

평화재단 자원활동가 유애경 보살
"오늘 아침 북한 아이들도
밥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6월 3일) · 주간

제948호 2013년 7월 10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 아함경

애착이 있으면 좋고 나쁨을 가리고
좋고 나쁨을 가리면 애착하게 된다.
자신을 다스려 탐욕에 물들지 말아라.

잠 못 드는 열대야, 철야정진으로 넘자

전국 사찰 여름 맞아 정기 · 특별정진 '눈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이다.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 여행을 떠나거나 템플스테이, 또는 수련회에 참가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간과 거리상 문제로 녹록치 않다면 사찰에서 철야정진을 추천한다.

도심 사찰이나 시민선원 등 재가 수행단체에서는 정기적으로 철야정진을 실시하거나 여름을 맞이해 특별정진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바쁜 일과로 자주 수행하기 힘든 불자들과 일반인 사이에서는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 프로그램의 종류도 철야 참선이나 1000배, 다라니 독송 등 다양하며 이를 통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수행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적지 않은 불자와 시민들이 사찰 철야 정진을 찾는 이유는 팍팍한 시대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행복지수는 OECD 36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이며,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수는 2010년 기준 231만 명이다. 이는 2004년에 비해 1.5배 증가한 수치다. 스스로에게 위로하고 만족감과 가치를 찾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름철 철야 정진은 프로그램 시기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철야정진을 실시하는 사찰들이다.

서울 길상사 시민선방(02-3672-5945)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 50분까지 경내 길상선원에서 철야정진을 실시한다. 주지 덕운 스님의 소참법문으로 시작되며, 매시간 50분 정진과 10분 휴식으로 진행된다.

서울 능인선원(02-577-5800)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대웅전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 철야정진을 진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금강선원(02-445-8484)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4시 30분까지 대법당에서 '금강경독송 철야정진'을 실시해 수행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보살사상

참선 · 독송 · 3000배 등
수행 프로그램 '다채'
불자 · 시민 등 참여율 높아

실천을 위한 만일결사수행도량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기간을 정하고 특별정진을 실시하는 사찰도 있다. 백봉 김기추 거사의 유지를 받들고 수행에 나서고 있는 보림선원은 서울 · 부산선방에서 정기 철야정진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선릉역 부근에 위치한 **서울선방**(02-3452-3033)은 '2013년 하계정진 법회'를 7월 26~28일 실시한다. 매시간 45분 좌선, 15분 휴식으로 진행하며, 중간에 백봉선생 음성법문, 선원장의 〈원각경 보안보살품〉, 여운거사의 〈달마대사 혈맥론〉 법문을 펼친다.

부산선방(051-759-1097)은 8월 1~4일 약산한의원에서 좌선과 설법을 개최한다.

서울 조계사 선림원(禪林院, 02-768-8600)은 하안거 토요 철야 참선 프로램 '여름 밤, 구미호를 쫓다!'를 8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4시에 진행하고 있다. 조계사 자율선원장 일수 스님의 지도아래 50분 실참, 10분 포행을 기본 참선 시간으로 하고 있다. 조계사는 "바쁜 현대인들이 참선과 문화행사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상에 매몰된 현실에서 참 나(我)를 돌아보도록 계기를 마련해주는 수행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격주 그리고 매주 마다 철야참선의 전통을 이어온 사찰도 있다. **서울 화계사**(02-902-2663)와 **부산 해운정사**(051-746-2256)가 대표적이다. 화계사는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일요일 오전 3시까지 주말 철야참선을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특히 매월 네 번째 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는 철야 3천배 정진도 한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도심 사찰이나 시민선원 등 재가 수행단체에서는 정기적으로 철야정진을 실시하거나 여름을 맞이해 특별정진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조계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름 밤, 구미호를 쫓다!'에 참가한 수행자들의 참선정진 모습. 사진제공=조계사

2013 사찰 여름 철야정진 현황

일정	사찰명	프로그램	연락처
월 1회 정진	길상사 시민선방	둘째 주 토요일 밤9시~새벽 4시/ 참선정진	02-3672-5945
	서울 금강선원	넷째 주 토요일 밤9시 30분~새벽 4시 30분/ 금강경독송 정진	02-445-8484
	서울 능인선원	마지막 주 토요일 밤 9시 30분~새벽3시/다라니독송	02-577-5800
	대구 영남불교대학 대관음사	첫째 주 토요일 오후 9시/3000배 기도, 다라니독송	053-474-8228
특별정진기간	보림선원 서울선방	7월 26~28일/ 좌선 및 〈원각경〉〈달마혈맥론〉법문	02-3452-3033
	보림선원 부산선방	8월 1~4일/ 좌선 및 설법	051-759-1097
	서울 조계사 선림원	8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밤 9시~새벽 4시/ 참선 및 포행	02-768-8600
	서울 보리수선원	7월 13~21일, 8월 10~18일/ 위빠사나 집중수행	02-517-2841
매주/격주	서울 화계사	둘째 주 토요일 철야 다라니 독송/ 넷째 주 토요일 3000배 정진	02-902-2663
	부산 해운정사	토요일 밤 9시~새벽 2시 35분/ 법문 및 참선, 1080배	051-746-2256

불교방송 6대 이사장 종하 스님 선출

7월 1일 이사회서…"불교방송 정상화에 매진"



불교방송 6대 이사장에 종하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 사진)이 선출됐다. 불교방송은 7월 1일 마포가든호텔에서 83차 이사회를 열고 비밀투표로 이사장 선임의 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총 13명의 이사가 참석했으며 12명 찬성 1명 기권으로 종하 스님이 선출됐다. 불교방송 이사장직은 前 이사장 영담 스님이 지난 4월 19일 81차 이사회에서 해임된 이후 그간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선출 직후 종하 스님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교방송을 재건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종하 스님은 "불교방송이 대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앞으로 불교방송은 이사회가 재건한다는 마음으로 일심단결해 조속히 일련의 사태들을 수습하겠다"고 다짐했다.

1959년과 1968년 고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한 종하 스님은 조계종 제 4~12대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9, 10대 중앙종회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과 서울 관음사 주지 등의 소임을 맡고 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사 선임의 건도 통과됐다. 불교방송 신임이사로는 천태종 도정 총무원장, 진각종 회정 정사, 총지종 법등 통리원장이 각각 선임됐으며 엄상호 이사는 연임이 확정됐다.

일련의 불교방송 사태 해결을 위한 소위원회도 구성된다. 소위원회는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사장복무규정 폐지 및 인사규정 등의 개정의 건, 사장 대표권행사의 구체화 및 사내 현안 해결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건, 기타 안건 등을 해결할 방침이다.

소위원회는 장적 스님(조계종), 구상진 이사(진흥원), 손준서 이사(재가), 법등 통리원장(총지종), 무애 정사(진각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차후 선출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불교문화 단체 등록사업 전개

조계종, 7월 한달간 접수… 권리 보장 등 혜택

조계종 총무원이 불교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른 문화단체 등록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불교문화단체 등록사업은 불교문화 육성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향후 불교문화의 대중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취지로 시행된다.

문화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7월 한달간 1차로 진행되며, 서류심사와 심의를 거쳐 불교문화진흥법상 불교문화단체로서의 권리를 갖게 된다.

불교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등록된 불교문화단체는 조계종 상호를 사용할 수 있고, 종단과의 공동사업 추진, 종단 지원 신청, 종단 행사 참여 등의 권리를 갖게 된다.

등록 분야는 생활과 의례, 문학, 음악, 미술, 건축, 무용, 음식, 문화콘텐츠를 범주로, 창단 또는 개관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매년 1편 이상의 공연, 전시, 창작활동의 실적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02)2011-1772

신중일 기자

문헌 속 신라 미탄사 실체 확인

불교문화재硏, 시굴조사서…불교계 발굴 기관 첫 성과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각림)는 7월 2일 경주 미탄사지 유적 시굴조사 결과 토제 나한상 출토 등 미탄사지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지난 5월 1일 미탄사지에서 정토재를 봉행하고 문화재연구소 최초로 시굴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이번 시굴조사에서는 금당으로 추정되는 정면 8칸(적심 간격 5m, 퇴칸 3.5m) × 측면 4칸(적심 간격 3m), 건물의 길이가 약 37m에 이르는 대형건물지가 발견됐다. 적심은 직경 1.5m 규모이며, 기단이 3면에서 확인돼 2차례 이상 중건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사찰 동남편 건물지에서 토제나한상이 출토됐다. 토제나한상은 하반신이 결실됐으나 왼쪽어깨에 가사를 걸치고 우측 손을 뒷머리에 댄 채 탄식하며 절망하는 듯 한 표정 등 섬세한 조형미가 돋보인다.

이 외에도 인화문토기와 납석제 호편과 뚜껑, 귀면와, 기린문전(麒麟文塼), 다양한 문양의 와당류, '의봉 4년개토(儀鳳 四年 皆土, 679년)', '습(習)', '대토(大土)', '정(井)' 자명문와 등이 확인됐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측는 "미탄사는 황룡사 남쪽에 위치한다고 삼국유사에 기록돼있으며 고려 후기까지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탄사지 주변 우물과 문지 등 왕경 흔적이 확인돼 신라 왕경(조방제)속에서의 사지 형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역 주변의 조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문화재연구소는 2014년부터 정밀 발굴을 진행하고 복원정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948호 INDEX

시방세계 5
2013 이주민불자 무차대회



신행 6
나란다 축제 요강 발표

강의실중계 8
마인드케어지도사 공개 특강

학술 9
교불련 25주년 교수불자대회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명료함과 공성의 결합은

물에 비친 달과 같으니

그 어떤 것도 집착할 것이 없나니

우리가 감지하는 모든 것들, 윤회와 열반 전체에 걸쳐 있는 모든 현상은 우리들 마음의 자연스러운 창조성이 지어내는 유희로써 나타납니다. 이 마음의 명징성 즉, 우리들이 감지하는 개별적인 현상의 모습은 마음의 텅 빈 본성이 발현되 광채입니다.

공성은 명징성의 본질이며, 명징성은 공성의 다른 표현입니다. 둘은 나눌 수 없습니다. 마음은 마음은 물에 비친 달과 같아서 호수 표면에서 달이 빛나고 있을지언정 그것을 잡을 수는 없는 일이지요. 현재 생생히 살아있지만 동시에 형체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본성은 공성과 명료함의 합일이어서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으며, 무언가를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바위같은 딱딱한 물체처럼 공간을 차지하거나 다른 사물을 차단하는 물리적인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마음은 실체가 없고 두루 존재합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조계종 종무행정학교 만족도 'GOOD'

상반기 평가 보고서 나와

참가자 평균 만족도 높아

종무원의 잦은 이직 숙제

전문종무원 양성을 위해 조계종이 올해 3월 개설한 종무행정학교에 대한 일선 교육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요조사 부족과 종무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교육의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는 것은 숙제로 남았다.

조계종 총무부는 7월 5일 종무행정학교 상반기 운영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본소양과정', '행복한 관계 맺기', '총무기획실무교육', '재무회계실무교육' 등 상반기 교육에 총 172명이 참가했고,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08점으로 집계됐다. 특히 '행복한 관계 맺기 과정'은 4.53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하지만 단계별, 역량별 등 교육체계 수립과 교재 및 교과과정 개발, 교육 참가자 관리시스템 구축 등은 과제로 제시됐으며, 체계적 교수법 개발을 통해 교육 집중 활성화도 숙제로 꼽혔다.

불교계 종무원들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높은 이직률을 보여 전문인력 양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과제로 남았다.

총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실무중심의 교육내용을 탈피해 기본소양, 마음가짐과 자세, 실무로 과정을 세분화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며 "이는 종무원의 정체성과 스님 및 신도와의 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과 실습위주의 진행방식이 적절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과정명이 지존의 종무원 교육으로는 생소한 면이 있어 신청인원이 저조한 경우도 있었고 무엇보다 사찰종무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교육효과 및 지속성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하반기에도 종무원 양성과 재교육을 위한 종무행정학교를 개설한다. 먼저 7월 24일부터 26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종무행정학교 예비종무원양성과정'을 진행하며 을 7월 24일(수)~26일(금) 2박3일간 전통불교문화원에서 개설한다. 10월 경에는 경력 1년 미만의 신입 종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12월에는 전문종무행정과정을 진행한다.

이밖에도 조계종은 '신도맞이의 자세' 등 역량향상과정과 총무기획실무, 재무회계실무 등 실무향상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종무행정학교는 조계종이 지난해 6월 발표한 '1차 쇄신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사찰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이후 조계종은 '종무원법'을 개정과 시행령 제정해 학교 운영 근거를 마련해 3월부터 종무행정학교를 운영해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전문종무원 양성을 위해 올해 3월 처음 개교한 조계종 종무행정학교에서 참가자들이 열심히 교육을 받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미래부 "선교회 조사·엄정 처리"

2일 종평위에 공문으로 해명… 교육 강화 약속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최근 공격적 선교로 물의를 빚은 관내 기독선교회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른 엄정한 처리를 약속했다.

미래부는 7월 2일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에 대한 회신 공문을 통해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해명했다.미래부는 공문에서 "부서 직원 1명이 개인 차원에서 선교회 활성화 목적으로 해당 문건을 작성한 바 있다"며 "6월 초순 선교회에 관심이 많은 출입기자로부터 관심 있는 다른 출입기자들에게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건까지 포함해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의 종교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 신고센터에서 관련 사항이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향후 직장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공문을 통해 약속했다.

이번 회신에 대해 종평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앞으로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공직자 종교차별 신고가 접수된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공문을 보내 사안에 대한 엄중한 조사, 심사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7대 종교 '이웃종교 템플스테이' 연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가 주최하는 '이웃종교 스테이'가 9월1일까지 열린다. 이는 이웃종교화합주간 행사 중 하나로 종교 간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다.

KCRP는 "다른 종교의 성지 등에서 2박3일 동안 머물면서 각 종교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라며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

7대 종단의 모임인 만큼 이번 행사는 △부석사(불교) △강화도(개신교) △영산성지(원불교), 청주향교(유교) △의창수도원(천도교) △천호성지(천주교) △대전 수운교 본부(한국민족종교협의회)에서 7차례 열린다.

특히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8월 9일~11일까지 개최되는 불교 프로그램은 108배 다도 및 스님과의 대화, 운력, 컵등 만들기 등이 펼쳐진다.

정혜숙 기자

생활고 시달리는 참전용사를 보듬다

자승 스님, 1일 한국전쟁참전용사 가정 방문

매월 자비나눔 방문을 진행하고 있는 (재)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생활고에 시달리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가정을 방문해 위로했다.

자승 스님은 7월 1일 경기도 포천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전쟁참전용사 가정을 방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신선용 씨와 부인 추경순 씨를 격려했다.

이번 자비나눔 방문은 국가를 위해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참전용사 집을 수리 및 신축해주는 '13년 나라사랑 보금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5군단과 함께 진행됐다.

이날 아름다운동행은 신선용 할아버지댁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위한 집 수리비 400만원, 1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건강잡곡 30kg을 전달했다.

자승 스님은 "두 어르신들이 가족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추경순 씨는 "너무 기쁘다. 오늘 이렇게 많은 스님들이 방문해주셔서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말이 나오지 않는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날 자승 스님은 아름다운동행과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매월 2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에 따라 아름다운동행은 신 씨에게 7월부터 생계비를 보조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재)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 스님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7월 1일 경기도 포천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전쟁참전용사 가정을 방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신선용 씨를 위로하고 있다.

불이성 법륜사 일요법회 안내

불이성 법륜사는 태고종 창종주인 대륜스님께서 1946년 금강산 유점사 서울 포교당으로 창건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스님께서는 포교의 일번지를 주창하며 당대의 훌륭한 법사와 포교사를 초빙하여 1950년대 불교계 최초로 일요법회를 개설하였습니다.

덕암스님 당시까지 이어 오던 일요법회가 지금은 맥이 끊어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소납이 2012년 주지로 부임하며 첫 번째 발원한 것이 일요법회의 부흥이었습니다. 이제 법륜사 일요법회가 다시 문을 열려고 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 법륜사로 오십시오.

법륜사 '일요법회'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매주 주제별로 법석을 여는 일요법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법회안내 -

* 첫째주 : 명상기도 법회
* 둘째주 : 사경기도 법회
* 세째주 : 대다라니기도 법회
* 네째주 : 천수경 강의

* 대 상 : 초, 중, 고, 대, 일반인
* 시작일 : 9월 첫째주 일요일
* 시 간 :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법륜사 3층 대불보전

문의 : 불이성 법륜사 종무소 (02-732-2710, 3920)

불이성 법륜사 주지 도학 혜일

국민 60% '차별금지법' 필요하다

종교자유정책硏 설문조사 결과 발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단체가 정치인을 통해 요구나 입장을 관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70%에 달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은 7월 2일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에 대한 시민의식 설문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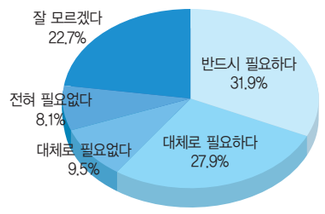
'종교 및 차별금지법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개신교계의 반대로 입법이 좌절된 '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51.5%로 가까스로 과반을 넘겼지만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9.8%에 달했다. 반면 '필요없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했다.

차별금지법 내용 중 논란이 되고 있는 4가지 사안 중 법안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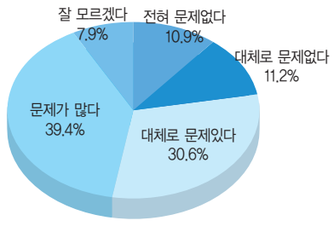
설문 참여자 중 14.3%가 종교가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으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13.7%)',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10.9%)', '전과(10.7%)'가 뒤를 이었다. 4가지 모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은 23.8%이었으며, 모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8.3%에 그쳤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돼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0%정도만 차별금지법 인식
종교 가르침 · 사회법 충돌시
사회법 따른다는 의견 높아
'정교분리' 국민 공감대 형성돼



차별금지법 필요 여부



종교단체의 정치관여

선거 때 마다 후보자들이 종교단체를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있다'고 보는 답변이 57.5%로 과반을 넘겼다.

종교단체가 정치인들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나 입장을 관철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69.4%로, 전혀 문제가 없다(10.9%)거나 대체로 문제없다(11.2%)고 보는 시각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종교가 우리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64.1%에 달했고 '대체로 영향이 없다(12.1%) '전혀 영향이 없다(10.9%)'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또한, 조사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사회법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종교적 가르침을 우선시하거나 사회법과 종교적 가르침을 사이에 두고 판단을 유보하는 국민이 적지 않았다.

실제 응답자 중 사회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 54.1%로 가장 높았고, 종교적 가르침이라는 입장이 18.2%,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 27.7%로 나타났다.

종자연은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들은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종교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사회적 규범으로 적지 않은 수가 종교적 가르침을 따르겠다거나 판단을 유보한 점은,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종교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증폭은 민주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라며 ""비상식적인 종교적 도그마에서 벗어나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종교가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병사들의 비바람 막아주겠다"

신임 군승 11명, 1일 자승 스님에 임관 신고

군승 46기(군종 71기) 신임 군승 11명이 7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임관 신고식을 가졌다. 이날 신임 군승들은 신임 군승 11명은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에게 각각의 소속과 근무지를 알리고 앞으로의 다짐을 밝혔다.

육군 서재승(학운) 군승은 "10년전 율곡부대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같은 곳으로 발령이 났다. 당시 군생활을 하며 병사들이 어떤 점을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는지 알게 됐다. 그때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병사들의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군법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준용(농산) 군승은 사회 공익을 위해 일하는 신장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군인들이 이 사회를 잘 수호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줄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신성우(성해) 군승은 연기법을 바탕으로 포교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그는 "장병들의 현재 임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숭고한 일인지를 연기법을 통해 확인시켜주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여러분의 다짐이 꼭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자발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임군법사 11명은 3개월 동안 입대전 교육과 2개월의 군종장교 교육을 마치고 6월 28일 충북 괴산 학생군사학교에서 임관식을 마쳤다. 정혜숙 기자


신임 군승 11명은 7월 1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임관 신고를 했다.

멈추지 않는 멘토들 인기 혜민 스님 상반기 1위

불교전문서점 베스트셀러 30



불교계 최대 서점인 '조계종 불교전문서점'은 1월 1일부터 판매한 상반기 자료를 집계해 '2013년 상반기 베스트셀러 30'을 6월 30일 발표했다.

상반기 1위는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선정됐으며 2위에는 법륜 스님의 〈기도〉, 3위는 불필 스님의 〈영원에서 영원으로〉가 집계됐다.

4위에는 정목 스님의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가 장식했으나 절판됐다. 5위는 월호 스님이 3월 펴낸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가 위치했다.

이밖에 지난 5월 방한한 틱낫한 스님의 저서 네권이 3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틱낫한 명상〉(불광), 〈화〉(명진 출판), 〈틱낫한 스님의 금강경〉(장경각), 〈오늘도 두려움 없이〉(김영사) 등이다. (02)2031-2070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전북 세계순례대회 운영 조직 법인화된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의 4대종단이 전북 전주, 완주, 익산, 김제의 각 종교성지를 순례하는 '아름다운 순례길 세계순례대회'의 지속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발족하고 법인화를 추진한다.

4대종단 종교지도자와 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세계순례대회 조직위는 6월 11일 세계순례대회의 세계화, 명소화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발기인 총회를 열고 법인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전라북도와 세계순례대회 조직위는 올해 순례대회를 9월 28일부터 10월5일까지 8일간 각 종교성지를 순례하는 240km의 구간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보다 대폭 늘어난 4억5000만 원(국비 1억5000만 원, 도비 1억5000만 원, 시 · 군비 1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아름다운 순례, 홀로 또 함께(Alone And Together)'라는 주제로 순례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도 · 4대 종교 추진
안정적 운영 기틀 마련
올해 대회 9월 28일 개최

특히 가족과 청소년, 대학생들의 자기성찰을 주제로 한 '길에서 만나는 인문학' 종교지도자로 구성된 '멘토와 함께' '내면으로의 순례' '힐링의 순례'도 함께 진행한다. 이밖에 금산사, 송광사, 나바위 성당등에서 사랑과 희망의 종자나누기, 상생의 풍등날리기, 종교 음식박람회 등이 개최된다.

또 각종의 세계적인 외국인 종교지도자를 초청해 각 종교간의 대화를 나누는 세미나도 계획하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7월 4일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보륭스님(전 북불교회관 원감)을 조직위원장으로 집행위원장에 송민호불자를 위촉하고 순례팀장등 조직을 구성했다. 불교조직위에서는 불교관련 순례길 안내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과 완주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방황하는 청춘들 대안 찾아 산사로

조계종 청년출가학교 개교… 8일까지 진행

방황하는 20대 청춘들을 위로하고 출가를 통한 대안적 삶을 제시하기 위한 출가학교가 열렸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해남 미황사에서 '2013 청년출가학교'를 개교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올해 출가학교에는 면접을 거쳐 선발된 20대 청년 43명이 전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첫 날에는 사찰문화를 익혔으며 학교장인 법인스님(교육원 교육부장)에게 '붓다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의 강의를 들었다. 또한 정목 스님의 '마음살핌 마음나눔', 조성택 고려대 교수의 '청년을 위한 불교', 강신주 박사의 '철학 삶을 만나다', 조한혜정 연세대 교수가 '청춘은 무엇으로 사는가' 등의 시대의 멘토들의 강의도 일정 내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또 날마다 예불과 참선하고 틈틈이 달마산 산행, 땅끝 바다길 걷기 등을 하며 자연과 함께 하는 시간도 가졌다.

교육원은 "청년출가학교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출가가 우리시대 삶의 대안임을 제시하고, 출가수행의 길을 바르게 안내해 자신의 삶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기사 차주 상보〉

신중일 기자

불교계, 국정원 사건 진상규명 촉구

실천승가회 등 보신각서 시국법회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에서 불거진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와 각계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도 목소리를 보탰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를 비롯한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 불교환경연대 등 불교시민사회단체는 7월 1일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국정원 헌법유린을 규탄하는 시국법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원불교, 기독교 단체 또한 함께 참여해 연대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한날 이익 기관으로 전락한 국정원을 비판하고 정부의 진정한 참회를 바란다며 국정원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촉구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퇴휴 스님은 "역사상 헌법을 유린당한 일이 몇 차례 있었다"며 "평등한 세상이 되도록 가르침을 주는 것이 불법이다. 그를 통해 화합과 평화를 이루어내야 할 사람들이 승가고 불자다"라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노동위원장 종호스님, 실천승가회 공동대표 법정 스님, 정휴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을 비롯 정계인사로는 민주당 임수경 의원, 박흥근 의원이 참석했다. 배현진 수습기자



실천불교승가회 등 불교계 사회단체는 7월 1일 종로 보신각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시국법회를 열었다.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귀의 삼보하옵고…


종 정
명 진 석법운 대종사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세계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은 본 종단과 함께하실 제방의 청정승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종 정 명 진 석법운 대종사

원로의장 보 운
원로총무 송 담 원로위원 월 현
원로위원 월 각 원로위원 정 인
원로위원 수 덕

총무원장 법 정
행정원장 도 경 사정원장 법 륜 문화원장 진 송
교육원장 청 담 포교원장 동 화 비구니원장 법화 청명
비구니부원장 설 봉

총무원
총무부장 우 담 재무부장 월 산
교무부장 선 각 문화부장 한 담
규정부장 혜 오 법규위원장 설 산
환경위원장 혜 득 신도회장 조태흠
사업부장 청 명

종무원
경북1종무원장 월 정 경북2종무원장 성 덕 경북3종무원장 혜 득
경북4종무원장 해 산 대구1종무원장 광 덕 대구2종무원장 해 산
서울1종무원장 일 휴 경기1종무원장 원 담 충청1종무원장 계 현
강원1종무원장 연 정 전라1종무원장 법 도

구족계 및 포살 보살수계 산림대법회 안내
일시 : 불기 2557년 **8월 25일** 일요일(**음 7월 19일**) 오후 1시
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90 SCO 구관 3층 306호

- 입종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반 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1095 동명사 054)974-2605 053)942-4546

일 주 문



연꽃 선서화전 및 조각전

남양주 봉선사 주지 정수 스님은 7월 20일 봉선사 경내에서 연꽃 선서화전 및 조각전을 개최한다.



참사람의 향기 강의

장성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은 7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경내 우화루에서 '참사람의향기 아름다운 인연' 강의를 진행한다. (061)392-0100



제6회 국제학술대회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7월 24일 금강대 사이버강의실에서 제6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제포교사회 불교영어강좌

권영구 국제포교사회 회장은 9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10시 전법회관 교육관에서 불교영어강좌를 개최한다.



불교여성개발원 합창단원 모집

정경연 불교여성개발원장은 불교여성개발원 합창단 단원을 모집한다. 매월 2·4째주 화요일오후 3시 30분에 모임을 갖는다. (02)722-2101



콩 요리전문점 개업

정우식 前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은 7월 10일 인사동 8길에 콩요리전문점 '풍류사랑'을 개업했다. (02)737-5989

조계종 총무원 소폭 인사

사서국장 효상 · 조사국장 탄탄 스님



효상 스님



탄탄 스님

조계종 총무원 사서국장에 효상 스님(전 호법부 상임감찰)이, 호법부 조사국장에 탄탄 스님(전 호법부 상임감찰)이 임명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7월 2일 사서국장에 효상 스님, 조사국장에 탄탄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효상 스님은 종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3년 통도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2년 직지사에서 범룡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을 졸업하고 대덕사 주지, 호법부 상임감찰을 역임했다. 현재 장육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탄탄 스님은 자승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통도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1993년 사미계를, 1997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학교(경주)를 졸업하고 호법부 상임감찰을 역임했다. 현재 용덕사 주지를 맡고 있다.

신중일 기자

"승가가 사회 모범이 되는 날까지…"

김종규 신임 교단자정센터 원장



"비방아닌 문제제기 통해 승가 위의 바로 잡을 것"

호계 · 총무원장 자격 제시 등 8월 말 대안 제시 계획

상근인력 보강 조직 강화도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승가를 비방하고 흠집을 내려고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스님이 사회적 모범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자정센터는 이 같은 목표로 뛰겠습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의 신임 원장으로 취임한 김종규 변호사(법무법인 인본 대표, 사진)는 7월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센터의 목표를 재차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교단자정센터는 그간 2년여 동안 수장의 자리가 공석이었다. 재가연대의 내부 운영 문제도 있었고, 불교계 사회운동 NGO의 운동 역량이 지난 몇 년간 현격히 감소한 것도 이유로 작용했다.

그런 의미에서 불혹을 갓 넘긴 김 원장은 교단자정센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수혈된 '젊은 피'이다. 그 만큼 불교의 위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창립된 교단자정센터를 통해 그가 진행하고자 사업들도 많다.

이날 김 원장은 △조계종 총무원 33대 집행부 평가 △새로운 총무원장 후보 기준 △호계위원들의 자격 제안 △종단의 사유화 · 세속화 감시 등을 향후 활동 계획으로 제시했다. 호계 제도와 총무원장 후보 기준에 대해서는 8월 말에서 9월 초순경 공청회를 열어 사부대중의 의견을 모아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미 교단자정센터 내부에서 2차례 심도있는 회의를 열기도 했다.

"조계종 33대 집행부가 주차항 자성과 쇄신의 목표달성과 불교의 사회적 소임을 얼마나 다했는가를 살피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총무원장 후보의 기준과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를 사부대중의 목소리를 통해 담아내겠습니다. 또한 특정 계파의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활동과 나눠 먹기식 활동 증 사찰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법인 · 사찰 사유화 사례들을 조사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방치되다시피한 교단자정센터의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 원장은 전문성 있는 상근 근무자를 채용해 진위여부를 밝히고 사실 관계에 대한 법률 해석도 추진할 뜻을 밝혔다.

한편, 1973년 경북 청도 출생인 김 원장은 성균대 법학과 재학시절부터 불교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당시 받았던 '월휘(月輝)'라는 법명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 사법연구소 36기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자문변호사, 나무인권여성인권상담소 운영위원, 불교환경연대 감사, 대한불교청년회 감사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김희옥 총장, 2013글로벌CEO 선정



김희옥 동국대 총장이 '2013 대한민국 글로벌 CEO' 상을 수상했다.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7월 4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3 대한민국 글로벌 CEO' 상 시상식에서 글로벌 인재경영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2013 대한민국 글로벌 CEO' 상은 중앙일보와 포브스코리아, JTBC,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했다.

동국대는 김희옥 총장 부임 이후 2011년과 2012년 연속으로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국제화부문 3위에 올랐다. 최근 발표된 'QS-조선일보 아시아대학평가'에서도 전체 17위(국내 3위)에 오를 정도로 빠르게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42개국 180여개 대학과 교류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중 80% 이상의 대학들과 학술 · 학생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방학을 이용해 해외에 대규모 봉사단을 파견하거나 해외대학 취재단을 꾸려 선진대학 탐방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아시아 · 유럽의 우수 공학계열 졸업자를 석 · 박사과정으로 유치하기 위한 SRD 장학 프로그램과 매년 80~120명을 선발해 해외 학술탐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국해외탐방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만해 스님 숭고한 정신 계승 노력"

선학원, 만해 한용운 스님 열반 69주기 추모다례



(재)선학원(이사장 법진)은 6월 29일 안국동 중앙선원에서 만해 한용운 스님 열반 69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추모법어에서 "일제의 칼날 앞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훼절할 때 민족의 자존과 지조를 끝까지 지켰다"며 "만해 스님께서 선학원에서 펼친 큰 원력은 민족의 독립을 위한 우국지사와 민족불교를 수호하려는 많은 승려들의 구심점이 됐다"고 회고했다.

이어 "선학원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이 완공되면 만해선사를 비롯한 설립 조사들의 뜻을 더욱 선양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세균 민주당 국회의원은 "선학원 설립조사이며 우국지사로 한평생 민족계몽과 독립운동에 바치신 만해 스님의 행적을 기리고 추모하는 자리에서 선학원이 민족 불교성지로 새로운 백년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제28회 불이상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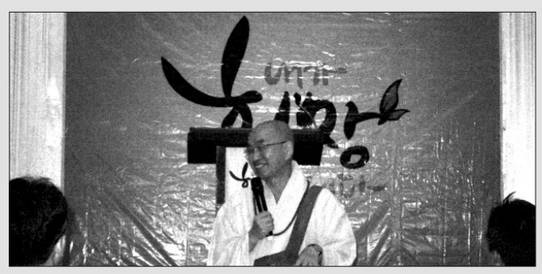


여성불자모임 '불이회'(회장 홍라희)는 7월 5일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제28회 불이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불이상 수상자로 실천분야에는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이, 연구분야에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장 김천학 교수가 상을 수여받았다.

불이상은 '불이회'가 지난 1986년부터 불교인재 육성을 위해 매년 실천과 연구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펼친 이들을 추천받아 시상하는 상이다. 노덕현 기자

법륜 스님 미얀마 교민대상 즉문즉설



법륜 스님은 6월 30일 양곤 인야레이크호텔 세미나룸에서 미얀마 교민을 대상으로 '내가 희망'을 주제로 즉문즉설 강연을 진행했다.

미얀마 주재 한인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2012년 미얀마 홍수로 피해를 입은 쭌차웅마을 다리 재건축 후원으로 방문하면서 열렸다. 행사는 미얀마한인상공회의소와 아쿠아랜드 무역회사의 후원으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고려대장경 석판본 봉안 법회



(재)고려대장경진흥원유지재단(이사장 신상길)은 6월 28일 상주시 화북면 팔만대장경 성보관 공사현장에서 '고려대장경 석판본 봉안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봉안 대법회에는 전국사설사암총연합회(이하 전사련) 증명명사 혜암 스님, 전사련 회장 무산 스님 등 전사련 임원진 스님들과 포항 대성사 주지 운붕 스님, 조계종총무원 사회부장 법광 스님, 박근령 동북아평화통일연구원 명예이사장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했다. (054)533-5670 노덕현 기자

공 고

존경하는 한국불교정토종 종도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시는 불자여러분. 저는 상기 종단의 총무원장으로 재직 중 종단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나 법인 이사장과 일부 몰지각한 스님들의 치졸한 행동으로 고소 고발 및 민사소송까지 당하는 고초를 겪으면서도 모두 승소하였으나 아직도 그들은 사과는 커녕 오만방자한 행동을 일삼으며 스님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계에 다시는 이러한 파렴치한 스님들에 의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더이상 소승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소승(무각)은 종단을 떠나려 합니다.

- 사건내용 -

1. 사건번호 – 인천지방검찰청 2012 형제34155호
   고소인 – 김노(지산) / 피고소인 – 이재송(무각)
   가 – 업무상횡령. 나 – 자격도용 사문서 작성
   다 – 자격도용 사문서작성행사. 라 – 업무방해. 마 – 모욕 / 처분요지 – 혐의없음
2. 사건번호 – 인천지방경찰청 2012 형제55600호
   고소인 – 김노(지산) / 피고소인 – 이재송(무각)
   가 – 사문서위조. 나 – 위조사문서행사 / 처분요지 – 각하
3. 사건번호 – 인천지방경찰청 2012 형제42158호
   가 –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 법률위반 / 처분요지 – 혐의없음
4. 2012가단 46636 횡령금반환
   원고 – 정토종연합회(대표자 김노) 피고 – 이재송(무각) / 처분요지 – 원고 청구포기

---

5. 사건번호 – 인천지방경찰청 2012 형제45097호
   고 소 인 – 이재송(무각) / 피고소인 – 김노(지산)
   가 – 출판물에의한명예회손. 나 – 업무방해 / 처분요지 – 구약식 벌금 100만원

한 국 불 교 정 토 종 前 총 무 원 장 무 각

21세기 신화랑 운동의 요람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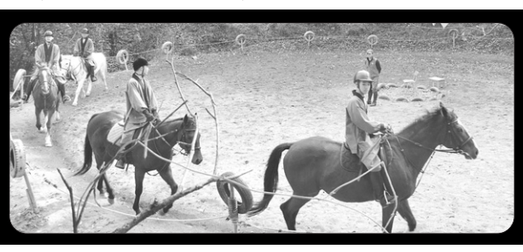
신라 화랑들의 기상과 조선시대 승병들의 혼이 깃든 함월산 선무도총본산 골굴사의 선무도 화랑사관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위해 제43회(22년 전통) 여름캠프를 개최합니다.

▣ 컴퓨터 게임이나 과중한 학습으로 신체가 허약하고 정서가 불안한 청소년들에게
- 「선무도 명상 테라피」 학교폭력 예방 특별프로그램
- 승마수련
- 원어민 영어 강사가 함께 지도하는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캠프

▷언 제 : **2013년 7월 21일 ~ 8월 24일**
▷**모집인원** : 매주 일요일 10시 ~ 15시 입산. 토요일 12시 하산
▷**대 상** : 초등학생. 중학생 = 매주 100명 (고교생은 일반인 템플스테이)
▷**수련회비** : 1주 – 35만원 / 2주 – 70만원 / 3주 – 90만원 / 4주 – 11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준 비 물** : 세면도구, 수건, 필기도구, 운동복, 운동화, 모자, 개인컵 등 (현금, 휴대폰, 게임기 휴대금지)
▷**접수 및 문의 : 054)775-1689 / 054)774-1689 / 홈페이지 www.sunmudo.com**
※환불규정 : 입소당일 취소는 하루수련비(5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교육프로그램** ◆
1. 건강회복 · 심신단련 :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산행
2. 호연지기 : 호신술, 국궁수련, 승마교육
3. 심성정화 : 108배, 참선, 운력, 텃밭가꾸기
4. 교양수업 : 문화관광 (성지순례, 박물관) 원어민 영어회화, 불교강의와 한문교육, 다도





1500년 전통사찰 · 연인원 4만명(외국인 참가 7천명)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 사관학교



조계종 자정과쇄신결사추진본부가 6월 30일 조계사 앞마당에서 개최한 제2회 무차대회에는 350여 이주민 불자들이 참여해 한국에서의 애환을 달랬다.

타국에서의 애환 달래…“함께 꿈 가꾸자”

‘결사추진본부’ 6월 30일, 이주민 불자들과 무차대회

8개국 350명 초청, 어울림 한마당
절 마당서 노래 · 토크 · 저녁공양
“힘들 때 이웃종교 도움 안타까워”
쉼터 · 한글학당 · 다문화 사찰 요청

“처음에 한국에 왔을때 한국이 기독교 나라인지 알았습니다. 아플때나, 힘들때 여러 도움을 준 곳이 바로 기독교 계열이었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이 지나 오산에 불교계가 세운 행복한 이주민센터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게 됐습니다.” - 스리랑카 차투 씨

“한국에 온지 11년 동안 네팔 불자들이 아파서 일을 못하고 잠시 쉬는 곳을 찾을때 어쩔수 없이 이웃종교의 시설을 추천해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분명 불자들임에도 그쪽 시설에 가면 있는 동안 예배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네팔 나빈 법사

먼 한국 땅에서 불안정한 신분과 부당한 처우로 고통받는 불자이주민들의 애환을 달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자성과쇄신 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는 6월 30일 서울 조계사에서 ‘이주민 불자들과 함께하는 시민초청 무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무차대회에는 미얀마,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베트남 등 8개국 불자 이주민 350명이 초청돼 공감토스콘서트, 장기자랑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부 행사는 영상 ‘자전거 여행’ 상영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자전거 여행’은 이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과 임금체불 등 이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담은 애니매이션이다. 영상이 상영되는 동안 참석한 이주민들은 함께 박수치며 내용에 공감했다.

본 행사에서는 삼귀의에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다문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주민 불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세계인들이 서로가 의지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꿈꾸신 세상”이라며 “사부대중은 이날 무차대회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 곳곳의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살아가는데 발벗고 나서자”고 격려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격려사에 이어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의 사회 아래 공감토크쇼가 진행됐다. 이주민들의 국적은 각기 달랐지만 이들이 한국에서 애로점은 대동소이했다. 이날 진행된 공감토크쇼에서 이주민들은 불교계 쉼터 및 이주민 사찰이 부족한 현실을 밝히고 불교계가 한글학당, 의료지원 등에 보다 앞장서줄 것을 요청했다.

공감토크쇼와 함께 이주민의 삶 사진 상영, 공감명상도 진행됐다. 이어 참석대중들은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의 낭독 하에 이주민 불자와 함께하는 서원문을 낭독하며 다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대중들은 서원문을 통해 “오늘날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주민을 대하는 시선은 곱지 않다. 이들의 피부색, 언어, 문화는 틀린 것이 아닌 다름이기에 인정돼야 한다”며 생명평화와 인간존엄의 발원이 이뤄지길 기원했다.

2부 행사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참여 스님들이 직접 버섯 탕수육과 감자볶음 등 채식으로 된 식사를 이주민들에게 대접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중들은 함께 공양하며 서로 대화를 나눴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드시고 힘내십시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등 스님들은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 자승 스님은 이에 앞서 참여 이주민들에게 각각 5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나눠주기도 했다.

몽고에서 온 한 여성은 한국 스님들에게 “몽고는 사망 후 화장을 하는데 유골을 본국으로 가져갈 수 없다. 이 외에도 불교전통으로 하는 여러 풍습이 있는데 한국에서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며 불교계가 문제 개선에 도움을 주기를 간청했다.

캄보디아 노스 스완 씨도 “한국에 캄보디아 여성들이 결혼 이주민으로 많이 들어와있는데 배우자가 사망하면 국적 등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다”며 “이들이 편히 쉬고 불교식으로 장례를 지낼 수 있는 다문화 사찰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오늘 자리는 이들 외에 시민들을 초청해 이들의 문제점을 알게 하는 것”이라며 “이주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희망을 꿈꾸는 사회가 되기 위해 불교계가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저녁공양 이후에는 신명나는 어울림 한마당이 펼쳐지기도 했다. 찬불가 기타그룹 메타, 팝송메들리, 아리랑 메들리를 비롯해 세계 각국 민요 공연이 펼쳐진 가운데 대회는 막을 내렸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이주민들의 반찬을 배식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서원문 낭독에서 승속이 하나돼 기원하는 모습



일감 스님 사회로 진행된 공감토크쇼



캄보디아 이주민들의 즐거운 대중가요 공연



대회에서는 각 나라 전통공연 등이 진행됐다.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72번길 17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경복궁 나들이

불교여성개발원, 100여 다문화인과 문화체험행사



다문화가족들은 조계사를 방문, 불상참배와 점심공양 후, 서울문화관광해설사들과 함께 경복궁 수문장교대식을 관람했다. 또 근정전, 사정전, 경회로, 향원정 등을 돌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고궁 방문 등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적은 다문화가족이 조계사와 경복궁을 나들이하는 행사가 열렸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경연)은 6월 30일 다문화가족 100여 명과 함께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조계사 · 경복궁 나들이'를 진행했다.

다문화가족들은 조계사를 방문, 불상참배와 점심 공양 후, 서울문화관광해설사들과 함께 경복궁 수문장교대식을 관람했다. 또 근정전, 사정전, 경회루, 향원정 등을 돌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에는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이 자원봉사를 비롯해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염주를, 매일유업(명예회장 김인순)이 음료 350개를, 아동복캠프(대표 유형숙)이 모자 100개를, 청운아이에스(대표 이대훈)이 피자와 아이스크림, 전국보습학원연합회(회장 조문호)가 차량제공을 하는 등 많은 기업과 단체의 후원이 이어졌다.

불교여성개발원 산하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 구완자 단장은 개회사에서 "다문화 가족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그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회적 인식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번 문화체험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자존감을 높이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이 서면을 통해 축사를, 정세균 국회의원이 동영상을 통해 격려사를 보내왔다.

조윤선 장관은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라는 화엄의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 사상, 원효 대사의 '다름이' 조화롭게 공존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원융회통'은 다문화사회에서 필요한 가르침"이라며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어우러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원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다문화국가로서의 과도기 증상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단일민족이라는 배타성의 벽을 깨고 다른 인종 · 문화 · 가치를 보듬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2009년에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을 설립해 다문화사회로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통합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 및 인식개선 활동을 해왔다. (02)722-2101

이나은 기자

나란다 축제, 사관생도 · 외국인에 확대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요강 발표…31일까지 참가 접수



9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나란다 축제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 △불교교리 경시대회 △전통불교문화 체험 등 3개 마당으로 꾸며진다.

한국불교 최대 불교 교리 경시대회인 '나란다 축제'가 올해는 사관생도와 외국인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진다.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은 사관생도와 외국인 부문 전형까지 확대된 '제5회 나란다축제' 모집 요강을 7월 4일 발표했다.

조계종 포교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나란다 축제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 △불교교리 경시대회 △전통불교문화 체험마당 등 3개 마당으로 구성된다.

'도전! 범종을 울려라'는 9월 7일 동국대 체육관에서 열리며 기존 초등부와 일반부에 '외국인 부문'이 추가로 개설됐다. 올해 처음 시범 운영되는 외국인 부문은 외국 국적 소유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출제 등 전 과정이 영어로 이뤄진다.

일반부의 경우 팀별 퀴즈대회로 진행되며, 사찰과 가족, 개인 등 3인 1팀으로 참가가 가능하다. 초등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역 예선을 거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불교교리 경시대회'는 중 · 고등부와 군장병과 더불어 사관생도까지 부문이 확대됐다. 육 · 해 · 공군사관학교와 3사관학교가 참여하는 생도부문은 9월 11일 오후 해당 학교 법당에서 진행된다. 참고교재는 조계종출판사의 〈불교입문〉이다.

기존의 중 · 고등부와 군장병 부문은 9월 7일과 8일 각각 전국 개설된 시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시험문항은 중등부 40문항, 고등부 · 군장병 · 사관생도 45문항이며, 객관식과 단답형 주관식, 서술형 문제로 나뉘어 출제된다.

지난해부터 개설된 '전통불교문화 체험마당'은 동국대 만해광장에 열리며, 불교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부스들이 설치될 예정이다. 초 · 중 · 고등부 대상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장학금이 각각 지급되며, 군장병과 사관생도 대상에게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상과 장학금, 부상으로 포상휴가증이 수여된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에 포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축제 참가접수는 7월 8일부터 31일까지 은정불교문화진흥원 홈페이지(www.eunjung.or.kr)에서 하면 된다. (02)515-9351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반야용선에 '영가천도' 서원 담아 백중입재

조계사에 반야용선 목건련호가 진수됐다. 조계사는 불기2557(2013)년 7월 3일 오전 9시 30분 대웅전에서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반야용선 점안식 및 백중 입재'를 봉행했다.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점안식과 팔과 청수를 뿌리는 정화의식을 봉행했다. 주지 도문 스님은 법문을 통해 "'반야용선 목건련호'는 소달구지에 곡식 · 금강경 · 업경대(살아생전 닦은 업) · 초를 싣고 극락으로 영가님들을 실어 나르는 형상으로 제작됐다"며 "부모은중경에서 변상경도(경전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를 1재부터 7재까지 공양하면 영가님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면하고 천상으로 인도된다"고 의미를 전했다.

글=신중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한마음과학원, 교사 인성교육 직무연수

8월 5~9일 창원 도계초에서

한마음과학원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직무연수 '인성교육을 위한 셀프리더십 과정'을 8월 5~9일 경남 창원 도계초등학교에서 실시한다.

이번 과정은 교과 및 학생지도, 학급운영을 포함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교사가 직면하는 문제 상황과 갈등의 해결은 자기 내면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마음과학원은 "교사 자신에 대한 성찰을 곧장 자신의 삶에 활용해 체험해보게 하는 활동을 통해 이론과 실천이 균형을 이루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며 "토론, 실천에 대한 피드백, 상담실습 등 다양한 그룹활동으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방법을 배우고 다른 교사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유치원과 초 · 중등 교원 및 교육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7월 22일 까지 신청서를 받아(http://blog.hansi.org/) 이메일(kmsjooin0@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이나은 기자

조계종 · 화천군, 한국전쟁 희생자 추모

7월 13일 평화의 댐 일원서

한국전쟁 정전 60년을 맞아 불교계와 강원도 화천군이 대규모 추모 행사를 연다.

조계종과 화천군은 7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전쟁 당시 화천 전투에서 산화한 희생자를 추모하는 '세계평화합동위령제'를 화천군 평화의 댐 일원에서 오는 1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령제는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화천 백암산 · 파로호 전투에서 숨진 28개국 10만여명의 희생자를 피아 구분 없이 추모하는 행사로 △한국전쟁 희생자 합동위령제 △DMZ 추모 평화콘서트 △위령탑 건립 선포식 및 문화 등으로 꾸며진다.

조계종 사회부장 법광 스님은 "한국전쟁 당시 28개국 수많은 젊은이들의 숭고한 넋이 파로호에 63년간 묵묵히 잠들어 있는데 이 애처로운 영혼들을 추모함으로써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기원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갑철 화천군수는 "위령제를 통해 한국전쟁 희생자의 숭고한 넋을 위로하고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번 위령제가 남북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및 신뢰형성을 기반으로 세계평화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각 분야별 권위있는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 www.dongsanbud.net

2013년 동산불교대학 43기 신입생 모집 [2년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8월 10일(토) 오후 5시 개강]

▶토요반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목요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통신반

1년차	과 목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대승불교, 불교사회복지론, 불교학개론, 불교미술, 선학의 이해,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교수진	무진장대종사(본대학장), 정엄스님, 김형준교수, 종석스님, 주명철교수 보각스님, 최종석교수, 백도수교수, 윤열수교수, 김호귀교수, 활안스님
2년차	과 목	근본불교, 유식사상, 반야사상, 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화사상
	교수진	최봉수교수, 묘주스님, 김형준교수, 정병조교수, 황순일교수 차차석교수, 김상현교수, 박종교수

✲ 불교관련학과 개강 [다도학과 9월3일, 불교미술학과 9월5일, 선·명상학과 9월5일]
✲ 불교대학원 개강 [9월2일, 9월3일, 9월5일]
✲ 불교의식교육원 개강 [한글의식반 9월7일, 범패의식반 9월4일]

■ 모집인원(불교학과) | 180명(토요반, 목요반, 통신반 각 60명)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불교학과) | 2013년 7월 1일부터 ~
■ 문의 | 02)732-1206~8

•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군법당 관련종사자(군종병, 부사관, 장교)는 전액면제 교육함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본대학 사무처 : (우)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0 동산불교회관
TEL 02)732-1206~8, FAX 02) 732-1207 http://www.dongsanbud.net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4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7월 24일까지
◆ 개강일시 : 2013년 7월 25일 목요일 개강
매주 (월 ·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봉사하고 캠프가고…여름방학은 수련관으로

불교계 청소년복지시설 여름방학 프로그램 진행





불교계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들을 위해 학업으로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캠프체험을 비롯해 자아성취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상담 및 리더쉽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진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주최한 봉사활동과 래프팅 활동에 참가한 청소년들.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다. 학업으로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캠프체험을 비롯해 자아성취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상담 및 리더쉽 개발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불교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마련한 '여름방학 특강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 청소년센터 및 수련관은 산사로 떠나는 힐링캠프 뿐 아니라 봉사활동 점수를 딸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 그리고 학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학특강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서울 역삼청소년수련관(02-550-3639)은 7월 27~28일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아빠와 함께하는 휴(休)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일정은 자연환경에서 배우는 무소유, 행복을 찾는 108배 참선, 새벽숲길 명상 등으로 진행된다.

이밖에 수련관은 7월 22일~8월 16일 여름방학특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방특 노트정리법 △방특 교과서 공부법 △방특 독서논술 △방특 드럼 교실 △방특 통기타 등을 진행한다.

서울시립 목동청소년수련관(02-2642-1318)은 7월 27~28일 경기도 연천 나룻배 마을에서 가족힐링캠프를 진행한다. 텐트체험, 여름물놀이 및 매기잡기, 농산물 수확체험, 가족소원풍날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7월 25~26일에는 수련관내 강의실에서 중·고등학교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기초교육 △환경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진행한 후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한다.

서울 구로청소년수련관(02-838-1318)은 7월 25~26일, 8월 8~9일, 8월 22~23일 '바다들산 야영캠프'를 진행, 농촌일손돕기, 레크리에이션, 밥짓기, 캠핑활동 등 자연 속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신단련을 돕는다. 또한 '출발! 직업속으로 파티쉐'를 7월 27일, 8월 3·10·17·24일 관내에서 개최, 쿠키·빵·케익만들기 등을 진행하며, 낙서문화교실 '벽위의 아트'를 7월 29~31일 개최해 지역내 벽화작업 및 그래피티 체험활동을 제공한다. 8월 3일에는 '비보이배틀대회'를 열어 신나는 무대의 장을 마련한다. 이밖에 가족 모두를 위한 봉사활동인 '은빛사랑봉사단'을 8월 24일 개최해 노인요양원 가족봉사활동을 실시한다.

대구수성구청소년수련관(053-761-9400)은 7월 24~26일 경북 의성군 춘산면에서 '농촌봉사활동캠프'를 실시한다. 중·고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마늘쫑자르기, 고추따기 등 농촌체험을 하고 재능나눔을 진행한다. 7월 20~21일에는 여름해양캠프 '알란가몰라'를 경북 울진 후포요트경기장과 한화호텔&리조트에서 개최한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참가가능하며 윈드서핑, 크루저 요트체험, 바다래프팅, 스노쿨링 체험 등 다양한 해양레포츠를 비롯해 해양 정화활동(봉사시간 5시간)을 진행한다.

대구달서구청소년수련관(053-639-7014)은 8월 5일 경북 성주 아라월드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상극기체험 및 물놀이체험을 실시한다.

8월 12~14일에는 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를 진행, 영·호남 지역 학생들은 △대구시티투어 및 홈스테이 △성주문화기행 및 물놀이체험 등을 진행한다.

충남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041-936-3893)은 7월 27~28일 보령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중·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신나Go! 즐겁Go! 배우Go!'를 실시, 레크리에이션, 지식환경 골든벨, 리더쉽 코칭 프로그램 등을 비롯해 봉사활동도 진행한다.

또 '우리가족 행복프로젝트'를 7월 27일, 8월 3·10·17일 실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대화방법을 배우고 가족 놀이 등을 통해 관계를 돈독히 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7월 26·31일, 8월 7·14·21일 진로교실 '꿈틀(꿈을 키우는 꿈틀거림)'을 진행한다. 진로검사를 비롯해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 흥미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이밖에 '마인드컨트롤 분노조절 프로그램' '청소년 심리검사 교실' 등을 여름방학 기간에 진행한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산간서 공부하는 노스님 위해 마련"

사서실장 심경 스님, 아름다운동행 1천만원 전달



사진 왼쪽부터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혜일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조계종 사서실장 심경 스님.

조계종 사서실장 심경 스님이 노스님들을 위한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1천만원을 기부했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심경 스님은 7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지정기탁을 했다"고 밝혔다.

심경 스님은 3년간 모아둔 기금을 전달하며 "지방과 산간벽지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지원하고자 3년간 기금을 마련했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이번 기부를 계기로 기금동참이 확산되길 바라며, 더욱 많은 기금으로 산사 스님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도움을 주고자 후원에 동참했다"고 뜻을 전했다.

심경 스님이 기부한 일천만원은 승보공양에 동참하고자 3년간 마련한 기금으로, 신도들의 보시금, 법문과 법사를 통한 보시금 등을 모아 조성됐다. (02)737-9595

이나은 기자

생명나눔, 참사랑봉사단 협약식

장기기증희망등록 캠페인, 자살예방 사업 진행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7월 2일 동국대 로서트홀에서 동국대 참사랑봉사단(단장김희옥)과 협약식을 가졌다.

일면 스님과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장기기증 및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환자 치료비 지원·자살예방 사업 등 생명나눔운동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다짐했다.

그동안 참사람봉사단 학생들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장기기증희망등록 캠페인이나 희망걷기대회, 나눔대축제 등의 행사에 꾸준히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6월 4일 동국대학교에서 참사람봉사단과 함께 진행한 장기기증 및 조혈모세포기증 캠페인에서는 270명이 희망등록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날 학생들은 그 동안 모든 헌혈증 500장과 장기기증희망등록 신청서를 생명나눔에 전달하며 앞으로 말기질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학생들이 장기기증 홍보는 최고의 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한 명 한 명이 생명나눔의 홍보요원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희옥 총장은 "교내 아픈 학우를 돕겠다며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에 팔을 걷는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많은 학생들이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일면 스님과 김희옥 총장, 손재현 참사람봉사단 부단장, 심정민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총장과 참사람봉사단 소속 학생 30여 명이 참석했다. (02)734-8050

이나은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와 동국대 참사랑봉사단은 7월 2일 동국대 로서트홀에서 협약식을 맺었다.

"복지 성장 선순환 위해 지자체 나서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반기복지포럼 개최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을 진단하고 올바른 실현 방향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7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3 상반기 불교사회복지포럼'을 개최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스님과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최경구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등 사부대중 백여 명이 참석했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 그 해법을 찾다'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국형 복지국가전략의 핵심은 '사회서비스 고용을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창출'이다. 이를 위해 여성의 일자리 확충을 복지지출과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면서 "고용을 통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프로그램 차원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교수는 노인빈곤문제에 대해서는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 일자리 적극 개발과 의료이전에 생활체육을 통한 예방적 건강서비스 마련도 지자체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이 빈곤하지 않은 사회는 어떻게 가능할까'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기에 앞서 출산률, 고용률, 성장률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노인 문제의 심각성과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급여의 인상이 지연된 것으로 볼 때 기초노령연금 개혁이 좀 더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7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3 상반기 불교사회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이밖에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다문화가족 정책과 변화, 그에 따른 불교계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 "불교계에서는 '친구 맺기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한국인 친구를 사귀기 원하는 외국인과 외국인 친구를 사귀기 원하는 한국인을 맺어야 한다"며 "이 프로그램은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지방정부, 학교와 기업 등 다양한 조직에서도 운영해 한국사회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세계 침구 한의대학, 중국1위 중의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1. 모집요강

학 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1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1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신문,영어학 등

2.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 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4.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3년 7월 20일

5. 문의처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 경 중 의 학 대 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율종) 불교 조계종

불교조계종의 종풍은 계율청정한 율종의 가풍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부처님의 진리를 포교하여 세계인들의 마음에 안심을 구현하고 세계질서의
평화로운 세계와 불국정토의 세계를 세우는 일에 주된 역사적 사명을 띄고
정법 구현의 사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본 종단에서는 승려전문 노인 병원, 종단사업(건설, 출판, 홍삼, 기타사업 등)과
복지타운을 건립해 다양한 승려노후 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총무원장 혜인 합장

입종및사찰등록안내

◆ 제출서류 ◆
·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 승적원부 (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 승적증빙서류 (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 사찰 전경, 내 외부 사진 각 1부
· 반 명함 사진 5매 (대가사를 수한 사진)

◆ 참고사항 ◆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 총무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 135-887
● 총무국 : (02)511-2026~7 팩스 : (02)511-2028
● 종단사업부 : 02)549-1918
● 인터넷주소 :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 불교조계종신문 : www.jogaejong.or.kr
●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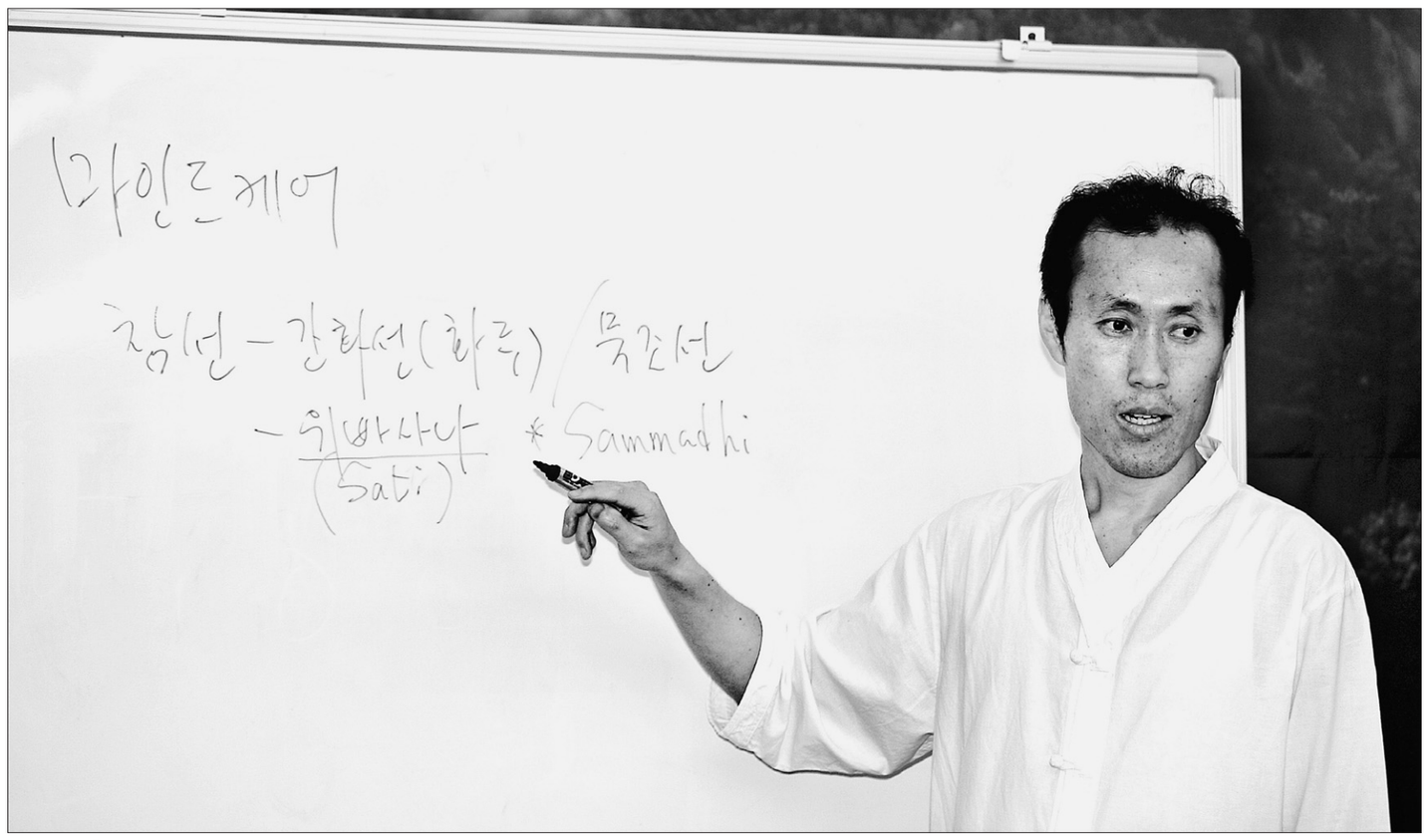
행복원하는 시대…답은 불교 수행 깃든 '마음관리'

마인드케어 지도사 개강 공개특강

이태호 총괄본부장(조계사 평생교육원)

새 정부의 국정운영기조는 국민행복시대다. 행복이란 식상한 단어가 공동의 목표로 올라선 것은 그간 우리들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반증일 것이다. 행복의 조건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달성하는 방법은 한 가지로 좁혀질 수 있다. 스스로 마음관리를 통해 행복감을 느끼는 것. 이태호 조계사 평생교육원 교수는 이 시스템을 가장 잘 갖춘 곳이 불교라고 얘기한다. 불교의 수행법인 참선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다. 그는 사회에서 종교적 거부감 없이 통용될 수 있도록 참선을 '마인드케어(mindcare)'라고 명명했다. 생활 속 스트레스나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으로써 활용해보자는 것이다. 행복과 힐링을 말하는데, 정작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는 미비한 현실. 이태호 조계사 평생교육원 총괄본부장은 마인드케어 지도사가 미래 마음산업의 중추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들의 진로와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짚어주었다. 다음은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에서 7월 2일 진행된 마인드케어 지도사 공개특강이다.

정리=이나은 기자 · 배현진 수습기자



이태호 총괄본부장은 …조계사, 통도사 평생교육원 전임교수 및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 밖에 공익법인 밝은세상 총괄기획이사, 국제마음건강센터 대표, ㈜마인드케어 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마인드케어…마음을 잡고 알아차림하다

마인드(mind)가 '마음', 케어(care)가 '돌보다'라는 뜻인데요. 왜 마음 '건강'이 아닌 마음 '관리'라고 했을까요. 관리를 하고 나면 건강해지기 때문이죠. 관리는 과정을 나타내는 용어인 반면 건강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결과보다 과정에 중심을 둬보자는 겁니다. 삶이라는 게 과정이지 않습니까. '뭘 하면 행복할거야'라는 생각은 접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에 중점을 두자는 말입니다.

불교 수행에서 지관(止觀) 쌍수(雙修)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돌아다니는 걸 그친다는 지(止), 그런 후 관한다는 관(觀). 이렇게 지관 두 개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불교식 전통 수행입니다. 마음을 잡아두고 알아차림 하는 거죠. 정혜(定慧)는 마음을 한 곳에 두면 고요하고 편안해 진다는 것입니다. 지관쌍수는 과정에 포인트를 두고 정혜쌍수는 결과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므로 마인드케어는 지관쌍수죠. 사마디(지)와 사띠(관)를 가지고 마음을 관리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인드케어를 이야기하는 이유를 한번 짚어보기로 합시다.

사회변화 될수록 마음건강 필요

1980년 이후 출생자들을 백세세대라고 부릅니다. 기대수명이 100세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거죠. 한국도 고령사회를 넘어 65세 이상의 연령층이 전체인구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된 질병 중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건 80여 가지나 됩니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2010년에 지불된 의료보험료는 2600여억 원에 달합니다.

한 사람의 에너지를 100으로 본다면 몸이 30, 마음이 70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정신작용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가 더 많다는 걸 의미하죠. 만약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 에너지를 끌어와 쓰게 되므로 세포가 노화될수록 몸은 버텨내지 못하죠. 고령사회로 가면 갈수록 사회적 화두는 건강, 그중에서도 마음건강이 됩니다.

미래산업을 6T산업(정보, 바이오, 나노, 환경, 우주항공, 문화콘텐츠)라고 하는데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바로 MT(마음산업)입니다. 마음이 산업군이 되어버린 거죠. 예를 들어 미국의 명상카페는 적외선을 쬐며 조용한 음악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곳입니다. 한국에도 몇 군데씩 생기고 있습니다.

마음산업은 독립된 산업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산업군과 결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늘어납니다. 마음과 문화, IT, 녹색산업, 관광힐링사업이 결합할 수 있죠.

고객들에게 늘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이 하루 업무시간의 40%이상이 되는 노동을 감정노동이라 합니다. 콜센터나 은행직원, 승무원 등이죠. 이들 중 25%, 약 400만 명 정도가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감정노동자의 규모는 1980년 전체근로자의 37%인 506만명이었다면, 2009년에는 1618만명으로 그 규모가 69%까지 늘어났습니다. 증가하는 감정노동자의 수만 보더라도 마인드케어가 각광받을 수 밖에 없죠.

산업화 시대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집장만을 원하는 등 계속 욕망을 충족하는 쪽으로 삶의 방향이 흘러왔습니다. 목표를 정한 후 달성하려 할 때 우리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건 기도였죠. 건강, 합격 등 노력을 하면서 부처님,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때문에 욕망충족이 행복이라 생각하는 대중에 부응하며 기독교는 인류 역사의 한 시즌을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 몸이 지쳐갔고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웰빙 열풍이 부는가 싶더니 이제는 힐링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쟁이라는 관계 속에서 긴장, 불안, 초조함을 느끼며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그러자 이러다간 공동체가 무너지겠단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되죠. 내 이웃이 행복하지 않은데 내 행복도 영향을 받는 거 같거든요. 묻지 마 살인, 폭행 등 이런 게 일어나니까요.

개인의 욕망을 조절해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추지 않으면 삶의 질, 행복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욕망조절의 시대입니다. 욕망 충족에서 조절로 넘어온 거죠. 그렇다면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가진 집단이 사회를 주도하게 돼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곳이 불교입니다. 욕망의 불을 끄는 열반의 세계를 말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열반을 추구하지 않고 불교 수행법만 조금 가져와서 일상에 적용하면 됩니다. 불교수행의 끝을 보는 게 아니고 욕망을 조절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관리한다면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불교가 사회를 떠안아야 될 흐름 속에 와 있는 겁니다.

"욕망 충족 위한 기도 · 기복에서
욕망 조절하는 마음관리 시대로"
'마음공부' 불교 가르침 주목 받아
마인드케어로 건강한 사회를

한국 직장인 스트레스 96%

2009년 직장인 스트레스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96%, 일본은 60%, 미국은 40%입니다. 스트레스 지수를 10% 낮추면 생산성이 20%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기업에서도 스트레스지수 완화에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외부에서 강한 자극이 왔을 때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건강성이 자살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활력을 키우고 힘을 기를 수 있을까요. 우선 마음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외부 자극이 있으면 감각기관을 통해 마음에다 상을 맺게 됩니다. 불교에서 감각기관은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6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자극의 경우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 중 '법'을 제외한 다섯 가지는 외부의 감각기관을 통해 일어납니다. '법'을 잡아주는 감각기관은 '의'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의'는 외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와 과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잡아주는 거울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러므로 '의'는 마음 구조를 설명하는 첫 번째 요소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거울에 상이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한문으로 하면 '식(識)'이라 하죠. 의식입니다. 서양에서는 의식을 한 덩어리로 보는데 동양에서는 거울과 거울에 맺힌 상이 같을 수 없다 하여 분리해서 봅니다. 그러나 마음거울에 상이 안 맺힐 수도 있습니다. 거울은 있는데 '의'가 작동하지 않으면 말이죠. 귀를 막아버리면 소리에 대한 식은 잡히지 않는 것처럼요.

세 번째로, 마음거울에 한번 맺힌 상은 하나도 빠짐없이 저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생의 기억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억 공간 속에 있습니다. 다만 기억을 끄집어내는 힘이 약할 뿐이죠. 저장을 기록한다고 '기(期)'라고 합니다.

화를 내다가 화를 내는 내 자신을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꿈틀거리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문득문득 알 때가 있는 거죠. 그걸 알아차림이라 하고 바로 '념(念)'이라 하죠. 의식기념(意識祈念)입니다. '의, 식, 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념'은 결국 알아차림으로써 마음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정서나 사유가 싱거워지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알아차려도 계속 감정에 딸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면 기준점을 잡습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코끝이나 마음으로 의식 기준점을 계속 옮깁니다. 끌려가는 놈을 끄집어내서 한 지점에 갖다놓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죠. 이렇게 훈련을 계속하면 감정은 감정, 생각은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화를 냈다고 하면 실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공입니다. 마음에 있는 많은 작용들이 실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알아차림을 통해 밖에 내다놓으니까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미래로 갈수록 마인드케어관련 직종 인기

마인드케어지도과정을 수료했다면 먼저 취미생활로 이를 활용해봅시다. 삶의 모습이 바뀔겁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 볼 줄 알고 욕망을 조절할 줄 알고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사회가 좀 더 살기 괜찮지 않을까요.

이 외에도 회사에서 시행하는 감정관리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수도 있고 교육, 경영, 스포츠 IT 등 전문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 경영능력, 창의력, 학습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건 이미 증명된 바입니다.

끝으로 몸이 피곤하면 잠을 자기 마련입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몸을 고정시키는 거죠.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는 건 마음의 알아차림만 고정시키면 됩니다. 몸은 7시간 쉬어줘야 하지만 마음은 오 분만 쉬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 쓸 에너지는 다 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건강은 마음을 한 곳에 잡아둠으로써 활력을 불어넣는 겁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앰프, 스피커를 구입하시는 스님 20분께
"고급 앰프케이스"를 무료로 보시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프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신제품!!
고급 엠프케이스 출시
• 가격 : 250,000원 (배송료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마이크 aV-620


• 무선 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마이크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www.kile.or.kr ▼

문 의 02)3147-2020

지 부 교 육 원

제 기 동 02-966-0020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한국 교수불자연합회 창립 25주년

하기 교수불자대회, 학술발표회
7월 1~3일 200여 회원 통도사서

"보현 행자로 거듭나 붓다정신 구현하자"


하기 교수불자대회에는 200여 불자교수들이 참여해 미래한국사회의 불교 기여 등을 모색했다.

"다문화 인식 미비로 인한 사회통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불교의 평등과 구세의 사상을 널리 펴기 위해 우리 교수들은 적극적인 실천행을 펼 것을 결의합니다."

한국 불교의 지성인들이 사찰에 모여 한국불교 발전과 다문화 사회에서의 불교 역할을 모색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양산 통도사에서 2박 3일동안 2013 하기 교수불자대회를 개최했다. 창립 25주년을 맞아 '불교사상과 다문화사회'를 주제로 열린 교수불자대회에는 200여 불자 교수들과 학자들이 참여했다.

하기 교수불자대회에는 200여 대중이 모여 불자교수들을 비롯한 불교지성인들의 역할을 모색했다.

이날 최용춘 교불련 회장은 "다문화 사회에 교수들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은 보현행자로 거듭나고자 하는 마음이 모였기 때문"이라며 "회원 상호간 서로 등불이 되고 울타리가 돼 보다 나은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을 이루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교수불자대회에서 모인 불자교수들은 마지막 날인 3일 결의문을 통해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한 국가제도와 정책 제시 △다문화 대중 이해를 위한 불교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회 통합 위한 노력 경주 △불교 기본정신 구현을 다짐했다.

결의에 앞서 첫째날 통도사 율원 율주 혜남 스님의 기조강연과 둘째날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의 특강 등이 진행됐다.

지안 스님은 특강에서 "이 시대 불교가 대중생활에 파고들기 위해서는 지성인들이 먼저 불교를 삶 속에 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과법을 끊임없이 살피는 것이 불교적 삶을 사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용춘 교불련 회장의 '불교사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고' 등 10여명의 학자들이 다양한 학술발표를 진행했다. 또 통도사를 비롯한 불교문화탐방과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등도 진행됐다. 교수불자대회에서는 학술대회와 함께 통도사 문화탐방, 자비명상 등도 진행됐다.

양산 통도사=노덕현 기자

결 의 문

1. **우리는 다문화 사회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 국가적 제도와 정책이 보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모색한다.**
2. **우리는 다문화 사회의 대중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불교적 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한다.**
3. **우리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우리 사회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4. **우리는 불교의 기본정신인 구세와 평등사상을 실천해 다양한 문화에 속한 이들이 저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학술발표 '불교사상과 다문화 사회'

"불교적 공생·상생의 정체성 확립 나서자"

김방룡 "민족불교 정체성 혼동"
정천구 "불교 공생 기반 정책 마련"
박석봉 "사찰 건축도 다문화 반영"
최용춘 "기업 경영, 불교사상 접목"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각 발표를 경청하는 대중들

7월 2일 양산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 교수불자대회 학술발표에서는 다문화 시대를 맞아 불교계가 내부적으로도 교리정리 및 정체성 확립 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김방룡 충남대 교수는 '다문화사회에서 한국불교의 정체성' 발표에서 민족불교로서 정체성을 키워온 한국불교가 다문화사회에서 정체성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동북아시아 불교전통 속에 한국불교는 정체성을 형성해왔다"며 "동남아시아 남바불교와 티벳불교 문화가 불교계에 파고드는 현실에서 민족불교 전통을 계승하며 새로운 환경에 실천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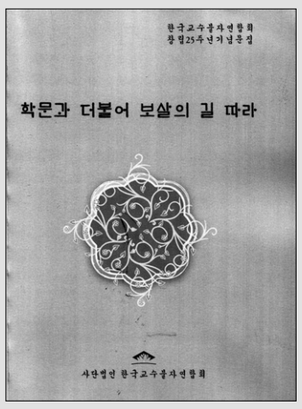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는 "다문화 사회 도래로 한국불교 또한 내부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며 "불교계가 미래를 내다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교수는 "한국 다문화주의는 불교적 다문화주의 이상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불교적 공생과 상생의 개념을 원칙으로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며 정책제안에도 불자교수들이 앞장서야 함을 강조했다.

박석봉 광주대 교수는 '다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본 도시 사찰 건축 연구' 발표에서 현대 불교건축물들이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하여 건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전통사찰의 경우 개인참선, 신도실 등 부속공간과, 예식장, 도서실, 청소년 공간 등이 매우 부족하다"며 "다문화 사회일 수록 이질적인 문화를 갖는 개인들이 많기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인공간 확충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춘 교수불자연합회 회장은 "기업의 이익추구와 사회 공익 사이에서 불교가 마찰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일방 주장이 아닌 소통과 화합을 위한 불교패러다임이 사회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문과 더불어 보살의 길을 따라' 출간



교불련 25주년 기념 문집

한편, 교수불자연합회는 창립 25주년을 맞아 기념문집 '학문과 더불어 보살의 길을 따라'를 발간했다. 25주년 기념문집에는 한국 고승들의 교불련 25주년 기념 휘호와 함께 이준 건국대 명예교수, 김용표 동국대 교수 등 역대 교불련 회장들의 교불련 회고록과 화보, 논문목차 학술총서 목록 및 각종행사 · 사업일지, 역대 회장 및 임원 명단 등 교불련 관련 자료가 총망라됐다.

학술 · 문화재소식

대장경硏, 학술보고서 '초조대장경' 펴낸다

2014년 초조대장경 복원사업 회향 기해 9월 출간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가 국내외 초조대장경과 관련된 사진과 자료를 집대성한 종합학술보고서 '초조대장경'을 출간한다. 한일공동으로 추진 중인 초조대장경 복원사업은 2014년 회향을 앞두고 있다.

종합학술보고서 '초조대장경'은 1권 일본 남선사 소장 초조대장경 도록, 2권 국내 각 소장기관별 초조대장경, 3권 초조대장경 학술(종합) 보고서의 세 권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오는 9월 출간 예정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9월 출간에 앞서 사전예약을 받는다. 동참금은 90만원이다. (02)926-8144

노덕현 기자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간소화 돼

시 · 도지사가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없이 변경가능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이 간소화된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6월 28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중 경미한 현상변경(現象變更) 행위에 대한 허가사무를 담당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내용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허가사무의 시 · 도 위임' 건을 관보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2008년에 고시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허가사무의 시 · 도 위임 사항을 시대 흐름에 맞춰 일부 개정된 것이다. 개정 내용은 고시에서 정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 · 도지사(시장 · 군수 · 구청장 위임 가능)가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또는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없이 자체적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고시문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노덕현 기자

제2회 경주 실크로드 국제학술회의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는 7월 5일 경주 우양미술관에서 '제2회 경주 실크로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기획한 '실크로드학'의 일부로서, '북방 초원의 길'이라는 주제로 신라에 융합된 실크로드관련 문물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개최됐다.

학술대회에는 주낙영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최양식 경주시장, 정수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장, 관련 교수 및 연구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학술회의는 압둘하미드 아나르바예브 우즈베키스탄 학술원 고고학연구소 부소장의 '실크로드상의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신라)'와 요시미즈 츠네오 일본 노도지마 글라스공방회장의 '초원의 길을 통한 신라와 로마세계의 교류' 기조강연에 이어, 윤상덕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이인숙 한성백제박물관 학예연구사, 이한상 대전대 교수, 강현숙 동국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안재호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신라의 진취적인 개방성을 실물자료를 통해 살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6일 주제발표, 종합토론과 함께 7일에는 석굴암과 불국사, 국립경주박물관 등 유적답사가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한국선학' 제35호 게재 논문 모집

한국선학회(회장 이덕진)는 7월 31일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국선학〉 제35호에 게재될 논문을 모집한다.

논문은 반드시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해야 하며 분량은 원고지 100매 기준이다. 공동집필의 경우 제1집필자와 공동집필자의 구분을 명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학회 홈페이지(www.seonstudy.org)의 '논문투고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노덕현 기자

입 종 안 내

사단법인 불교 정중종

▷ 淨衆宗 : 깨끗한 무리의 중생들이 불국정토를 염원하는 종단

불법에 소중한 인연을 이어갈
불교 정중종 입종을 발원합니다

사단법인 불교 정중종 총무원

총무원장 진여 법만 합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140길 100 (중화동 274-63)
전화 02)433-6591~2 /팩스 02)433-6508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한방문헌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 031-773-7838
참나선원 대진스님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 · 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 · 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모집중

“전통문화 숨쉬는 무등산서 휴가를”

증심사 지구, 시민 위한 문화체험공간으로 탈바꿈

광주를 대표하는 산인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전통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현재 무등산에는 광주 대표사찰인 증심사, 약사사, 문빈정사, 원효사 등 전통사찰을 비롯해 100여개 사찰이 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이 증심사를 포함한 증심사 지구다.

‘증심사지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펼쳐지는 금남로 일대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매일 2~3만명의 시민들이 찾는 곳이다.

증심사지구에는 ‘국윤미술관’이 먼저 시민들을 맞이한다. 국중효 작가와 윤영월 작가의 성을 따서 이름 지은 국윤미술관은 두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어 ‘우제길미술관’이 있다. 우제길미술관은 한국 추상미술 원로인 우제길 화백이 2001년 세운 광주 최초의 사립미술관이다.

이어 ‘무등현대미술관’이 현대적 건물과 정원으로 탐방객을 맞이한다. 무등현대미술관 맞은편에는 최근 개장한 ‘광주전통문화관’이 자리한다.

이곳은 광주은행 전신인 호남은행 설립자 현준호 선생이 광주시에 기증한 한옥을 개량해 공연장과 체험공간으로 꾸민 곳이다. 매주 토요일 무료 상설 공연이 펼쳐지며 명절에는 전통놀이와 문화공연도 즐길 수 있다.

‘광주전통문화관’을 지나면 무등산 탐방로에 접어든다. 탐방로 초입에는 한국 근본교리 체계를 확립한 병고 고익진 교수의 부도가 있는 광륵사가 있다.

무등산 관리사무소를 지나 본격적으로 산행을 시작하면, 처음 만나는 절이 문빈정사(주지 법선)이다. 한국민주화운동의 큰 역할을 담당했던 지선 스님(백양사 수좌)이 회주로 있는 이곳은 8·90년대 대중불교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민중불교를 주창한 〈무등〉지 발간으로 광주는 물론 한국불교의 대중화에 큰 족적을 남겼다. 최근에는 시민들을 위한 소통공간으로 다양한 집회와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광주최초 시립미술관 등 다수

증심사 상설공연 다채 진행

각종 문화재 시민발길 반겨

아시아 문화전당 연계 벨트





왼쪽 위부터 ①무등현대미술관, ②의재미술관, ③문빈정사, ④증심사.

문빈정사를 지나면 무등산은 온전히 사찰과 산이 마주한다. 산과 계곡을 따라 1km남짓 산행을 하면 증심사와 통하는 갈림길에 나온다. 이곳에 의재미술관이 있다.

이곳은 20세기 우리나라 남종화의 대가(大家)인 의재 허백련 선생이 무등산에 머물며 그림을 그리고 후학을 양성하며 차를 재배했던 곳에 지어진 미술관이다. 의재미술관에서 문향정-미술관쉼터-옛날차공장-춘설헌-의재선생 묘소-관풍대로 이어지는 의재 선생의 유적들이 있다.

의재미술관을 지나면 광주의 대표적 사찰 증심사(주지 연광)와 마주한다. 증심사는 무등산풍경소리 음악회, 명사초청법회 등 다양한 법회와 문화활동을 보여주는 곳으로 최근 시민들을 위한 쉽고 편한 불교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무승산풍경소리는 지난 2002년에 시작해 매월 한차례 이상 공연을 하고 있다.

증심사에는 시민들을 위한 명상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템플스테이와 더불어 ‘시민의 힐링’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증심사에는 광주시 문화재자료 1호로 보물 131호 철조비로자나불상, 오백전(유형문화재 제13호)을 비롯해 많은 문화재가 있다.

증심사 갈림길에서 세인봉을 향해 800m를 가면 약사사(주지 운산)가 있다. 보물 600호 석조여래좌상과 9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3층 석탑이 있는 유서깊은 기도사찰이다.

현재 광주에는 5.18민주화운동의 중심이었던 전라남도청 자리에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이 추진돼 2014년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도시규모에 비해 큰 관광요소가 없던 광주에는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무등산 증심사지구로 이어지는 문화벨트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문화벨트에는 불교전통과 현대예술, 산사음악회, 체험이 함께 어울어져,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남도문화의 큰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처님 가르침으로 환경 보호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5주년 행사 개최

호남지역 생명평화운동을 선도하는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가 창립 5주년을 맞아 6월 29일 후원의 날-야단법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후원의 날에는 광주전남지역 스님들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김정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등 7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에는 기념식에 이어 먹거리 장터, 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 판매가 함께 진행돼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지난 2008년 4월 창립 이후 ‘불교의 사회적 참여와 역할’이라는 화두를 갖고 불교NGO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불교환경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리는 환경법회와 빈그릇운동,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활동가 자비의 쌀 나누기, 518묘역 음악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밝은마음초록세상 대중공양, 산애들애 생태문화기행, 책 읽는 모임인 보리수아래의 부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후원의 날에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 등이 진행됐다.

특히 2012년부터 환경부,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후원으로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어린이생태학교, 자따마따 1박 2일, 청소년지리산마음캠프, 선재역사문화탐방 등을 개최해 지역의 대표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을 자리매김 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착한벗들, 이주여성 한국사회 정착 도와

7월 5~29일 캄보디아·베트남 결혼이주여성 대상

불교국가인 캄보디아와 베트남출신 결혼 이주 여성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적응훈련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착한 벗들(이사장 회일. 참좋은우리절 주지)은 7월 5~29일까지 총 9회에 걸쳐 한국의 역사, 사회, 가정문화, 생활분야에 대한 이해 및 체험을 진행한다. 교육 프로그램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출신국가별로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7월에는 캄보디아 출신 여성, 9월에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 여성들이 참여하게 한다.

전북도립국악원, 전북녹색연합 등 지역내 전문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무근 스님의 ‘한국가족문화의 이해’ 강연을 시작으로 음식 문화체험(자연음식문화원), 전통문화체험(도립국악원) 등이 이어진다. 또 경기 전나무이야기 명상과 미술을 통한 심리치료, 사회봉사활동이 진행된다.

착한벗들 관계자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출신국가별 모임을 결성해 지속적인 교류와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명상연극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생명나눔, 백혈병 환우 돕기 콘서트

백혈병 소아암으로 힘들어하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희망의 음악회가 열렸다. (사)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는 지난 6월 28일 광주빛고을문화회관에서 ‘난치성 소아암 백혈병 아이들을 위한 생명나눔 콘서트 6’을 개최했다.


6월 28일 열린 콘서트 장면

이날 행사는 소아암 백혈병 환우 치료비 마련을 위한 음악회로 광주생명나눔에서 15년째 진행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장학금 및 공로패 전달식, 발원문 낭독, 홍보이사 가수 주권기, 한서운(펜플루트), 최거룡(색스폰), 종립 정광고등학교 댄스팀의 로터스 공연, 임지형과 광주현대무용단의 무용, 명문아동센터 및 KCTS 하트너 봉사단의 통기타 동요 연주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현지 스님은 인사말에서 “질병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다는 백혈병 소아암 환우들이 너무 힘겨워 보인다”며 “고통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아주고 초롱한 그 눈을 사랑으로 바라볼 때만이 그 힘겨운 병마를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발원문을 통해 “어여쁜 아이들이 병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 완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 달라”며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나눔의 아름다움을 실천하며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의 촛불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한다”고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법원, 천은사 관람료 징수 부당 판결

구례 천은사(주지 성문)가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등산객과 통행차량을 대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 한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6월 19일 강모씨 등 74명이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등 문화재관람료 부당 징수 관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월 지리산 등산객과 차량을 대상으로 관람료를 징수해온 천은사에 입장료 1,600원과 함께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 부지 중 일부가 천은사 소유라고 하더라도 지방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 된다”면서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내야만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천은사가 관람료 징수를 이유로 지방도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천은사 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추후 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향후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종무소 측은 “지난 2011년에 법개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공원문화유산지구’로 다지 지정하여 문화유산 입장료로 징수하겠다”며 지난 6월에 관련서류를 접수하여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천은사 측은 “그동안 사찰을 관통하는 지방도 861호 도로가 지난 1982년 군사정권에 의해 천은사 소유의 토지가 강제로 수용돼 개설 된 것”이라며 “지금까지 수행환경을 도로자체가 천은사 허락을 받지 않은 임의도로”라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참좋은우리절, 하계 수행프로그램 마련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은 지역 불자들의 신심고취와 아동·청소년들의 포교전법을 위해 7월 28일 2013 하계 포교 및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중이 대중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담마(法談)토크에서는 신행과 일상 생활 속에서 만나는 어려운 일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자리가 마련된다. 스님들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즉문즉설의 형태로 진행될 담마토크는 쌍방향 방식의 새로운 설법 프로그램으로 처음 시도된다.

조계종청정승가대중결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울산 해남사 주지 만초 스님 △거제 금강사 주지 성원 스님 △솔바람대표 동출 스님 △대둔사 주지 진오 스님 등이 참여한다.

또 7월 26~29일 3박 4일간 ‘나 더하기 너는 우리’라는 주제로 어린이여름불교학교를 운영한다. 어린이여름불교학교는 △명상아놀자와 한나무인성교육 △단결, 부처님을 도와라 △야외물놀이와 쏭크란 축제체험 등 놀이와 명상을 통해 스스로를 바라보고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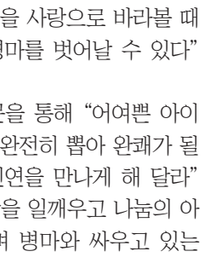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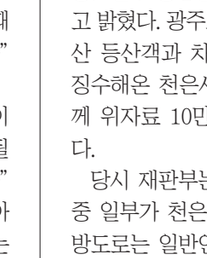
이밖에 청소년들의 미디어기기(스마트폰,인터넷게임 등)중독과 학업스트레스를 치유. 완화할 수 있는 ‘청소년 마인드케어’ 캠프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띠 주말집중수행’이 진행된다. (063)236-6633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1700년 한국 불교 예술 조각으로 이어간다

김해 보광불교조각연구소





보광불교조각연구소는 17년 동안 불교 조각을 통해 한국불교 예술의 얼을 이어가고 있다. 왼쪽은 직원들 사진 오른쪽은 안강수 소장 작업 모습.

언젠가 번다한 고민들에 이 마음이나마 불전에 공양 올리고자 집근처 작은 암자를 들렀을 때이다. 불상 뒤로 펼쳐진 영산회상도의 인물상들이 금방이라도 걸어 나올 듯 꿈틀거리는 통에 깜짝 놀랐다.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니 그림이 아니라 조각물이었다. 촛불의 흔들림에 이리저리 움직이듯 보였던 것이다.

어떤 이의 손길일까 항상 궁금했었는데 1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 그 손끝의 주인공을 만나게 됐다. 보광불교조각연구소(소장 안강수, 경상남도 문화재 전문위원)는 김해에 자리잡고 있다.

들어 선 공방은 인기척에도 무심하다. 몇 번 소리쳐 봤지만 여전한 침묵에 무안했던 마음이 미안할 지경이다. 입구를 들어서니 작업 중인 대웅전 현판에서부터 연잎, 서까래, 부연 등 곳곳에 닫집의 부재들이 보인다. 재료들을 지나치는 동안 목재에서 뿜어나는 특유의 향기 탓인지 이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삼매에라도 든 것인지 눈초리가 오직 칼끝에 머문 모습들에 압도되어 묵묵히 다가서 자리에 앉았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라는 첫마디로 시작된 10여 년 전 영산회상도의 주인공 안강수 소장을 만난 느낌은 27년간 외길을 걸어온 장인의 고집스런 모습이라기보다 소년 같은 해맑은 웃음과 이웃집 형 같은 털털함이었다.

보광불교조각연구소가 문을 연 것은 올해로 17년째다. 안강수 소장의 법명인 보광(普光)을 따서 사람들에게 불교조각을 통해 한국불교를 널리 전하고, 어려운 이웃에게도 널리 베풀며 살겠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다며 쑥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안 소장은 2012년

27년간 외길 걸으며 작업 매진
33관음보살상 대작불사 발원

대한불교청년회 만해공원 건립을 위한 자선전시회를 비롯 올해는 17주년을 맞아 김해지역 아동보호시설 동광원을 위한 자선전시회를 지난 5월 개최할 정도로 이웃사랑에도 열심이다.

연구소에는 안 소장을 비롯한 총 6명이 일을 하고 있다. 올해로 13년째 일을 하고 있는 전욱건 씨는 "정말 좋아서 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일이다. 웬만한 분들은 하루를 못 버티고 도망가 버린다"고 전했다. 오늘날 불교조각계의 현실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현재 경상남도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 소장은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정도 남다르다. 그는 "불교문화는 한국의 문화요 얼이다.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마구잡이식으로 불상을 수입해 일반 사찰도 아닌 전통사찰에까지 버젓이 자리한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며 "1700년 한국불교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전승하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 한국불교를 세계 속에 드러내는 일" 이라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관세음보살상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특히 깊다. 그는 "중생의 고통에 따라 33가지의 몸으로 출현하시는 현세불인 관세음보살님은 그 형상적 모습의 다양함에서 예술적 가치와 공부하는 이들에게 무한한 공부의 계기"가 된다며 예술적 호기심을 밝혔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묻자 "이번 생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조각은 벽화와 달리 빛의 방향과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그 모습과 감동이 다르다. 불보살이 실제 현현한 듯 법열의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법당 외부 벽면을 모두 조각으로 장엄하는 것과 33관세음보살님을 한 법당에 모두 모실 수 있는 대작불사를 제 손으로 직접 성취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나오는 길 연구소 전시장에 모셔진 관세음보살상의 지극한 미소가 마치 대작불사를 꿈꾸는 안강수 소장의 반짝이는 눈빛에 대한 화답처럼 들렸다. (055)323-9964

박경수 부산지사장

"큰스님 유훈 받들어 수행과 포교활동에 최선 다하겠다"

경봉 스님 열반 31주기 추모다례재



경봉 스님 추모다례재.

근세불교의 대표적 선승인 경봉스님 열반 31주기 추모 다례재가 7월 5일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암 호국선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방장 원명 대종사를 비롯 호국선원장 명정 스님,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통도사 전 주지 정우 스님, 성파 스님, 동주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경봉 큰스님께서는 늘 수행과 포교를 강조하셨다. 하지만 지금까지 스님의 뜻에 부합해 수행하고 포교를 하지 못한 것 같다"며 "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해 중생제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경봉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동국대학교, 위덕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와 통도사 강원과 선원에서 정진중인 스님 37명에게 총3,800만원의 장학금과 수행지원금을 전달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진관·지원 스님 〈고려전기불교사연구〉 출간

부산 문수사 출판기념법회



〈고려전기불교사 연구〉 출판기념회.

불교인권운동에 앞정 서왔던 대표적 두 스님인 진관 스님(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과 지원 스님(문수사 주지)이 고려 전기 불교사를 재조명해서 공동 저술한 〈고려전기 불교사연구〉 출판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4일 부산문수사 대웅전에서 개최된 출판기념법회에는 공동저자인 진관 스님, 지원 스님을 비롯 서영교 국회의원, 설동근 동명대 총장, 이종철 남구청장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함께 했다.

진관 스님은 "이번 연구를 기초로 고려불교사 연구의 새로운 전환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사찰 쓰레기 불자들이 해결하자

사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많아진다는 것은 사찰주변의 청정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문제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예로부터 불가에서는 청빈하고 검소한 삶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였다. 그러한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발우공양이다. 스님들은 발우에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소량의 음식을 담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비워냄으로써 비움의 미학을 불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절에서 스님들이 해왔던 발우공양은 한국의 사찰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작한 템플스테이에서도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외국인들이 한국음식을 먹는 것도 어색할 텐데 발우공양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일단 신기해서 그렇겠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적당량의 음식을 선택해서 그것을 남기지 않는 것이 곧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공양시간이 되면 공양간을 개방하고 절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것이야 말로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냥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음식을 남기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다. 음식을 남기는 것은 생활쓰레기 가운데에서도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음식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스님들이 가르쳐온 청빈한 삶의 정신을 실천하지 않는 나쁜 습관이다.

이제는 대부분의 사찰에서 도로가 충분히 발달되어 있고 쓰레기의 수거도 즉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많지 않다. 그렇지만 사찰에 생활쓰레기가 많아서 쓰레기차가 수시로 들락거리는 것은 보기에도 어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찰의 쓰레기문제는 일차적으로 불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사찰에 오는 불자들이 욕심을 줄이고, 검소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자기가 되가져간다는 습관을 들인다면 더욱 더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사찰이 청정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찰 안팎에서 더러운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사부대중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사찰에서 쓰레기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사찰의 쓰레기문제는 그것이 어떤 유형의 것일지라도 부끄러운 일이다. 충남 ㅂ사찰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 · Ⅱ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개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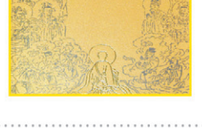




춘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추천도서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서연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
금강경오가해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관점의 금강경해설서.
오가해를 비롯해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들이 주로 선(禪)의 입장에서 해설해왔다면 일불승의 입장에서 금강경을 해설한 미증유한 저술. 특히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영문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전대기 김중섭 이대성 외 저. 339쪽. 가격 15,000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 2〉를 읽은 불자지성인들이 〈붓다의 메시지〉가 불자들에게 던지는 의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천착하고 있는 저자들의 비평서이다. 저자들은 금세기의 불후의 고전이 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요약정리하여 이 저서가 던지는 불교사적 의의를 천명하고 있다. 한 저자는 〈붓다의 메시지〉를 읽고 찬탄과 경이를 금하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과를 이룬 대성취자의 순수하고 청정한 법음의 성서이고 일체법을 통달한 최고의 종교철학서이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법장 김중섭 저. 715쪽. 가격 25,000
통상적인 비교종교학의 관점을 넘어서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해 21세기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우주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인류의 근본적 의문에 대해 천고의 비밀을 파헤치고, 또한 달라이라마의 〈한 원자 속의 우주〉에서 제기한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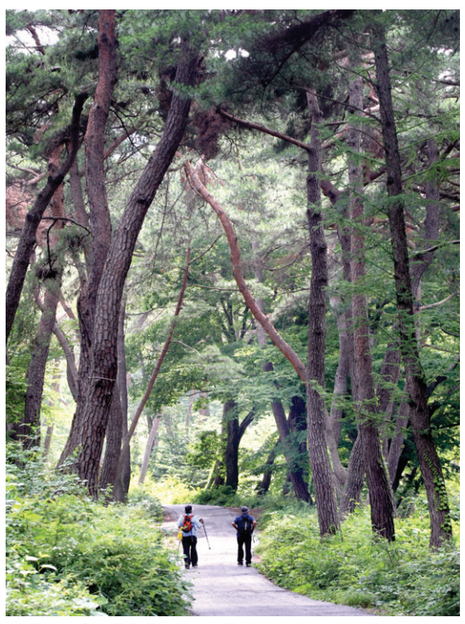
숲이 내준 '미안한 이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할까

숲길이 아름다운 사찰 1 - 아산 봉곡사(鳳谷寺)


봉곡사 전경. 대웅전엔 총알이 뚫지 못했던 목불이 있다.

절이 숲길 끝에 있는 걸까. 숲길이 절에 딸린 걸까. '산사'라고 부르는 웬만한 절에는 숲길이 놓여 있다. 숲 한쪽을 헐어낸 그 길은 어찌 보면 숲의 생채기다. 숲이 '내준 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산사로 가기 위해선 그 미안한 길을 걸어야 한다. 이 미안한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할까. 미안한 마음으로 걷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마음으로 걷다보면 산사에 들게 된다. 결국 산사의 숲길을 걷는 일은 '입정(入定)'의 절차가 된다. 한 발 한 발 걷는 동안 산문 밖에서 흔들릴 대로 흔들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산문에 들라는 것 같다. 법문을 듣기 위해 마음을 청정하게 가라앉히는 것과 같이 산문에 드는 일 또한 법에 다가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산사의 숲길이 단순한 길로서의 길만이 아님을 생각한다면 문장 앞에 걸어둔 '숲길이 아름다운 사찰'이란 문패는 어색한 문패다. 하지만 문자의 힘이 거기까지인 것도 어쩔 수 핑계라면 핑계일 것이기에 그 핑계로 '아름다운 숲길'을 선정했다.

충남 아산시 송악면 유곡리 봉수산 기슭에 숲길이 하나 놓여있다. 봉곡사로 가는 길이다. 봉곡사 주차장에서 봉곡사까지 약 700m 소나무 숲길이다. 2007년 정부에서 지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숲길 100선'에 선정된 길이다. 숲을 이루고 있는 이곳의 소나무는 역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아름드리 소나무 밑동에는 한결같이 'V'자 모양의 흉터가 있는데 이는 일제가 패망직전에 연료로 쓸 송진을 채취하기 위해 낸 상처다.


봉곡사 숲길. 주차장에서 봉곡사까지 약 700m 길이다.

숲길이 깊어가면 숲길은 발로만 걸을 수 없다. 눈으로 걷고, 코로 걷고, 귀로 걷고, 이마로 걷고, 두 팔로 걷고, 가슴으로 걸어야 한다. 절정의 빛깔로 서있는 7월의 노송들, 함께 돋은 초목들의 향기, 먼 숲에서 들려오는 산새소리, 나뭇가지 사이로 내려오는 햇살, 그리고 기다리고 있을 산사의 마당. 발로만 걸을 수 없는 일이다.

봉곡사 숲길은 봉수산 정상(2.3km)으로 가는 길과 연결된 등산 코스이기도 하다. 주말이면 숲길은 등산객들의 발길로 꽉 찬다. 700m 지점에서 본격적인 산길이 시작되는데, 그 길목에 봉곡사가 있다.

주지(자암) 스님이 객을 맞아준다. 7월의 태양이 절 마당을 달구고 있었지만 종무소로 쓰고 있는 법당에 들어서자 뜨거운 태양이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한다. 땀을 닦고 앉자 스님이 차 한 잔을 냈다. 뜨거운 차 한 잔이 시원했다. 법당 안에는 흰 나비 한 마리가 들어와 날고 있다. 부처님 손끝에도 앉았다가 스님 어깨 뒤로 날다가 어디로 갔는지 한참을 안 보이다가 어느 샌가 찻잔 위를 지나간다. 진한 차향이 날갯짓에 흩어지고 부처님 입가에도 차향이 걸린다. 주지 스님은 봉수산 숲길이 매체에 많이 소개된 덕분에 봉곡사도 유명해졌다고 했다. 하지만 등산객이 늘었지 불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며 웃음을 웃었다. 찻잔을 비운 스님이 밖으로 나와 도량을 보여준다.

도량이 한눈에 들어온다. 대웅전, 향각전, 종무소를 겸한 인법당, 산신각. 조촐하다. 도량의 전부다. 규모를 내세울 도량은 아니다. 하지만 봉곡사는 선지의 발자국이 머문 절이다. 주지 스님이 봉곡사를 이야기한다.

불사중인 향각전은 만공 선사가 처음 견성한 곳이다. 만공 스님이 천장암에서 스승 경허 스님을 모시고 있었다. 객이 경허 스님을 찾아와 물었다.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럼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萬法歸一 一歸何處)" 당나라 때 조주 스님도 후학으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았다. 조주 스님은 "내가 청주에 있을 때 삼베 적삼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무게가 일곱 근이었지.(조주포삼 · 趙州布衫)"라고 답했다. 경허 스님의 답은 전해지지 않는다. 그때 만공 스님은 그 공안에 묶이기 된다. 스승에게 질문을 던진 그 객과 함께 같은 공안에 붙들린 것이다. 그 길로 만공 스님은 길을 떠난다. 발길이 가는대로 걸어 당도한 곳이 지금의 봉곡사다. 만공 스님은 스승도 없이 화두 위에 앉았고, 2년 만에 오도송을 읊는다. 1895년 7월 25일, 스님이 스물다섯 때의 일이다. 얼마 전까지 향각전은 고시생들이 고시준비를 하기 위해 많이 찾았다고 한다. 산신각 맞은편에 만공탑이 서있다.

봉곡사는 마곡사 말사로 887년(진성여왕 1)에 도선국사가 석암이란 이름으로 창건했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도선 국사가 석암을 창건할 당시, 원래 도선국사가 생각한 자리는 지금의 자리가 아니었다고 한다. 지금의 자리보다 더 깊은 곳이었는데, 불사를 시작할 무렵 새 한 마리가 때때로 날아와 절터에 흩어진 나뭇가지들을 물고 어디론가 날아갔다. 수일 동안 그 일이 반복되자 스님은 어느 날 새가 날아간 쪽으로 가보기로 한다. 그 자리가 지금의 봉곡사 자리가 됐다고 한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도선 국사는 처음 생각했던 자리보다 지금의 자리가 더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1170년(고려 의종)에 보조국사가 중창했으며, 함허 화상이 중창했다. 당시는 암자만도 상암, 벽련암, 보조암, 태화암 등이 있었다. 조선 왕조 선조 때, 임진왜란을 겪으며 본전과 여섯 암자들이 전부 폐허가 되었다가 1647년(인조 24) 다시 중창했다. 그 후 1794년(정조18)에 궤한 화상이 중수하고 산의 모양이 봉황이 양 날개를 펼치고 나는 것과 같은 형상이라 하여 봉곡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1891년(고종 7)에 서종 화상이 법당 및 요사를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느 절과 마찬가지로 봉곡사 역시 전쟁의 피해를 많이 입었다. 하지만 6.25 한국전쟁 땐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봉곡사를 점거한 북한군의 지휘관은 주민들을 위협하기 위해 대웅전의 불상에 총을 쐈다. 그런데 총구를 떠난 총알이 불상을 뚫지 못하고 튕겨 나왔다고 한다. 그 불상이 지금의 불상인데 놀랍게도 목불이다. 총알이 목불을 뚫지 못한 것이다. 놀란 북한군들이 절을 포기하고 떠났고, 봉곡사는 무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절 마당을 나서면 다시 길이 시작된다. 다시 오르는 길, 왔던 곳으로 내려가는 길. 어느 길이든 숲길은 미안한 마음으로 걸어야 한다. 봉곡사에 가면 미안한 마음으로 걸어야 하는 천 년 숲길이 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만공 스님이 약 2년 동안 머물렀던 향각전. 스님은 1895년 이곳에서 첫 견성을 경험했다. 향각전은 불사중이며, 산신각 맞은 편엔 만공탑이 서있다.

주변보기

〈사찰〉

▲**세심사** /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221

백제 때 창건하였으며 654년(신라 선덕여왕 14)에 자장율사가 중창하였다고 전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기록은 없다. 처음엔 신심사(神心寺)였는데 1968년 일타 스님과 도견 스님이 절 입구에 있는 세심당(洗心堂)이라는 부도에서 이름을 따와 세심사로 고쳤다.

▲**인취사** /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84

신창면 읍내리 학성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인취사는 고려시대 창건한 사찰로 경내에 삼층석탑 2기(석탑1기는 지방문화재 자료 235호), 극락전과 3존불상, 경내에서 수습된 기와 와편이 있다.

〈가볼 만한 곳〉

• **외암 민속마을** /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169-1



약 500년 전 조선 중기에 형성된 국가지정 문화재 마을로, 가가호호 주민이 살고 있고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살아 있는 민속박물관이다. 반가의 고택과 5.3km에 달하는 나지막한 돌담길, 전통정원 등이 잘 보존되어 있고 배산임수의 풍수와 자연경관이 뛰어나 국내 최고의 민속마을로 꼽힌다. 특히 팜스테이 프로그램은 인기가 많으며 영웅시대, 야인시대, 취화선, 태극기 휘날리며 등 수많은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다.

• **맹씨행단** / 아산시 배방읍 중리 300

조선왕조 청백리 명재상 매사성이 살았던 집으로 고택과 사당, 정자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옛 살림집이다. 뜰 안에는 600년 된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있다.

• **현충사** /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298-1

1706년(숙종)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이다. 기념관에는 국보 76호 난중일기, 보물 326호 장검 등이 전시되어 있다.

• **도고온천** /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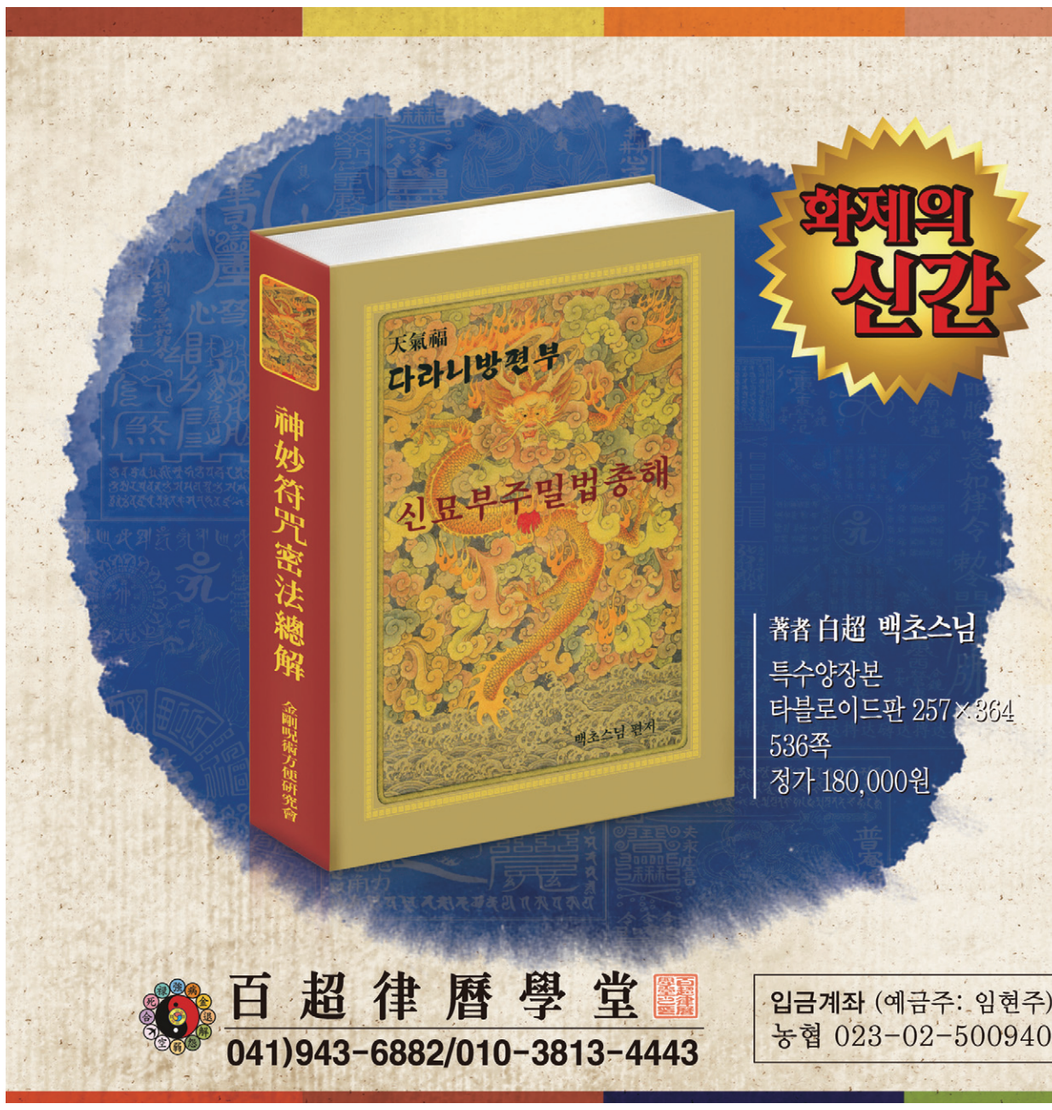
신라시대 학이 온천수로 다리를 치유했다는 '학다리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2009년 국가로부터 보양온천으로 지정되어 그 효능을 인정받았다. 온천수 워터파크와 온천탕, 콘도, 기타 숙박시설이 있다.

〈숙박〉

도고 글로리콘도/도고면 기곡리 17-10/041-541-7100
토비스콘도미니엄/도고면 기곡리 261-15/041-541-5432
도고로얄호텔/도고면 기곡리 174-13/041-543-5511

〈식당〉

-시골밥상/송악면 강당리/041-543-0414/시골밥상정식
-산과들묵집/송악면 역촌리/041-541-7762/묵밥, 보리밥
-흑두부집/송악면 강장리/041-544-2707/두부전골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정가 180,000원

새로운 비방법! 더욱 강력해진 방편술!
일체 마장을 소멸시키고, 고통받는 인간 만사를
단번에 풀어내는 방토법 대공개합니다.

天氣福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가 않는다. 귀신도 꾀가 많아지고 약삭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벳밀교와 일본 · 중국 · 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百超律曆學堂
041)943-6882/010-3813-4443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미얀마 불교 이야기
7. 영국식민지배기간의 교단과 교육

식민통치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자생력 키워







왕에서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미얀마 사람은 절에서 불교와 함께 교육을 받았다. 지역사회에서 사찰 주도로 진행되는 교육체제는 마얀마가 지금까지도 문맹률이 낮은 요인 중 하나다. 영국의 식민지배 기간 동안 미얀마 불교계는 승가교육과 저변확대의 내실을 닦았다. 우측은 사찰에서 교육받는 미얀마 아이들의 모습.

2012년 12월 중순 미얀마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미얀마 원로인 Myo Myint 박사의 발표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영국식민기간의 불교'에 대해 발표했는데 이번 호에서는 그의 발표논문을 부분적으로 번역하고 발췌해 소개한다.

Myo Myint 박사는 미얀마에서 저명한 원로학자다. 미얀마 정부 종교성의 중요 직책을 역임했으며 세계불교학술대회를 조직하고 이끌기도 한 이다. 필자는 2012년 9월 말 초전법륜지인 사르나트에서 열린 인도 국제불교학술대회에서 미얀마 대표로 참가한 그를 만났다. 사르나트의 호텔에서 한 노인이 잃어버린 가방을 찾아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도와 주었는데 그가 바로 Myo Myint 박사였다.

영국 지배기간 교단의 분열

전통적으로 미얀마 불교교단에서 '탄탄뱅'(Thathanbaing)은 한국불교의 종정이나 총무원장과 같은 교단의 수장을 나타내는 말이다. 탄탄뱅은 불교를 잘 이해하고 덕망이 뛰어난 스님으로 이전에는 왕이 존경하는 스님을 칭하는 말이었다. 영국식민정부는 처음 이러한 탄탄뱅의 존재를 인정하였지만 새로운 탄탄뱅의 존재를 임명하고 지원하는 데는 거부하였다.

1852년 제2차 미얀마와 영국 간 전쟁으로 남부 지역을 잃은 미얀마는 남부지역에서 불교세가 갈 수록 약해져만 갔다. 여기에 불교 수장의 부재는 영향력 상실을 부채질 했다.

미얀마 남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가운데 Dwaya 종파가 Oakpo 사야도(Sayado)에 의해 창종됐다. 미얀마 불교에서 사야도(Sayado)는 법랍과 학덕이 높은 스님을 이름하는 말이다.

다시 Dwaya 종파에서 Kan이라는 종파가 분파되었다. 이 시기에 미얀마 북부 지역서는 민돈(Midon) 왕에 의해 Shwegyin종이 창종되었다.

이렇듯 나라가 영국지배로 갈라지면서 불교 교단 또한 내부 분열이 있었다. 현재 미얀마 9개 종단 중 주류는 Sudhamma (Thudhamma) 종파이고 다음으로 Shwegyin 종파이다. 이후 영국이 미얀마 북부 지역까지 지배권을 넓히자 불교 교단은 이전 왕에 의해 임명됐던 불교수장의 선출권을 영국식민정부에 뺏기게 된다.

1895년 탄탄뱅이 입적하자 영국은 약 9년 간 새 수장을 선출하는데 주저했다. 이로 인해 탄탄뱅을 구심점으로 화합하였던 불교 교단은 내부적 긴장과 분열의 양상을 보였다.

수년이 지난 1901년 10월 22일, 만달레이에서 새 불교의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열렸다. 33명의 지원자 가운데 Moda 샤야도가 큰 득표로 선출됐다. 하지만 Moda 샤야도는 선출된 지 6개월에 입적했다. 때문에 두 번째로 득표한 Taunggwin 샤야도가 새로운 불교수장으로 임명됐다. 영국식민정부도 이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선거가 북부 미얀마인 만달레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남부 지역을 포괄한 전 미얀마를 대표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Taunggwin 샤야도는 전 미얀마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북부 미얀마 일부에 영향력을 발휘했다.

여기에 탄탄뱅이 식민정부의 지시에 따르는 어용의 모습으로 비춰지자 미얀마 전 불교교단은 이에 반대하는 '승가연합총회'(General Council of Sangha Samaggi(GCSS)를 자체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교단 중심 승가교육 토대 닦아

전통적으로 미얀마를 포함한 상좌 불교권에서는 불교교육은 빠리얏띠(Pariyatti)와 빠띠빳띠(Patipatti)로 대별된다. 빠리얏띠는 삼장을 중심으로 교리 공부하는 것을 이르며 빠띠빳띠는 선정수행의 영역을 말한다. 이 두 가지를 학습하는 것은 어느 불교 승단이든 예외없이 인정하는 승단의 주요 의무였다.

영국 지배로 불교 교단 분열
1895년 종정 입적후 9년간 공백
승가연합총회 발족해 자체 교육
사찰에서 대중교육 토대 만들어

상좌불교는 전통적으로 경전을 중심으로 교리공부를 하여야 선정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선정과 함께 교리공부를 강조하기에 미얀마에서 초기경전인 빠알리(Pali) 불교 연구가 오랜 전통으로 남아있다. 많은 학승들이 유명한 빠알리 문법책을 편찬하였고 빠알리 경전에 대한 연구서를 남겼다.

미얀마 국왕은 출가스님들의 경전 학습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일환으로 '빠알리 경전 시험'을 개최하곤 했다. '빠알리 경전 시험'은 성대한 의식과 함께 경전을 구두로 암송하는 시험이었고 지원자가 통과하면 여러 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나 영국식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전통은 무너졌다. 1885년부터 1894년까지 약 9년 동안 빠알리 시험이 시행되지 못했다. 이후 식민정부는 불교교단에 반정부 분위기가 흐르자 이를 달래기 위해 빠알리 시험을 개최했다. 영국식민정부는 이전의 미얀마 국왕들처럼 빠알리 시험을 개최하면 미얀마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 영국식민정부는 이러한 시험을 통해 계율조항이 더 숙지되면 식민정치와 같은 세속적인 일에 출가교단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했다. 당시 영국식민정부 교육청은 시험 감독을 제외한 시험 공지부터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을 도맡아 했다. 그러는 한편 자신들이 주최하는 빠알리 시험 외 다른 어떠한 현지 불교기관의 시험을 공인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빠알리 시험에 영어와 지리학 그리고 수학 등을 포함시키려했다. 이에 당시 불교교단은 크게 반대했다. 그 이유는 학승들이 경전공부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고 환속하기 쉽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영국식민정부 기간 승려교육은 정부 주최와 일반 불교 기구가 대척하는 양상으로 진행된다. 여기에 미얀마 전역에서는 '승가연합총회'(GCSS) 등 재가자와 출가자가 자체적으로 설립한 불교기구에서 행해지는 빠알리 시험으로 확산됐다.

각각의 불교 기구는 빠알리와 율장 시험을 자신들이 머무는 곳에서 응시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통과된 응시자는 증명서가 수여되고 상도 받을 수 있었다. 결국 스님들이 점차 정부 주도의 시험에 응시하지 않자 식민정부의 빠알리 시험은 단절됐다.

다시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교단은 교리공부(Pariyatti)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 종파마다 또는 사야도 중심으로 다양한 시험을 개최한다. 이 중 특히 유명한 시험은 남부 몰라민의 구두 암송시험과 Shwegyin종파, Weluwun종파 그리고 Dwaya 종파 등의 시험이다. 이외에도 청년불교도연합(YMBA)이 주최한 시험 등이 각광을 받았다.

미얀마 승려 교육은 식민지배 기간 동안에 큰 변화를 겪는다. 긍정적인 면은 이전까지 왕들의 지원과 후원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이 불교교단이 독자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권력에 의존하지 않는 주체적인 불교교육운동이다.

이 때 시작된 시험제도가 현재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1894년에 양곤에 Cetiyingana Pariyatti Dhamannggaha Association 기구가 설립됐으며 1898년 만달레이에서 빠알리 시험 기구가 창설된다. 이 두 기관의 시험은 높은 학문적 수준을 요구하기에 이를 통과하는 수가 매우 적다. 두 기관 시험을 통과하면 승단의 존경과 함께 각종 강원 및 대학에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영국 통치 기간에 미얀마 불교는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자생력을 더 확보하였다. 특히 아비달마 불교교학에서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 이와 함께 선정 수행으로도 이름을 날린 스님들이 많이 배출됐다. Ledi 샤야도(1878~1952)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가 남긴 불교와 위빠사나 수행에 관한 많은 가르침은 현재 미얀마 불교에 큰 힘이 되고 있다. U Khanti 또한 미얀마 불교에 큰 역할을 했다. 승려 출신인 그는 환속해 만달레이 산간 지역에서 포교를 진행했으며 전국에 불교건물을 건립했다.

이렇듯 영국 식민지배 기간 동안 미얀마 인들은 출재가자 모두 불교 진흥에 노력하였다. 기독교 선교와 서구교육의 도전에 대항하여 불교적 삶의 방식을 잃지 않고 계승하려 최선을 다했다.

특히 미얀마 전통교육의 중추로 불교 사원이 자리했다. 왕에서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미얀마 사람은 절에서 불교와 함께 교육을 받았다. 지역사회에서 사찰 주도로 진행되는 교육체제는 마얀마가 지금까지도 문맹률이 낮은 요인 중 하나다. 미얀마 어느 곳이든 사원학교(Monastic School)가 있으며 스님들이 교사 역할을 하기에 열악한 교육환경이지만 기본적인 교육을 받게 한다. 영국식민통치 기간에 미얀마는 독자적인 교육체계로 불교 전통과 정신을 잃지 않고 끝내 독립할 수 있는 힘이 배양됐다. 불교 교단 내의 정체성 유지, 승가교육 활성화와 사원 중심의 대중교육은 영국 식민지배 기간 동안 불교 민족주의를 싹트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조준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교수)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

전통 '조왕탱화'

옛말 그대로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그 "조왕탱화" 사업장의 조왕신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을 약속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가치가 더해가는 전통탱화입니다.

조왕탱화 상세안내

1 정의 : 부엌의 신인 조왕신(부엌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竈王壇)에 봉안된다.
2 유래 :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앙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3 명호 :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4 구성 :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紫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5 한국의 대표적인 조왕탱화 : 양산 통도사 비로암, 충남 계룡산 갑사, 대구 팔공산 선본사, 부산 삼광사, 경남 밀양 표충사
6 필수 :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竈王大神(나무조왕대신)'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7 내용 :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한국전통채색학교 – 수강생모집

□ 모집기간 : 7월 ~ 9월(90일간) / □ 모집인원 선착순 30명 / □ 개강 : 10월 6일(5개월 20회)
• 한 탱화과(후불탱, 신중탱, 지장탱, 여래탱, 일로왕탱) 지원자격 – 사찰 스님
• 기초기반(도안)과 지원자격 – 전문가 • 민화과 지원자격 – 전문가
• 수강장소(선택) – 서울 목동 / 경북 경주 / 부산 서면

• 경주 054)774-0988 / • 부산 051)332-0045, 010-9388-0988

초안 (먹물 밑그림)

상호 (전통조왕상호)

문양 (고대문양)

■ 기법 : (1) 출초 – (2) 배접 – (3) 아교포수 – (4) 도채 – (5) 바림 – (6) 문양 – (7) 금니 및 황선 쫓침 – (8) 금박붙이기 – (9) 상호 – (10) 틀 싣기 – (11) 발미(전통기법 그대로!)
■ 금어 : 원장 – 전국 공모전 불교미술분과 심사위원
화원 – 문화재 기술자, 기능자, 전수자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규격 : 가로 61cm × 세로 91.5cm
■ 문의전화 : ☎ 051)332-0045 / 010-9216-0988

성 유 불 화 원 금어 조성철 합장

“선교일치 터득…학문적으로 자신만만하셨습니다”



方山老의 無影樹 〈20〉

탄허 스님 탄신 100년 증언- 명성 스님



명성 스님
운문사 주지 및 전국비구니회 회장 역임
운문승가대학 학장

“대강백 관응 스님의 딸이
관응 스님에게 배우지 왜 나에게…”
영은사서 한달간 ‘장자’ 배워
탄허 · 관응 스님 밤새워 학문 토론
6 · 25 때 탄허 스님과 함께 피난
운문 강원 내외전 공부 스님 영향

–스님도 탄허 스님에게 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오대산과의 인연부터 들려주시지요.

저는 탄허 스님과 인연이 있지만, 오대산의 방한암 스님과도 인연이 있어요.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지요.

저의 부친이 강백이신 관응 스님이신데 일제 말기에 노스님(관응)께서 월정사 강원의 내전 강사이셨어요. 그때 외전 강사는 동국대 교수를 지낸 원의범 교수이셨구요.

저희 집이 월정사 그 밑에 있는 마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탄허 스님, 관응 스님, 원의범 교수는 동시대에 살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지요.

그런데 제가 강릉여고에 다녀서 공부할 때에는 강릉포교당에 가 있지만, 방학 때에는 집에 와서 있었어요. 그런데 여학생 3학년쯤에 상원사 거기를 올라가서 한암 스님을 뵈었어요.

상원사를 올라가서 하루를 자는데, 스님들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고 그래서 스님들은 잠이 없나 그랬어요. 절 풍속을 잘 모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이지요.

한암 스님께서는 그 이튿날 층계까지 내려오셔서는 절보고 “관세음보살을 많이 불러라”고 그러셨어요. 한암 스님은 그리 인자하셔요. 아주 자비가 얼굴에 뚝뚝 흘러요. 한암 스님의 사진을 보면 자비한 것이 꽉 찼어요. 그렇게 자비한 분이 없어요. 자비가 상징이지요.

–스님께서 입산하기 이전 시절의 탄허 스님에 대한 추억은 무엇일까요?

저는 방학이 되면 월정사 아래 동네에 있는 집으로 오기도 하지만, 여름방학 때에는 강릉의 구정면에 있는 칠성암이라는 절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 절은 지금은 법왕사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칠성암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거기에 가서 책을 많이 봤어요. 특히 관응 스님께서 읽으라고 주신 스물한 권짜리 〈생명의 실상〉을 거기서 아주 탐독했어요. 그 절의 개울가에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때에 보니까 탄허 스님, 관응 스님, 양청우 스님이 세 분이 아주 친했어요. 그리고 탄허 스님과 관응 스님은 학문적인 토론을 서로 간에 많이 했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대화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별명을 ‘밤새기’라고 그랬지요. 당신들끼리 서로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관응 스님은 유식에 통달하신 분이고, 탄허 스님은 유불선을 회통한 분이 아닙니까? 두 분은 불교학의 태두(泰斗)이시잖아요. 그러니 두 분은 밤을 새워가면서 학문 토론을 하신 것이지요.

–파계사의 도원 스님에게 6 · 25 때 탄허 스님과 같이 피난을 가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것이 1 · 4후퇴 때입니다. 그때 저는 여고를 졸업하고 교사 발령을 받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이거든요. 저하고 탄허 스님이 같이 피난을 갔어요.

탄허 스님, 나, 정각심 보살(명성 스님 모친), 탄허 스님의 상좌인 희태 스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때 백설기를 만들어서 목침으로 나눠 갖고, 그 백설기를 먹으면서 동해안으로 2, 3일을 같이 피난갔어요. 우리는 고향인 상주 쪽으로 가서 중간에 헤어졌지요. 그때 관응 스님은 일이 있어 먼저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도원 스님도 우리와 같이 피난을 하였구요.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깐 탄허 스님은 나와 피난 동지예요.

–6 · 25 때의 추억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죽을 끓여 먹었어요. 칠성암에 있을 적에는 산에 올라가서 함포 사격하는 것을 구경도 하였고, 인민군이 와서는 나를 나오라고 그러는데도 “방 청소를 하고 나가겠다”고 대담하게 그랬어요.

–명성 스님은 1951년 해인사 국일암에서 출가하셨고, 1961년에는 청룡사에 계시면서 동국대 불교과에서 공부하셨는데 그 무렵에 탄허 스님에게 배웠나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제가 동대에 다니면서 주로 불교 경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였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방학이 되었지만 놀면 안 되니까 탄허 스님에게 장자를 배우러 가야 하겠다고 생각하고는 영은사로 배우러 간 것이지요.

그래서 탄허 스님에게 갔더니만, 스님께서는 “관응 스님에게 배우지, 왜 나에게 와서 배우려고 하느냐?”는 말을 연거푸 세 번이나 하시더라구요.

관응 스님에게 배울 일이지 왜 탄허 스님에게 왔냐는 것이지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을 하였는데, 그만 세월이 50년이 넘다 보니 기억이 안 납니다. 탄허 스님은 장자, 거기에 통달하니깐 그런 것에는 독보(獨步)이시잖아요. 거기에 가서 배운 것은 한 번이었고, 한 달 동안 배웠어요.

–영은사 시절을 회고하여 주세요.

그때가 겨울이어서 무척 추웠어요. 영은사는 큰 도량이 아니었고, 주지는 희태 스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희윤이라는 스님도 있었는데, 그 스님은 일찍 죽었지요.

박완일이라고 신도회 사무총장을 한 사람과 친했고, 박완일 씨의 장인이 신상순인데 그 사람은 월정사 산감을 하였지요.

공양은 그래도 먹을 만하였고, 거기에서는 발우공양을 꼭 하고 그랬지요. 저는 대중들과 함께 영은사에서 하는 수업을 같이 듣고, 따로 거기에서 떨어진 일소굴이라고 탄허 스님 계신 곳에 가서 일대일로 장자를 공부했어요. 저 혼자 배웠기에 칠판 강의는 안 했어요.

그때 탄허 스님이 하시는 칠판 강의를 들어보면 스님은 유불선의 모든 경전을 다 외워서 하셨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탄허 스님은 저에게 해박하게 잘 일러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운 것이 저의 공부에 도움이 되었어요. 많은 도움이 되었지요. 불경만 보다가 유교,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 학문의 폭이 넓어졌지요.

–그 시절, 그곳에 대중들은 누가 있었나요?

비구 스님으로는 혜거 스님이 기억납니다. 그 스님은 그때에 아주 젊었어요. 그리고 비구니 스님은 자호 스님, 자흔 스님이 생각납니다.

자흔 스님은 그 뒤에 환속했어요. 나는 객(客)으로 있었고 유심히 보지 않았기에 다른 대중은 잘 몰라요. 내 나이가 올해 여든 셋입니다. 세월이 너무 흘러서 잘 생각나질 않아요.

–그 후에는 탄허 스님을 어디에서 뵈었나요?

제가 청룡사에서 10년을 있었어요. 거기에서 동대와 동대 대학원을 다니고, 강사도 조금 했어요. 그때에 원보산 스님도 자주 오셨고, 탄허 스님이 청룡사의 방장실에 계신 것을 봤습니다.

상주하시지는 않고, 가끔 들르셨는데 청룡사 주지인 김윤호 스님과 가까웠어요. 그리고 스님이 대원암에 계시면서 경전 번역 작업을 하실 때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님은 늘 번역하시고, 집필하시는 것에 여념이 없었어요.

대원암에는 탄허 스님이 들어가시기 전에는 수덕사 출신인 덕수 스님과 혜춘 스님이 있었어요. 덕수 스님은 견성암의 선원장도 했는데 엊그제 돌아가셔서 오늘이 발인입니다. 내가 대원암을 들렀더니, 탄허 스님은 절보고 여학교 다닐 적에는 얼굴이 뽀얗더니 지금은 얼굴이 좋지 않다는 그런 농담도 하셨어요.

–탄허 스님은 화엄경 출간 기념으로 월정사에서 화엄산림 법회를 하셨는데, 거기에는 가셨는가요?

저는 운문사 소임이 바빠서, 거기에는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탄허 스님을 이곳 운문사에 모시지도 못했어요. 운문사에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 스님은 늘 번역, 집필하시는 것에 바빴어요. 지금 생각하면 한 번이라도 모셔서 특강을 하였으면 좋았는데, 왜 못했는지 아쉽지요.

–탄허 스님을 어떤 스님으로 보시나요?

저는 탄허 스님을 선교(禪敎)를 겸수한 스님으로 보고 싶어요. 선교는 둘이 아니거든요. 선교를 따로 보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탄허 스님은 선교일치(禪敎一致)를 터득한 큰스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허 스님은 승가교육에 필요한 경전 대분분을 번역하셨지요?

탄허 스님은 하여간에 정력이 대단해요. 스님의 열정, 에너지는 대단합니다.

학문에 대한 저력은 보통이 넘습니다. 학문에 당당하셨어요. 스님이 하시는 강의를 들으면 보통 통달이 아닙니다. 그리고 탄허 스님이 모든 경전을 번역하셨다는 것은 역사상에 한 획을 그으신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유불선을 회통하셨기에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명성 스님이 탄허 스님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탄허 스님은 학문적으로 자신만만하셨습니다. 스님은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자주력을 길러서, 학문적으로 자주정신이 강하셨죠.

그래서 나도 그런 점에서 자주적인 정신을 배울 수 있었지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자주정신이 강했어요.

–탄허 스님은 유불선을 회통하셨는데, 이런 점을 보고 명성 스님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는지요?

저는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그리 되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저는 스님의 영향을 받아서 운문사 학인들에게 불경뿐만 아니라 유교도 가르치고 있어요. 이곳 운문사 강원의 전교생들에게 사서(四書)를 배우게 하였어요.

그 방면의 학자를 모시고 했어요. 영남대 교수인 유교학자 이완재 선생을 모셔서 그리 했어요. 지금은 한불전대학원에서도 수업을 합니다.

탄허 스님의 영향으로 스님들이 불교, 내전만 배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외전을 겸해야 만전을 기할 수 있는 학문이 될 수 있어요.

–탄허 스님과 관응 스님의 특성을 비교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두 큰스님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관응 스님은 뭐 하라고 하시면 ‘싫어요’입니다. 역경장 하라셔도 그렇고, 총무원장 하라셔도 그렇고 무조건 ‘싫어요’ 그래요. 스님은 안 하는 주의지요.

그에 비해서 탄허 스님은 정치적인 말씀도 하시고, 학문에 아주 당당하고 그랬어요. 어디에 굽히질 않아요. 자신만만하셨어요. 스님은 당신은 신학문을 안 했지만 신학문하는 사람을 아주 좋아했어요. 스님이 하시는 강의를 들어보면 목소리에 힘이 있어요.

하여간에 두 분은 잘 통했는가 봐요. 그래서 서로 밤새기라고 그러지요.

–탄허 스님의 생각이 가끔 나시나요?

그야 생각이 나지요. 같이 피난을 가던 생각이 납니다. 지난주에 교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신다는 연락이 왔을 때에 내가 탄허 스님에 대해서 별로 많은 자료를 줄 것도 없고, 이야기를 할 것이 없는데 왜 오시나 하였지요.

탄허 스님은 100살 넘게 사신다고 그러셨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하실 일이 많았는데 참으로 안타깝지요.

탄허 스님이 입적하였을 적에 내가 버스를 대절해서 여기 운문사 학인들을 데리고 월정사를 가던 일이 엊그제 일처럼 생각납니다.

–오늘 귀한 증언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탄허 스님에 대해서 답변한 말이 너무 적네요.

저는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을 아주 존경하고 흠모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큰스님들의 가르침, 일화 이런 것을 많이 모아서 집대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불교, 스님들의 맥이 다 끊어집니다. 교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응 스님에 대한 작업도 신경 써주세요. 탄허 스님, 운허 스님, 관응 스님은 그 시절 3대 강백으로 이름을 날리던 큰스님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큰스님들이 자꾸 돌아가셔서 큰일 났어요. 우리가 우리 스님들의 흔적과 가르침을 찾고 정리해야 합니다.



대담: 김광식 동국대 교수

(주)예스굿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불탑의 나라 미얀마
아시아나항공(OZ) 수요일 출발!!
마하연 추천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품격	99만원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품격	139만원

■ 대한항공 / 아시아나 항공 미얀마 직항 성지순례

– 황금바위 짜익티오 미얀마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몽유와 / 만달레이 / 헤호	7일	요금문의
(110미터 와불과 38층높이 입불이 모셔진 몽유와 일정)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세계속의 성지순례

• 스리랑카 핵심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와 몰디브 해변 휴양	8일	요금문의
• 베트남 / 캄보디아	6일	요금문의
• 민족의 백두산	5일	요금문의
• 용문석굴과 중국불교의 중심 소림사	5일	요금문의
• 몽고 테를지 울란바토르	5일	요금문의

부산 출발 성지순례

• 양곤 (베트남항공, 타이항공 출발)	5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 태국	5일	요금문의
• 중국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4일	요금문의

마하-연 여행사가 추천하는 품격 성지순례
마하연 추천

• 지장도량 / 관음도량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7일	139만원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4일	99만원
• 관음도량 (보타산 / 낙가산)	4일	109만원
• 문수도량 (오대산 / 석가장)	5일	119만원
• 보현도량 (아미산 / 낙산)	5일	119만원
• 대만	5일	119만원
• 라오스 (직항)	6일	139만원
• 스리랑카 (직항)	6일	199만원

(주) 마하연 투어 ☎02)365-7747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대명빌딩 303호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전문가이드동행
• 별도 추가경비 없음 (가이드+기사, 각국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짜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 여행자보험가입

“따지는 마음만 없다면 마음이 본래 부처”

이번 호부터는 〈전심법요〉에 이어 〈완릉록〉을 연재한다. 둘 다 상공 배휴가 묻고 황벽선사가 대답한 기록인 점은 같다. 다만 전자는 당(唐) 842년에 배휴가 종릉의 관찰사로 일할 때 기록한 것이고, 후자는 6년 뒤인 848년 완릉에서 적은 것이다. 완릉은 안휘성의 성도로서, 양자강 남쪽 구릉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다.

전편에서는 질문자를 ‘배휴’라고 했는데, 여기 후편에서는 ‘상공 배휴’라고 높이고 있다. 이로 미루어 봐서 전자는 배휴가 직접 기록한 것이고,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1〉



범어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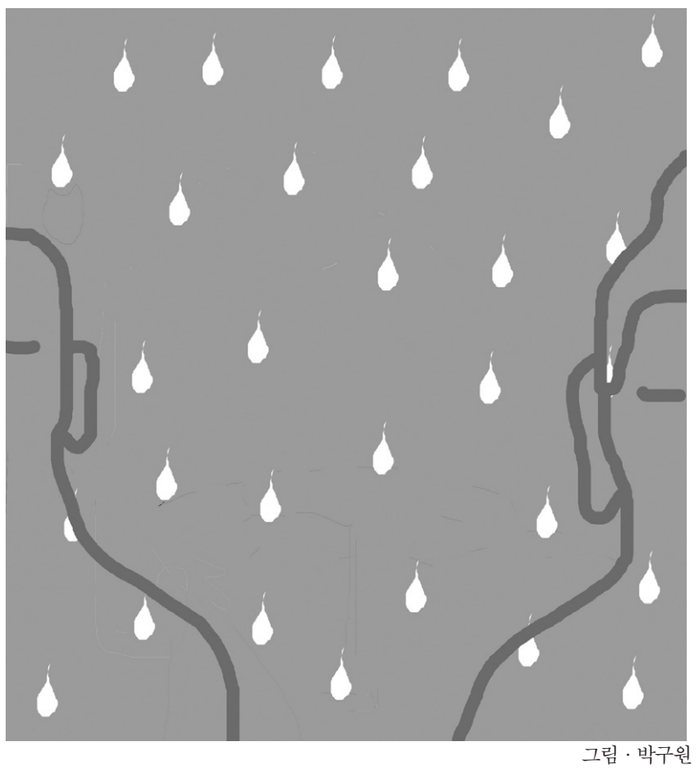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우는아이 달래기 위해서
나뭇잎 돈이라 눈가림 하듯
말 역시 ‘도’ 깨닫게 하는 장치

이름 붙일 수 없는 것들을
억지로 마음이라 부른다
이 마음이 부처요, 무심이 道

‘평상심이 도다’ 곧 무심
눈앞에 다 드러나 있으나
한계 그을 수 없는 ‘평상심’

허공은 마음과 모습같으나
신령스러운 기운이 없다
허공은 법신의 실상 자리와
둘이 아니지만 비유일 뿐

1. 도는 마음의 깨달음에 있다

상공 배휴가 황벽스님께 여쭈었다.

“산중(山中)의 사, 오백 명 대중 가운데서 몇 명이나 스님의 법을 얻었습니까?”

대사가 말씀하셨다.

“법을 얻은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왜냐하면 도는 마음의 깨달음에 있는 것이지, 어찌 언설(言說)에 있겠느냐? 말이란 다만 어린아이를 교화하는데 쓰일 뿐이다.”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해서 나뭇잎을 돈이라고 잠깐 눈가림을 하듯이, 언설도 역시 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장치의 일환일 뿐이다. 그러므로 언설 속에 무슨 뜻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도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다. 언설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언설은 어디까지나 도를 깨닫는 수단에 불과하고,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법을 얻은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는 황벽스님의 말씀에서 가늠할 수 없는 큰 무게감을 느끼게 된다.

2. 무심이 도

배휴가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마음이 곧 부처요, 무심(無心)이 도(道)다.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름 붙일 수 없는 이것을 억지로 ‘마음’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요, 무심이 도다. ‘무심’은 ‘평상심이 도다.’ 하는 입장의 무심을 말한다. 평상심이란 비록 눈앞에 다 드러나 있지만,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한계를 그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자리에는 ‘이거다!’ 하고 꼭 집어서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다.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 본래 마음자리를 우리는 ‘무심’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이것이 마음이다.’ 하고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그렇다고 드러내지 않은 것도 아니다. 조사들은 ‘일체처일체시(一切處一切時)에 몽땅 드러났거늘, 깨달음이 없어 눈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일러준다.

다만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 있고 없고, 길고 짧고, 너와 나, 나아가 주체니 객체니 등의 따지는 마음만 없다면, 마음이 본래로 부처요 부처가 본래 마음이다.

그런 주관과 객관의 상대성이 끊어지기만 하면,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다.

마음은 허공과 같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부처의 참된 법신은 허공과 같다.”고 하였다.

마음도 허공과 같아서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은 인식되어지는 입장을 넘어서 있다. 과거의 허공이나, 현재의 허공이나, 미래의 허공이나 허공의 모습은 조금도 달라진 적이 없다. 마음도 그와 같다. 그런 허공 같은 마음에 이런저런 언설이나 모양을 붙이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다. 실지 허공이나 마음 자체에 무슨 넓고 좁고, 크고 작고, 멀고 가까운 차별이 있을 수 있을까?

한편 이렇게 허공은 겉으로 마음과 똑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마음과 달리 영지(靈知)라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없다. 공적한 모양은 같지만, 허공은 마음과 달리 찬 물을 뿌리면 차가운지 더운지 구별 못한다. 그러나 마음은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고 없음이 결정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허공은 법신의 실상자리와 둘이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비유로서 그 어떤 완벽한 허공도 부처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 부처를 따로 구하려 하지 말라. 구함이 있으면 모두가 고통이다.

다 이 속의 일이니까, 따로 부처를 구하고 말고 할 것이 본래 없다. 사람들은 ‘부처를 깨달아야 된다. 부처가 뭔지 자각해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뭔가를 구해 얻으려고 하는데, 그 한 생각을 먼저 돌이켜야 한다.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 나서다 보면, 점점 더 때를 묻혀서 어지러워진다. 황벽스님은 ‘본래 얻을 것이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해주고 있다.

설사 오랜 세월 동안 육도(六度)만행을 수행하여 부처의 깨달음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구경(究竟)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연의 조작에 속하기 때문이다.

온갖 만행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경열반에 대한 완벽한 입장을 갖추지 못한다. 육도만행이란 것은 만들어진 업에 의해서 끄달려 다니는 허망한 그림자가 이렇게 변하거나 저렇게 변한 모습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변하는 모습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항상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변하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인연의 조작은 유위법으로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꿈, 허깨비, 물거품, 그림자, 아침이슬, 번갯불과 같은 것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㉗



실제로는 열반하지 않고서 언제나 이곳에 머물면서 법을 설하신다. 〈법화경〉

죽음=진실, 삶=방편

나는 지금 일본의 시코쿠(四國)에 와있다. 불교신앙의 입장에서, 시코쿠를 말할 때는 88개 사찰 순례를 빼놓을 수 없다. 진언종의 개조 코우보(弘法)대사 쿠카이(空海)스님과 인연이 있다는 절 88개를, 1번부터 88번까지 번호를 붙여놓고 돌면서 참배하는 것이다. 이 88개 사찰을 순례하는 사람들은, 1년에 약 30만명 정도 된다고 한다.

순례는 1번에서부터 88번으로, 즉 시계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그 역으로 돌 수도 있다.

1번부터 출발하여 88번까지 도는 것이 순리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88번부터 1번으로 “거꾸로 도는 것이 공덕이 더 크다”고 한다. 그 이유는, 거꾸로 돌아야 바로 돌고 있는 코우보 대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코우보 대사의 생몰연대는 774년에서 835년이다. 그러니까 835년에 돌아가신 코우보 대사를 시코쿠의 순례길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만나고자 한다는 이야기다. 이 말의 밑바탕에는, “대사님은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하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신앙은 시코쿠의 순례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코우보 대사의 유골을 모신, 진언종의 총본산 고야산(高野山)에도 있다. 그곳에서는 코우보 대사는 그저 선정에 들어계실 뿐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대개는 835년에 돌아가신 것이 진실인데, 그저 방편으로 “지금도 살아 계시다”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울 것이다. 그렇게 밖에 이해할 수 없을까? 과연, 그것은 타당한 이해일까?

죽음=방편, 삶=진실

그렇지 않다. 죽음 · 열반은 오히려 방편일 뿐이며, 실제로는 언제나 살아있다는 소식(消息)이야말로 진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경전의 하나에, 바로 〈법화경〉 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이 있다. 여래수량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목숨, 생명, 수명이라는 말이다.

부처님의 수명은 얼마인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우에는, 80년을 살고 가셨다. 그렇기에 우리는 80년이 부처님의 수명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법화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나는 정각을 얻은 이후로 무량백천만억아승지겁이 되었다.”

무량백천만억아승지겁이라는 시간은, 가히 무한대의 시간이다. 종교적으로 볼 때는 ‘언제나’이다. 언제나,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각 이후 45년이 지나서, 열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다.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시간이, 바로 ‘언제나’이다.

80년 이전, 즉 태어나기 전에도 부처님은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80년 이후, 즉 열반을 보이신 뒤에도 사실은 존재하고 계신다. 부처님을 육체로 보지 않고 불성(佛性)으로 볼 때, 우리 역시 그러한 인식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 박구원

그러니 835년 이후에도 계속 살아 계시고, 지금도 시코쿠의 88개 사찰을 계속 순례하고 있다는 코우보대사의 이야기는 방편이 아니라 진실이 된다. 835년에 입적하신 것이야말로, 오히려 방편이 아닌가. 코우보 대사의 생명 역시, 부처님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육체가 아니라 불성이기 때문이다.

〈법화경〉의 부처님이나 시코쿠의 코우보 대사님이나 모두 불성생명이고, 그 수명은 무량백천만억겁이다. 나이 역시 동갑(同甲)이다. 그러고 보니, “금년에 아미타부처님의 연세는 어떻게 되시오”라는 어느 선승의 물음에, “나랑 동갑이오”라고 했다는 일본 정토종의 스님 이야기도 떠오른다. 부처님과 우리 중생들 역시 다 동갑이라는 이야기다.

다만 부처님은 그 하나인 생명, 그 무량한 생명을 알고 있으나 우리 중생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어찌 슬픈 일이 아닌가!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공 고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정진과 불법포교에 원력을 세우고 계신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언제나 법향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57년 6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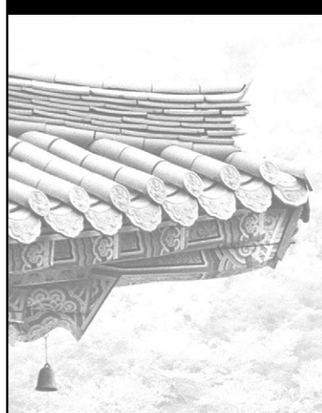
대일불교조계종
호 법 봉 사 단
선원장 구룡 합장

- 호법봉사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 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 락 처 : 053)964-0858
휴 대 폰 : 011-804-1748



스님…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 사찰매매 잔금 대출
◉ 불사 자금 대출
◉ 기타 대출 상담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사찰안내

경북 영덕군 영덕읍 천전리 118-1번지 외
◉ 토 지 1,220평
◉ 대웅전 45평
◉ 요사채 38평
◉ 매매가 7억 5천만원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팀장 장재영 010-4505-7180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이자를 물고 계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33년 역사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으로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010-7314-2522

대출기간 기본5년(연기가능) / 근저당설정비 면제
제주도 포함 전국, 단체명의, 종단사찰 모두 가능 !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차는 항아리에 넣어 견고히 포장”

〈벽해타운첩〉에 수록된 이 편지는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귀한 자료이다. 이 편지에는 초의가 추사에게 보낸 차의 포장법과 추사의 차에 대한 식견을 한눈에 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제주시절,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에는 차를 청하는 걸명(乞茗)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실제 그에게 보낸 초의차의 포장법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례는 그리 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편지에 “(차는)항아리에 넣어 견고하게 싸서 보내십시오”라는 구체적 언급은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셈이다. 아울러 차의 이론에 해박했고, 체득을 통해 얻어진 추사의 식견은 “차를 만든 다음 반드시 덥고 습한 여름에 보내지 마시고, 서늘한 가을을 기다린 후 보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고 한 것에서 드러난다. 이는 한번이라도 오염되면 차의 진성이 사라진다는 초의의 견해와 일치점을 보인 것이라 하겠다.

한편 초의선실로 보낸 이 편지는 벗이 보내준 백목을 받고, 그에 대한 감사를 담담히 드러냈고, 추신(追信)으로, 쓴 편지에는 제주를 왕래하는 선주가 아전의 종용으로 추방의 변고를 겪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 이속들의 횡포가 심했던 당시의 사회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인 셈이다.

초의선실은 바로 일지암이다. 여기에 걸린 ‘일로향실(一爐香室)’이 못내 궁금했던지 편한 인편(妥便: 소치)에게 보낸 편액을 찾았는지 묻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편지는 대략 1844년 봄 이후에 보낸 것이라 추정된다. 편지의 말미에 다시 산이화를 보내달라는 추사의 청이 간절한 이 편지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벽해타운첩

“茶, 서늘한 가을에 보내 주세요”
산이화 다시보내 달라 간절히 부탁

3필이나 되는 백목을 쓸 만큼 보내주셨으니 매우 다행합니다. 시골 어부 편에 보낸 감자와 유자는 모두 썩어버렸습니다. 듣자니 (이 물건이)제주로 도착한 후에 얼마 동안 그냥 지체시켰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섣달 말 쯤 전해질 것이라 하더니 선인들의 일은 탄식할 만합니다. 일로향실 편액은 (편한 인편인)소치에게 보냈는데 찾으셨겠지요. 금년에는 차를 만든 다음 반드시 덥고 습한 여름에 보내지 마시고, 서늘한 가을을 기다린 후 보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차는)항아리에 넣어 견고하게 싸서 보내십시오.

(白木三疋 以可用者得送 甚可幸也 漁樵所付甘藷柚子 盡爲腐敗 聞於入島後 留淹幾時 而始於臘末來傳 船人輩事 可歎可歎 一爐香室扁當覓送於妥便耳 今年則製茶後 必勿付送於炎缸中 待秋凉送之 甚佳甚佳 入於缸中 堅裹送之)

이번에 선주(船主)가 수령에게 쫓겨나게 된 것은 바로 어떤 아전이 종용하여 선주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니 놀랍고 한탄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주와 해당 이속이 얽힌 일은 본영의 관리가 엄히 다스려 바로 (이들을)내보낼 것이니 보낸 편지를 해당 아전과 선주에게 찾으세요. 사중에서 찾으려 할 때에 혹 공갈과 협박하는 일이 있다면 일체 그들에게 동요되지 마시고, 혹 협박한 단서가 있으면 다시 이곳으로 상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령은 즉 이런 무리들과 똑같지 않을 것이니 제주로 보내는 일은 추후에 다시 도모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차 봉지는 절대로 습한 때에 황급히 보내지 않는 것이 어떻습니까. 산이화는 다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번에 보낸 산이화가 너무 적습니다. 반드시 두 량이 되어야 쓸 수 있는데, 설령 두 량이 안된다하더라도 이어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今番船主之逐送正軒直緣一吏屬之慫恿船主之致 不勝惋痛 故 船主與該吏往復營本官 使之嚴治 仍即出去 覓納書簡 該吏與船主 似當來覓於寺中 而或有恐喝威脅之弊 切勿爲渠輩動搖 若或有作弊之端 更爲詳報於此中爲可 正軒則不可與此輩眼同 入送追後圖之 無妨耳 茶封切勿遽付於瘴濕之時 如何 辛夷則更圖得送 爲望 前付者太少 必爲二兩重 可以入用 雖不及二兩 隨有得送 是企是企)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법어가 담긴

도자기 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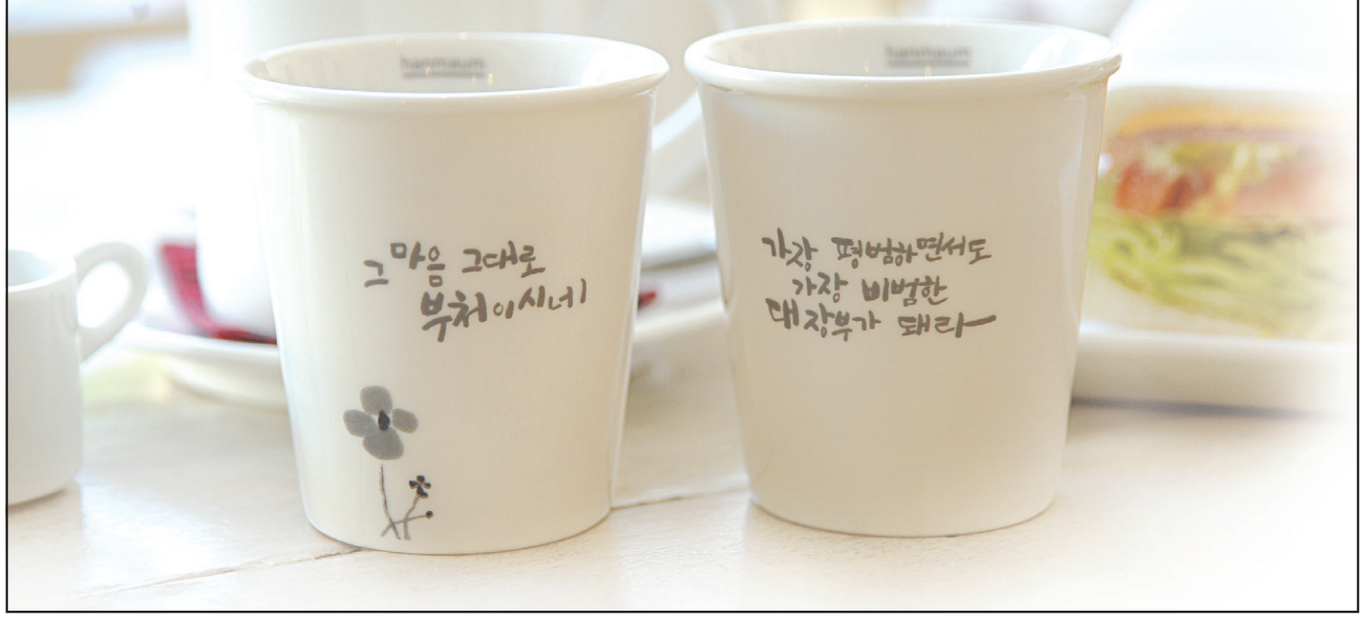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류	컵법어내용	판매가
Aset	마음+대장부	9,000원
Bset	마음+마음	9,000원
Cset	대장부+대장부	9,000원

● 컵 낱개 5,000원 (택배비 별도)
● 2세트 9,000원 (택배비 별도)
● 3세트 27,000원 택배비 무료 !!

▷ 법어내용 ◁
1. 마 음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北 아이들도 아침밥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애경 보살 (정토회 평화재단 자원활동가)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며, 미움과 갈등, 원망을 해소하기 위해 7천만 민족을 대신해 참회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염원하며, 소비와 소유를 위한 욕망과 어리석음을 해소하기 위해 뭇 생명을 대신해 참회합니다”

정토회 평화재단 자원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유애경 보살이 매주 월요일 새벽 임진각에서 1시간씩 절기도를 하며 읽는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참회정진’ 발원문이다. 그녀가 이렇게 매주 임진각으로 향하는 이유는 뭘까? 대한민국이라는 분단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 그녀의 기도가 던져주는 의미는 뭘까?

평화통일을 위한 간절한 기도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결국 남북 관계가 안 좋으니 이렇게 젊은 장병들이 죽는구나. 오랫동안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불교사회운동을 해왔는데 또다시 남북관계가 나빠진 것을 보고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친 병사들과 유가족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었죠”

2011년 12월 그녀의 ‘평화통일 기원’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제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었어요. 그래서 법륜 스님께 기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는 일주일만 할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광화문에서 기도를 시작했죠.”

영하 18도의 날씨에 그녀는 광화문으로 나섰다. 어떤 도반은 도시락을 싸다 주었고 어떤 이는 옷을 가져다주기도 했고 누군가는 운전을 못하는 그녀를 위해 차를 태워주기도 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그녀는 광화문 광장에서 평화를 위한 정진을 했다. “계속 절하면 안 추워요.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잖아요. 부처님은 고행도 하셨는데 그 정도야 괜찮아요” 춥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녀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답한다. 그 미소는 세상의 아픔을 다 녹이고도 남을 것 같이 평화롭고도 넉넉했다.

그녀의 기도는 일주일을 넘어 연말까지 이어졌고 이후 2012년 청와대 앞에서도 3일간 만배 정진, 또다시 광화문 21일간 철야정진에 이어 임진각에서 6.25희생자들을 위한 천도재 및 300배 정진과 평화명상 등을 이어왔다. 그리고 2012년 7월 첫주부터 매주 월요일 임진각 새벽기도를 정기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그녀가 이렇게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굶어죽어가는 북한 어린이들 때문이다.

“저는 북한아이들의 부모 입장이 되어 참회를 해요. 만약 내 아이가 굶어죽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아이들이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좀더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더 나아가 평화통일이 된다면 최소한 아이들이 밥은 굶지 않을 거 아니예요”

너무 추울 때는 화장실에서 몸을 녹여야 했고 왜 북한을 돕냐는 비난도 받아야 했지만 그녀는 얻은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전한다. “제가 기도를 시작하니 이제는 김제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의 도반들이 같이 와 기도를 해주고 격려해줘요. 많은 도반들이 릴레이 기도로 동참을 해주기도 하고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음식이며 옷도 챙겨주셨죠”

평범한 군무원이 거리로 나온 까닭은?

그녀는 96년전까지만 해도 마산국군병원 군무원으로 일하는 직장인이었고 한 가정의 엄마이자 아내로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 이런 그녀가 통일운동에 나서게 된 것은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과의 만남이었다. 당시 그녀는 불교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에 정토회 부산동래법당으로 불교대학을 다녔다.

“법륜 스님께서 법문을 오셨는데 북한 어린이들이 전부 굶어죽고 있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너무 슬퍼서 같이 울었어요. 그때 마침 우수공무원에게 주는 특별 상려금이 46만원을 받았을 때라 보시금으로 3만원을 낼까 5만원을 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스님의 법문을 듣고 23만원을 보시했어요.”

다음날 출근을 해 직장 군법당(마산국군병원)에서 삼배를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났다. 그녀는 북한 어린이들을 더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다. 내성적이었던 그녀가 탁발에 나서게 된 것은 그때부터였다.

“군의관들을 찾아가고 선후배를 찾아가면서 돈을 모았어요. 처음하는 일이라 쑥스럽기도 했지만 ‘나는 다만 할 뿐이다’라고 스스로 되뇌였죠.” 이후 마산국군병원 군법당을 다니며 알았던 스님들의 인연으로 인근의 절을 찾아 다녔다.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창원 성주사남해 보리암, 지리산 법계사, 남해 보리암 등을 돌며 모금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알던 스님들이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특히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지원장 혜보 스님은 사찰 모금활동을 하게 해주시는 것은 물론 저한테 어느날은 100만원을 주시면서 오늘은 모금 나가지 말고 쉬라고 격려도 해주셨어요. 그 후에도 여러번 큰 돈을 보시해주셨죠”

그러던 어느날 성주사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일을 사찰 안에서 하지 말고 좀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는 조언을 듣게 된다. 그녀 역시 그것이 맞겠다 싶어 모금통을 들고 마산역으로 나가 북한 아이들을 도와달라고 외쳤다. 돈을 쥐어주면서 여관에 같이 가자는 취객부터 용돈을 털어주는 아이들까지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그녀는 또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다.

1996년부터 마산역 등에서
북한 어린이 돕기 거리모금
“비난도 많이 받았고 3만원 주며
여관 가자는 취객도 만났지만
고마운 사람 훨씬 더 많았죠.”

연평도 사태 이후 민족통일 염원하며
영하 18도 거리서 생명 평화 기도
요즘도 매주 월요일 새벽 임진각서

“처음 마산역으로 모금을 나갔는데 어떤 술취한 남자를 만났어요. 3만원을 줄테니 여관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기분이 나빴죠. 하지만 북한 여자들을 생각하며 한순간 돌이키게 됐어요. 그쪽 여자들이라면 어땠을까? 자식들이 굶어죽어가면 몸이라도 팔아서 애들 살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나야 그 돈 안 받고 여관 안 가면 되지만 그들은 굶어죽지 않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모금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도와줄 것이다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별심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호소했다. 그러니 100원 200원도 털어서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가니 또 도와주는 사람이 생긴 것이다.

처음에는 모금함을 들고 다니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숨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용기가 생겼고 북한의 상황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분단으로 인해 빚어지는 국가적인 손실이 너무 안타까웠다. 특히 2001년 떠난 동북아역사기행에서 압록강변서 북한의 민둥산을 보고는 너무 가슴이 아팠던 그녀는 ‘먹고 살기 위해 저 꼭대기까지 나무를 뽑고 밭을 만들었을 땐 느 오죽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비난도 칭찬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았다

그녀는 2002년 직장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모금활



유애경 보살은 매주 월요일 새벽 임진각에서 생명평화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2012년 겨울, 기도를 마치고 도반들과의 기념촬영(사진 왼쪽 세 번째가 유애경 보살).



유애경 보살은 … 1959년 경남 함안 칠원 출생으로 마산여고를 졸업하고 1980년도부터 마산 국군병원 군무원으로 일했다. 96년부터 정토회 JTS 평화재단 좋은벗들 등에서 자원활동가로 활동하며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창원 성주사, 남해 보리암, 지리산 법계사 등 사찰은 물론 마산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북한어린이 돕기 모금활동을 펼쳐왔다.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임진각에서 매주 월요일 민족통일과 평화를 기원하는 참회정진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동 등을 포함한 불교사회운동에 나선다. 하지만 이런 유 보살의 행동은 가족 친지 친구 그리고 거리의 시민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 가장 반발이 심했던 건 남편이었다. "남편은 나가지 말라고 철사줄로 제 손을 꽁꽁묶어 놓기도 했어요. 물론 제가 차근차근 풀고 밖으로 나갔죠(웃음). 자식들에게도 네 엄마랑 이혼할 거라는 얘기까지 했대요. 그런데 아들이 엄마가 나쁜일 하는 거 아니지 않냐며 남편을 설득했대요. 저는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했죠. 아들은 제가 높은 사람 되는 것보다 거리에서 모금할 때가 제일 빛난대요. 지금 남편은 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죠. 제가 복이 너무 많아요."

이뿐만이 아니다. 6.25참전용사였던 시아버지와 시작은아버지도 그녀의 후원자로 만들었다. 북한을 돕는 그녀의 행동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북한의 사정을 잘 설명하고 이 모금이 왜 필요한지를 간절히 이야기하니 명절 때마다 5천원씩 그녀의 모금함에 돈을 넣어주고 있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해를 받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이해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북한을 돕는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남북 관계가 나빠지기라도 하면 북한 어린이를 돕는 그녀를 욕하는 사람들도 늘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았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이 났을 때 당시의 어려움을 그녀는 이렇게 토로한다.

"그때 북한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의원을 하는 남편 친구를 찾아가 도와달라고 했죠. 그분은 적십자 회원인지라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마음이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집에 가서 식구들 밥이나 해주라고 호통을 치더라고요. 적십자 회원까지 이렇게 나오니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산 오동도 문화의 거리에서 모금함을 놓고 밤 11시에서 새벽 4시까지 21일간 철야정진을 하며 모금을 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도 하고 왜 북한을 도와주냐고 따지기도 하고 반발이 심했지만 그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정진을 이어나갔다. 그녀에게는 오직 북한의 굶는 아이들을 살려야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녀를 비난하는 사람보다는 배고픈 아이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밤이다 보니 술집 아가씨들도 퇴근하면서 돈을 넣어주었고 술 먹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모금통에 돈을 넣어 주었죠. 간절히 기도하다보니 21일만에 200만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은 21일 기도 마지막 날에 저를 말렸던 남편 친구인 한의사가 만원을 넣어주고 지나갔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역시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니 사람들이 마음을 내어 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할 뿐이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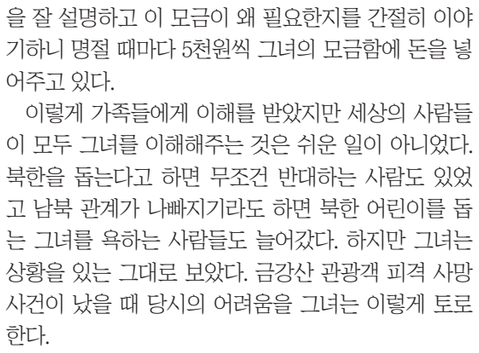
그녀는 이렇게 거리모금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고 또 배웠다고 한다. "저는 부족한 게 많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북한 어린이를 돕고자 모금을 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를 하고자 마음을 내면 주변에서 다 도와줘요. 세상에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어 가능한 일이죠"

지식으로 배운 불교의 연기법을 거리에서 몸으로 체득했다고 말하는 유애경 보살. "불교의 오계에서는 불살생을 첫째로 꼽는 이유는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다는 말이잖아요. 생명의 소중함 앞에서는 이념도 지식도 남북도 없어요. 간절히 그 뜻을 알리면 남이 사는 일이 곧 내가 사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일체중생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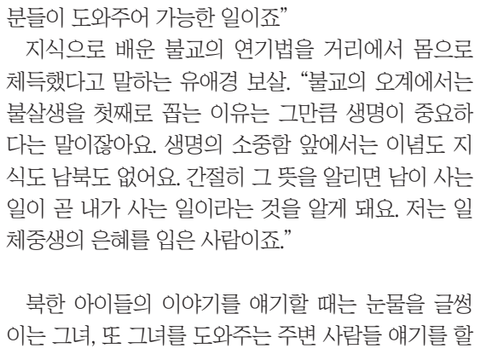
북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얘기할 때는 눈물을 글썽이는 그녀, 또 그녀를 도와주는 주변 사람들 얘기를 할 때는 그 누구보다 환한 미소를 지어주는 유 보살은 존재 자체만으로 가슴을 찡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 세상에 나투시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현재 북한을 위한 민간지원도 다 끊긴 상태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 하지만 그녀는 이제 남북 관계가 호전 되었을 때를 대비해 다시 전국을 다니며 거리 모금을 해나갈 생각이다. 우리가 양껏 차린 음식을 먹고 남길 때 또 남북이 서로를 탓하며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을 때도 북한의 아이들은 또 주민들은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단순히 북한을 적으로 보며 혹은 귀찮은 존재로 보며 그들을 비난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동반자로 여기며 함께 미래를 도모할 방법을 구할 것인가? 유애경 보살의 기도는 우리의 작은 실천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2008년 금강산관광객 피격사망사건 이후 남북 관계가 악화되자 마산 오동도문화의 거리에서 21일간 철야정진을 했다.



2006년 8월 15일 북한 홍수 피해를 위한 JTS모금캠페인 후 마산 · 진주 JTS 회원들과 기념 촬영

전법일기

"불교적 인성 교육, 진짜 불사"

어린이 · 청소년 법회(2)

일요일이 되면 우리절엔 사람들이 북적거린다. 신도 20~30명, 어린이와 청소년, 교사와 보조교사 50~70명이 그다지 넓지 않은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

오전 10시, 승합차에서 내린 아이들은 법당에 들어간다. 이미 자리잡은 어른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빈자리에서 부처님께 절을 올린다. 저희들끼리 킥킥거리며 장난치는 아이들도 있지만 조그마한 손을 예쁘게 모으고 진지하게 절을 하는 아이들도 있다. 신도들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들을 바라본다. 처음엔 아이들이 시끄럽다고 꾸짖던 노보살님들도 지금은 별로 불편해 하지 않는다.

어린이법회를 2년간 꾸준히 했더니 지금은 중고등학생도 제법 된다. 첫해에 6학년이었던 아이들이 그새 중학교 2학년이 되었고, 고등학생들도 드문드문 눈에 띈다. 대학생들은 무조건 보조교사다.

오랜만에 오는 신도나 다른 절 불자들은 어린이와 젊은이가 많은 걸 보고 놀란다. 어떤 불자는 "다른 절은 경로당처럼 조용한데 우리절은 활기가 넘친다"고 자랑스러워한다.

우리절에서 법회를 하는 이유는 불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인성교육이 목적이다. 사실 요즘 아이들을 유심히 지켜보면 상당히 우려스럽다. 아직은 철없이 뛰어놀아야 할 때인데도 아이들을 어른들이 너무 일찍 경쟁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 결과 아이들의 정서가 피폐해져서 어린 나이임에도 범죄에 노출되거나 심지어 초등학생이 자살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림 · 박구원

다른 절 경로당처럼 조용한데
청소년 위한 프로그램 마련
활기 넘치는 법당 '흐뭇'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옛 어른들의 지혜를 접한 아이들은 그런 문제를 스스로 극복해 갈 것으로 믿는다.

불교적 인성교육을 시키려면 아이들이 절에 와야 하고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뛰어나고 좋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인가.

우리절 법회에서는 지금까지 요리, 기타, 가야금, 네일 아트, 리본 공예, 풍선 공예, 민화 그리기, 배드민턴, 농구, 축구 등을 해왔다. 계절에 따라, 교사 사정에 따라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씩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아이들은 각자의 취미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아이들의 꾸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 달에 한두 번은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 달간 결석없는 아이를 대상으로, 경주 남산이나 놀이동산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래프팅 · 4륜바이크 · 미술관 등 주요시설에 견학을 가거나 피자집이나 대형서점에 데리고 가 음식이나 책을 사주기도 한다.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재미를 최우선에 둔다.

향산 거사는 말한다. "우리절은 크게 일어날 겁니다. 이 아이들이 크는 건 잠시거든요. 이 아이들을 꾸준히 절에 오게 한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절에 오게 될 것이고, 우리절이 커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진산 거사도 말한다. "절에서 아이들 법회를 하지 않으면 불교 곧 망합니다. 불자를 길러내는 불사가 진짜 불사입니다."

하지만 이 불사에 동참하는 사람은 적고 무관심한 불자는 많다. 그렇거나 말거나 나는 어린이 · 청소년법회를 꾸준히 할 것이고 더 키울 수 있도록 갖가지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3년 반이나 기다린 소중한 인연이므로.



한북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大) (小)
(인등용 LED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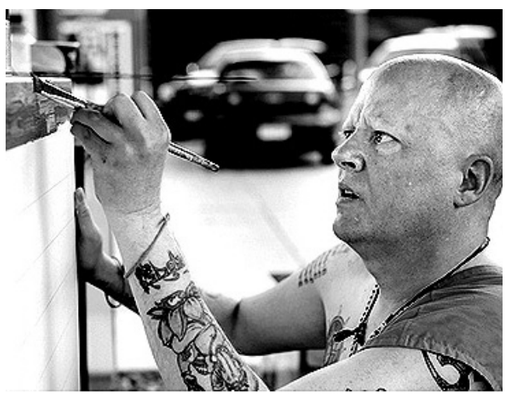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 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도장 새기고 벽화 그리고… 포교 효과 '톡톡'

'스님' 만이 그릴 수 있는 독특한 그림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부 로스 스님.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작품 속에 연기의 세계를 담으려고 한다. 옆 사진은 드래곤 볼의 등장인물이 좌선하고 있는 모습.




니가타현 오지야에 있는 고쿠라쿠지사 코준 아사다 스님이 지우개 조각을 하고 있다. 옆 사진은 스님이 섬세하게 조각한 지우개 도장.

美 · 日서 재능기부로 포교하는 스님들 화제

"가부좌 튼 만화 주인공 등 톡톡튀는 그림으로 사회공헌"
"지진 피해자에 조각품 나눠줘 20~30대 여성에 인기"

스님들의 재기발랄함이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미국 로체스터에 거주하는 부 로스(Boo Roth) 스님과 일본 니가타현에 위치한 고쿠라쿠지사의 코준 아사다(Kojun Asada) 스님이 그 주인공. 두 스님은 모두 이전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포교현장에 나선다. 손에 칼을 들거나 붓을 든 채로 말이다.

부처 모습과 만트라로 몸에 문신을 새긴 부 로스 스님은 외양부터 범상치 않다. 법의만 아니었다면 영락없이 '머리 민 록가수'다. 때문에 별명도 메탈 스님(full metal monk). 이미 지역 내에서는 유명인사지만 외양 때문만은 아니다. 로체스터 시내 곳곳에 그려진 스님의 그림 때문이다. 전기변압기에 그려진 아이언맨 혹은 가부좌를 튼 피콜로(만화 '드래곤볼'의 등장인물로 악의 상징)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도 남는다. 의자, 수돗가 등 공공시설물에 재미있는 그림으로 '재능기부'를 하는 것이다.

덕분에 로체스터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물론 지금은 텍사스 주 오스틴까지 날아가 아트워크 페스티벌에 참여해 도시를 다채롭게 꾸며주고 있다.

스님의 작업이 의미있는 건 사람들이 그 과정을 함께 한다는 데 있다. 벽에 스케치를 해 놓고 색을 조금 입혀두면 나머지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의 몫이다. 저마다의 스타일로 붓을 들어 전체작품을 이뤄가는 것이다. 화엄의 세계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절에는 찾아오지도 않았을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할 기회도 갖지 못했을 것"이라는 로스 스님은 "공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스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렇게 로스 스님은 사람들에게 창의적일 수 있는 '기회 제공의 보시'를 하는 반면 아사다 스님은 지우개 도장 보시를 통해 사람들과의 거리를 좁힌다. 부처모습을 직접 지우개에 조각해 도장처럼 만든 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이다.

불교가 낯선 이들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다가가고자 직접 조각 책을 보며 기술을 습득했다는 스님은 지우개 도장이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확신한다. 2011년 일본 지진 당시 미야기현을 찾았던 스님은 집과 재산을 잃은 이들에게 더 이상 위로의 말이 필요치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미 너무 많은 이들이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를 건넸던 것. 스님은 대신 섬세하게 조각한 부처 도장을 내밀었고 그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었다.

"우리가 나눈 건 작은 대화였지만 그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지우개가 마음과 감정을 열어준 셈이죠."

아사다 스님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작년부터 스님은 지우개 조각가 토모코 츠쿠미씨와 함께 '제행무상'이라는 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토모코씨에게 지우개 조각을 배우며 아사다 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 대부분은 20~30대 젊은 여성들. 그들은 "지우개를 조각하며 사경을 할 때처럼 마음이 잔잔해짐을 느낀다"고 했다. 아사다 스님은 "지우개 조각이 절과 사람을 잇는 가교역할을 했다"며 "신도를 늘리기 위해 고민하는 많은 스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재능을 백분 활용해 불법을 격의 없이 전하는 두 스님의 포교는 백천 방편으로 세상에 나투는 보살의 모습을 닮았다. 사회 회향을 위해 고정관념의 틀을 한 꺼풀 벗어낸 모양새가 홀가분하기 그지없다.

배현진 수습기자

美 스리랑카 절, 벽안의 신행요람

스리랑카 이민자 불교사원, 10년 후 미국인들이 주류로

지난달 28일 개원 10주년을 맞은 미국 인디애나 웨인 항구 인근 스리랑카 불교사원이 화제다.

저널가제트(Journalgazette) 지는 7월 1일 "2004년 개원 당시 스리랑카 이민자들의 사원이었던 인디애나 불교사원(Indiana Buddhist Temple)이 10년이 지난 지금 벽안 불자들의 사원이 되었다"고 전하고, "벽안 불자들이 주류를 이룬 인디애나 불교사원은 명실 공히 미국 불교계의 일원이 된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사원은 종교를 떠나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며, 누구에게나 불교의 명상과 수행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곳"이라는 타렌가마 데반안다(Thalangama Devananda · 인디애나 불교사원 원장) 스님은 "그러한 노력이 10년간 이어지면, 벽안의 불자들이 스리랑카 이민자 불자들의 수를 앞지르기 시작했다"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미국인 청 · 장년층이 사원의 주류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인디애나 불교사원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한다"고 말했다.

저널가제트 지에 따르면 인디애나 불교사원은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공개 명상 클래스'를 진행하며 불교의 대중화를 꾀하는 한편 휴가철 동안 명상을 워크숍이나 명상캠프 등을 개최, 불교도들의 불교소양의 깊이를 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역법회를 봉행해 지역불자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일대일 명상 세션'도 운영해 벽안의 법사를 양성하는 데에도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처음 사원을 열었을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수계를 하고, 성실한 불교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꿈꾸었다"는 시시라 라나싱히(Sisira Ranasinghe) 법사는 "10년간 그 꿈을 실현하려는 크고 작은 노력이 쌓여서, 지금의 마이애미 불교사원이 되었다"며 "최근 호글랜드(Hoagland) 웨인 항구의 톰슨로(Thompson Road) 변 1000㎡ 부지로 사원을 이전, 과거보다 신행 여건이 좋아진 만큼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04년 마이애미 불교사원 개원에 산파 역할을 도맡아 했다.

2009년부터 마이애미 불교사원을 다녔다는 밥 린스(Bob Rynes · 48) 씨는 "4년 전 처음 사원에서 명상을 했을 때 겨우 십여 명이 서 있을 정도의 규모였다"며 "이제 1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시에 사원에 모여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며 "평온함은 사원의 불자들의 신행력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10년간 사원을 지킨 불자들이야 말로 마이애미 불교사원의 보배"라고 말한 반테 푼야시리(Bhante Punyasiri) 스님은 "지역 불교계는 항상 지역 주민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또 사원의 불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등에 집중하고 있다"며 "불교사원의 가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때 그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애미 불교사원의 10주년 기념식 증명법사로 초빙된 반테 푼야시리 스님은 LA에서 마이트리 비나라 명상센터(Maithree Vinara Buddhist Meditation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4년 개원 1주년 기념식장을 찾은 게 계기가 되어 불자의 길을 걷고 있는 레이 가벳(Ray Gabet · 42) 씨는 "9년 전 개원 1주년 기념식장을 찾을 때는 단순히 호기심이었다면 지금은 신념이다"라며 "모든 인격을 존중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유익한 가치관"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10년 전 스리랑카 이민자를 위해 세워졌던 스리랑카 불교사원은 현재 미국 현지인과 외국인들이 찾는 사찰로 변모했다.

"사찰 방문하면 평온 찾아… 경기마다 최고의 집중력 발휘해"

세계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 윔블던 대회 중 사찰 찾아

영국 윔블던 올잉글랜드클럽(All England Club)에서 진행되는 '2013 윔블던 테니스 남자 개인전'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세계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Novak Djokovic · 26 · 세르비아) 선수가 대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인근 사찰을 찾고 있다고 슈퍼스포츠(Super Sport) 지가 7월 3일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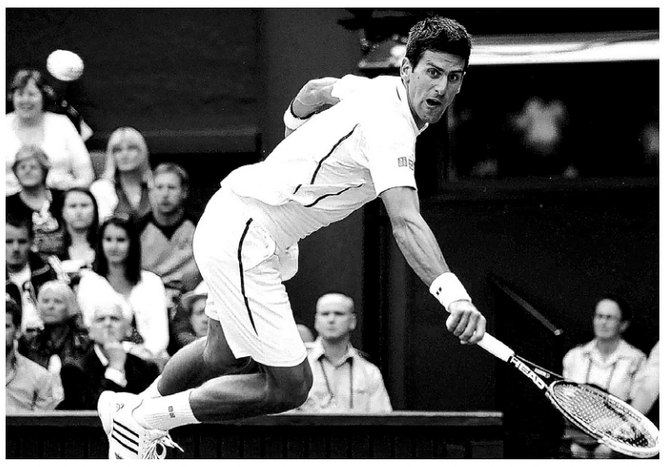
"아름다운 공원과 자연이 어우러진 윔블던은 아름다운 곳"이라는 조코비치 선수는 "그러나 장기간의 대회에 집중해야 하는 선수는 내면의 안정을 찾으며 심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찰에는 내가 찾고자 하는 평온이 있고, 그것은 매 경기마다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대회 기간 동안 자신의 여자 친구 제레나 리스틱(Jelena Ristic)과 코칭 스텝 등이 함께 지낼 집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그가 방문하는 사찰은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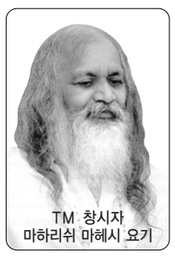
슈퍼스포츠 지는 조코비치 선수의 말을 인용, "윔블던 테니스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어서 사찰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다"고 전하고, "그의 조국 세르비아의 주요 종교가 정통 기독교와 불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조코비치 선수가 사찰을 찾는 게 낯선 모습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코비치 선수는 앤디 머레이(세계랭킹 2위 · 영국)와의 결승전 맞대결을 위해 도전하고 있다"고 전한 슈퍼스포츠 지는 "그는 2일 영국 윔블던 올잉글랜드클럽에서 열린 8강전에서 토마시 베르디흐(세계랭킹 6위 · 체코)를 3-0(7-6 6-4 6-3)으로 눌렀다"며 "이번 대회 1회전부터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있는 조코비치는 2010년 윔블던부터 13회 연속 메이저대회 4강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인 노박 조코비치는 영국 윔블던 올잉글랜드클럽(All England Club)에서 진행되는 '2013 윔블던 테니스 남자 개인전'의 바쁜일정 속에서도 사찰을 찾고있다.


TM 창시자 마하리쉬 마헤시 요기

가장 쉽고 빠른 힐링과 깨달음!

20분 새에 잠보다 2~3배 깊은 휴식으로 피로 스트레스 신속해소, 원기회복하는 자가치유 비법

KBS(마음,생로병사의 비밀), CNN, TIME지 등에 소개

www.tm-korea.org

초월명상(TM) 강연회

하버드 대학, 일본 노동성 등 세계 200여 연구소 효과 입증

고혈압 · 심장병 · 우울증 · 불면 · 대사증후군 해소

불안, 노이로제, 강박증 해소 / 지능, 이해력, 집중력 증가, 대인관계 개선 / 당뇨 비만 개선 / 두뇌개발, 창의력, 학습력 증진 / 흡연, 음주, 분노, 습관 개선 / 암사망률 감소 / 창조경영 / 마음의 평화, 삼매경 체험 / 자아완성(깨달음)

'저는 하루 두번 20분씩 TM이라는 보약을 복용합니다.'
- 오프라 윈프리, 미국 최고 여성부호, 방송인

때 : 매주 월요일 14시 30분. 목요일 19시 30분
곳 : 한국초월명상원 (서울 강동구 천호1동 4-2 세일빌딩 601호)
(명일역 1번출구, 사거리에서 우회전 250m, 강동삼성한의원 건물 6층)

참가비 : 첫 강의 참가비 2만원 (관련서적 증정)

문 의 서울 598-3152 / 010-7443-1296
(기업 및 지방 출장 강연 환영)

▶ 미국 6천여 의사 실시 및 최고 건강법으로 권유!
▶ 일본 150여 기업 등 세계 유수 기업들 도입!
▶ 세계 1천여 학교에서 시행, 초우수 학력, 학교폭력 근절!

손기원 박사와 신명나는

여름 청소년 지혜인 캠프

집중력

집중력 High 5 프로그램

집중력 향상 (목표의식+명상+만점 자세)
+인성+자기주도학습+자신감+힐링캠프

▶ 대상 :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 21기 : 7.20~7.24 / 22기 : 7.29~8.2 (5일 과정)
단체복, 수료증 (특목고 / 입학사정관제 활용)

☞ 문의: 02-766-9455 www.onwisdom.com

지혜경영연구소
서울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340호

조상 제사 잘 모시는 방법

효과적으로 잘 지내는 방법
즐겁게 가족이 잘 지내는 방법
제사를 잘 모셔야 행복함

우울증, 알콜중독, 비만 악몽 가위눌림
대학입시기도, 사업성공
치매, 암 중풍 예방 기도

조상영가 태아영가천도
조상숭배 실천대회
조상님 산소 잡초 잡목제거

여름방학 수련회 (3박 4일) 상담환영

촛불을 잘 밝혀야 기도가 잘 됨
010-3815-7162 (소원양초 주문환영)

천부경 수맥탐지특강

풍수지리 정 태 철
010-2797-1633

부산 - 제주, 부산 - 일본오사카
수륙천도재 하실 분 상담환영

대불정능엄신주 인터넷 : 꿈바위 불교교육원 검색

지역사회 활동할 분 특별기도

가정집에서 포교활동 하실 분

노인 점심식사 자원봉사자 모집
가족이 함께 후원하실 분

쌀, 라면 보시자는 기도해 드림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대전 · 서울 · 부산 · 대구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社團法人 세계불교법왕청 정식 출범

임시 중앙 정부 첫 국외 활동으로 미얀마 연방 승가회 교류 방문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일정)
종정 닥터 우 꾸마라, 바고 총리, 부서 장관 등 면담 / 부처님 성발사리, 치아사리 임시 법왕청사로 이운
법왕청 산하 소속 종단 및 불교단체 등록 – 총연합협의회



▶ 6월 14일 : 부처님 치아사리
(우 미인 아웅 전 종교성 장관 / 종교성)

(사) 세계불교법왕청 임시 중앙정부 출범

세계불교법왕청의 세계 법왕추대 위원장 목탁스님은 법왕청 정식출범의 첫 행보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미얀마를 방문했다. 미얀마 연방 승가회 회장스님(닥터 우 꾸마라 종정) 친견 및 바고 총리를 비롯하여 6개부서 장관들과의 양국 불교의 상호교류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세계불교법왕청의 행보와 교류에 대해 많은 논의를 가졌다.

특히 미얀마 연방승가회 회장(종정 닥터 우 꾸마라) 큰스님 친견 때에는 격려와 찬사의 말씀을 주시며 더욱더 분발하고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사바세계에 나투시기 조차 어려운 성스러운 성보 부처님의 성발과 중국 불교회 주관으로 중국전역에서의 친견법회와 미얀마 정부의 주관 하에 2번에 걸쳐 전국 친견법회를 봉행하였던 부처님 치아사리를 목탁스님에게 내려 주셨다. 2500여년이 넘어 우리에게 오신 성스러운 부처님 성발과 치아사리는 前 미얀마 종교성 장관의 배려로 감당하기 힘든 희열과 감격속에 여법히 한국으로 이운하여 임시 법왕청사에 봉안하였다.



▶ 6월 14일 : 2500여년 만에 나투신
성스러운 부처님 성발사리



▶ 6월 14일 : 부처님 성발사리 이운
(종정 우 꾸마라)



▶ 6월 11일 : 네피도 종교성 청사에서
장관 (U SANN SINT)미팅



▶ 6월 13일 : 바고 종교성 총리 면담 (총리실)



▶ 6월 11일 : 네피도 문화부 청사
장관 (U AYE MYINT KYU)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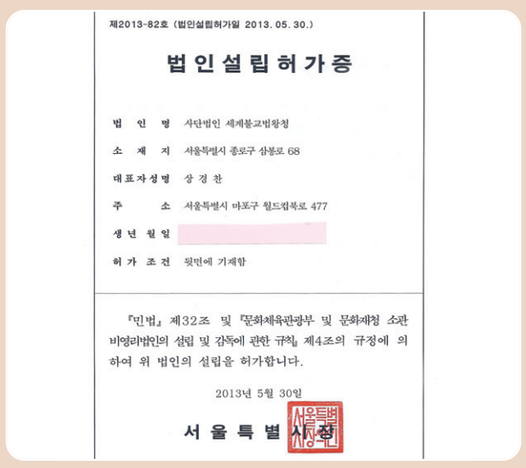
▶ 6월 12일 : 네피도 관광부청사에서 장관
(U HTAY AUNG)미팅



▶ 6월 13일 : 미얀마불교수호협회회장 (U KHINSHWE)
미팅(전경련회장및 현국회의원)



▶ 6월 13일 : 쉐모도 파고다 접견실



▶ 세계불교법왕청 설립허가증

(사)세계불교법왕청은 법왕청 정식 출범 이후 최초의 내각 구성을 일부 완료한 후 올해 10월 9일 대내외 공식 선포식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숨결과 호흡이 존재하는 부처님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 큰스님들 이 역시 그분이라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불교의 최고의 어른을 선정하여 추대 하고자 **법 왕 청** 을 설립 하였습니다.

세계 불교 지도자들은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지구촌 중생 교화, 교육, 중생구제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법왕 및 승왕을 추대 옹립한 이후 각 불교국 나라의 대표자 대승정, 승정을 임명하여 법왕청을 중심으로 세계 불교인들의 체계적 조직을 이룰 것입니다. 큰스님들께서 직접적인 동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세계불교를 움직이는 인물 고승 및 대종사 법왕청 내각 임명자
세계불교 고승단 1080명 인명 대사전 (1인 A4용지 분량 크기로 등재하며 비용 일체 없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鐸 – 慧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02)733-5671

“사는 일 눈물나면 마음밭 꽃씨 심어요”

심진 스님 11년만에 4집 ‘구도의 길’ 발매


노래로 포교하는 심진 스님

사는 일 눈물나면 피는 꽃을 보아요/ 꽃들이 지는 것 두려워 피는가/ 누구도 후회 없이 이룬생은 없나니/ 눈물은 꽃잎처럼 발아래 뿌리고/ 마음밭 무성하게 꽃씨를 심어요

사는일 눈물나면 中

심진 스님(봉선사 기획국장)이 11년 만에 4집 앨범 ‘구도의 길’을 내놓았다. 이번 앨범에서 스님은 황청원 고규태 시인 등의 시에 곡을 붙인 12곡을 국악창작곡으로 담아냈다. 심진 스님은 7월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곡소개와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16살에 출가해 스님으로 살고 있으니 저는 수행자이지 가수는 아니에요. 한번도 가수라고 생각하고 노래를 한 적은 없죠. 노래가 좋아 노래를 부르다 보니 앨범을 3장을 냈더라고요. 다 내려놓고 고담사에서 9년을 살았는데 거기서 나오니 다시 노래가 부르고 싶어졌어요. 이 노래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포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앨범에는 1집 때부터 함께 활동 해온 황청원 시인이 병중에도 가사를 써주었다고 한다. ‘사는 일 눈물 나면’ ‘무상’ 등 구도의 과정을 담은 노래도 있지만 고규태 시인의 시를 노래로 만든 ‘소녀 아리랑’은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노래다.

봉숭아꽃 꽃잎 따서 손톱 곱게 물들이던/ 내 어릴 적 열두살 그 꿈은 어디갔나 …오늘도 아리랑 눈물 솟는 소녀 아리랑/ 내 꿈을 돌려주오 내 청춘을 돌려주오

스님은 “노래를 통해 청춘을 잃고 역사의 희생자가 된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그려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한다.

중앙승가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스님은 이번 앨범 출시를 계기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펼치고자 한다.

“이 노래가 복력이 되어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먹을 곳이 필요한 곳에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무료급식이니 이런 거창한 이름을 붙이기 보다는 가난한 이웃들의 먹거리를 나눈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심진 스님은 지금까지 그대를 위한 시, 옥아의 꽃신, 바람부는 날에는 너에게로 가고 싶다 등의 음반을 내놓았다.


‘구도의 길’ 앨범 표지

정혜숙 기자

부처님 말씀 곡선 미학에 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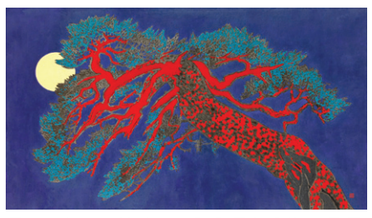
임무상 화백 개인전 파리 셀렉티브 화랑서

“제 작품은 자연 그대로가 불상이고 부처님입니다. 그림 속에 표현되고 있는 오방색은 탱화에서 따온 것이죠. 굳이 형태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제 작품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수묵의 한국적 곡선미학을 화폭 위에 펼치고 있는 불자 작가 임무상 화백의 파리초대전이 7월 14일까지 파리 셀렉티브 화랑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통도사를 배경으로 한 ‘노거송’과 자연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隣(Rhin)’ 등 15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는 천연염료를 통해 자연의 관조를 예술로 표현한다. 자연에 대한 관찰과 그 감응을 화폭 위에 펼치며 한국적 정서와 자연의 위대성을 곡선의 미학으로 창출한다.

아침마다 〈천수경〉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임 작가는 재가불, 염, 역사의 장 등 불교를 소재로 한 다수의 작품을 선보여 왔다. 지금까지 그는 15회의 개인전을 펼쳐왔고 Zurich Art Fair 외 다수 국제전에 참가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심사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자문위원, (사)한국미술협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통도사 노거송을 소재로한 임무상 화백의 작품

임 작가는 “현재 파리 현지에서 반응이 좋아 전시 연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태리 인도 등에서도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숙 기자

올여름 전국은 ‘처념상정’의 연화시대

전국 연꽃 축제 ‘다채’


여름이 절정에 달하며 지역마다 연꽃축제가 한창이다. 사진은 지난해 남양주 봉선사 연꽃축제 장면

여름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연꽃을 만난다. 세속을 초월한 깨달음의 경지를 상징하는 연꽃은 그 청정하고 넉넉함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그래서 호수 위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연꽃의 향연은 세속에 찌든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한다. 여름 연못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느껴보고 싶다면 연꽃축제를 찾아가 보자.

각 지역마다 연꽃축제 준비로 분주하다. 조계종과 함께하는 무안연꽃축제,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 전북 김제 청운사, 하소백련축제 등 다채로운 연꽃축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 연꽃축제는 ‘蓮(연), 人(인) 음악회’라는 이름으로 대중들을 찾아간다. 봉선사는 “불교음악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음악공연을 통해 불교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됐다. 또한 대중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활동과 불교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7월 27일 봉선사 경내에서 개최되는 음악회는 찬불가와 대중가요 등으로 구성된 무대를 마련한다. 이 자리에는 가수 허각, 국악인 박애리, 팝핀 현준, 심진 스님, 가수 이창휘, 바이올리니스트 김경민 등이 출연한다.(031)527-1956

무안연꽃축제는 올해 조계종과 공동 개최돼 눈길을 끈다. 7월 24~28일 개최되는 무안연꽃축제는 전남 무안군 일로읍 회산백련지 일대에서 열린다. 무안군 문화광광과는 “이번 축제는 발우공양 체험, 연등밝히기 등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백련지 연등길 걷기, 수생식물 생태전시, 황토골 난 수석전시회, 분재전시회, 사진전시회도 백련상품 홍보, 세계 연 전시 등은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할 것이다.

봉선사, ‘연인 음악회’ 허각 등 출연

청운사 하소백련축제 불화전 · 서예전

2013 무안연꽃축제 조계종과 함께

부대행사로는 다문화가정 나눔장터, 장엄등 행사 등도 개최되며 체험행사로는 연등밝히기, 연꽃양초공예체험, 연꽃페이스페인팅 연꽃길 보트탐사, 사찰음식 시연체험, 발우공양체험 불교의상 전시체험, 양파김치담그기, 다도체험 등이 있다. (061)-450-5472

전북 김제 청운사의 제 12회 하소백련축제는 7월 12일~21일까지 청하면 하소백련지 일원에서 열린다. 도원 스님 불화전, 토광 장동국 도자전, 현발 서예전(반야심경) 등은 물론 백련차 명상시연 등 불교문화체험과 더불어 연꽃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청운사는 “백련은 독성이 없고 다른 연에 비할 수 없는 향과 맛을 자랑하고 있다”며 “축제 기장 중에는 하소백련 차와 하소백련 된장 등 특산품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물론 백련 칼국수 등 다양한 백련음식도 맛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063)543-1248

제11회 부여서동연꽃축제는 7월 18~21일까지 부여군 부여읍 서동공원 궁남지 일대에서 열린다. 무왕즉위식, 서동선화나이트 퍼레이드, 청소년 락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연꽃 페이스 페인팅, 서동선화 캐릭터 컵 그리기, 연꽃 솟대 및 손수건 만들기 등 연꽃 행사가 펼쳐진다. (041)-830-2921

이밖에도 서울 신촌 봉원사가 8월 7일~17일까지 여는 제11회 서울 연꽃 문화대축제는 영산대재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또한 강원도 강릉시에서 개최되는 기찻길옆 풍호마을 연꽃축제가 8월 2일~5일까지 열리며 경기도 양평군 세미원은 5만평 규모의 정원에서 수려한 연꽃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다.

정혜숙 기자

“불교 서예의 복원과 발전 도모하겠다”

천태종 제 1회 원각서예대전

전통문화의 미의식을 고취시키고 예술인식을 확산시킬 서예대전이 불교계에서 개최된다. 천태종은 제 1회 원각 서예대전을 마련하고 공모작을 접수받는다.

천태종은 “PC의 생활화로 위축되어가는 글씨 예술에 대한 재인식과 서각 · 경전판각 · 사경 등 불교서예의 복원과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서체의 다양화를 통해 산업디자인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취지를 전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천태종종정상) 1명-상패 및 상금 700만원 △최우수상(천태종총무원장상) 1명-상패 및 상금 400만원 △우수상(금강신문사장상)-상패 및 상금 각100만원 △ 특선-상패 및 기념품 △입선-상패 및 기념품 등이 주어진다. 심사발표는 2013년 10월 10일 전후 개별통지 및금강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부분은 한글, 한문, 국한문 사경으로 출품수는 1인 3점 이내다. 접수기간 2013년 9월 23일~30일(최종일 우편 소인 유효)

9월 30일까지 최종 접수

9월 3일까지 사진공모전도


지난해 천태종에서 실시한 사진공모전 심사 장면

까지이며 출품방법은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하며 접수증은 이메일 또는 팩스 송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천태종은 ‘제3회 천태종 전통불교사진 공모 및 전시전’도 개최한다. 불교문화콘텐츠의 발전과 개발을 위해 마련된 이 대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9월 2일까지이며 당선자는 9월 12일 금강신문홈페이지 및 한국사진작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당선작은 2013년 10월 16일 ~ 21일까지 인사동 라메르 갤러리에서 전시되며 10월 16일 시상식을 갖는다.

공모주제는 불교 관련 소재로 국내 · 외 미발표작이어야 하며 작품 규격은 최소 600만화소 이상이어야 한다. 1인당 4점 이내까지 출품할 수 있으며 우편접수 가능하다.

△금상 1점- 천태종 총무원장 상패 및 상금 300만원 △은상 2점 - 천태종 총무원장 상패 및 상금 각 100만원 △동상 3점-천태종 총무원장 상패 및 상금 각 50만원 △가작 5점 - 천태종 총무원장 상패 및 상금 각 30만원 △장려 5점-천태종 총무원장 상패 및 상금 각 10만원 등이 주어진다.

접수처는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운현궁SK허브 102동 308호 천태종 총무원 서울사무소다. (02)723-1559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1평 미니법당
(대웅전과 지장전)

부처님께서 감응하시어 장엄불사 했습니다.
모든 불자님께 알려서 친견 하시길 바랍니다.

- 나무석가모니불 -



卍 대한불교 조계종 새로운 하얀마음선원(백심사)
전화 031)707-0108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60-1

보시

현대불교신문사와 삼환양초는 다가오는 칠석과 백중의 소중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양초 2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는 지난 부처님오신날 기념 양초 무료 보시 행사에 이은 두번째 행사입니다. 보시 예정인 초는 흰색 육각초로써 길이 45cm, 판매가 25,000원에 상당하는 고급 양초입니다.

전국 사찰에 한하며, 선착순 500여 사찰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팩스주문만 받사오며, 받으실 1.사찰명 2.사찰주소 3.사찰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후 삼환양초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택배는 받으시는 사찰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선착순 500셀 한정!!

팩스 031)766-0233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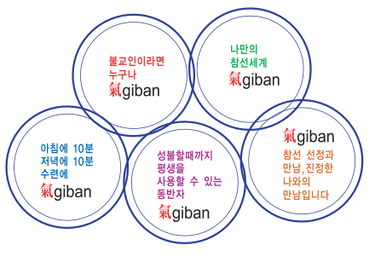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무엇인지 모를 것’ 이 동서양 조형미술 풀어내는 열쇠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인동당초문(忍冬唐草文)’ → ‘제3영기싹 넝쿨모양 영기문 ㉮



고구려 벽화의 비밀풀기

마침내 한국미술사학계에서 부르는 이른 바 ‘인동당초문’의 실체를 더욱 분명히 드러낼 때가 되었다. 내가 인동당초문의 용어가 틀리다는 것을 안 것은, 바로 고구려 사신총의 영기문의 구조를 풀어서 그 조형언어를 읽어냈기 때문이다. 만일 고구려 벽화의 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신비한 영기문을 해독하지 못했다면, 인류가 수없이 만들어 놓은 ‘제3영기싹 넝쿨모양 영기문’은 영원히 밝혀낼 수 없었으리라. 인동문이라 알고 있던 바로 사신총의 영기문 표현원리가 그대로 반영되어 성립한 것이 백제 무령왕릉(武寧王陵) 출토 왕과 왕비의 금제 관(冠) 장식의 영기문이다. 물론 일본 학자들이 인동당초문이라 부르고 한국의 학자들이 그대로 따라 부르므로 그 관의 장식의 본질은 오래 동안 잘못된 용어에 가려져 왔다. 이제 마침내 그 신비한 베일을 벗긴다.

앞서 25회에서 제3영기싹 넝쿨모양 영기문의 전개원리를 파악한 분은 고구려 사신총 영기문을 금방 풀어낼 수 있으리라. 다시 한 번 25회를 읽어보고 26회를 읽어보기 바란다.

중국 북제와 당의 시대와 거의 같은 시기의 영기문인데, 이 6세기 후반의 고구려의 영기문이 훨씬 뛰어난 점은, 그 근간을 이루는 줄기라는 영기문의 곳곳에서 갖가지 영기싹들을 표현했다는 점이다. 바로 그런 영기싹, 즉 생명의 싹들로 하여금 우리는 영기문의 본질, 즉 ‘생명생성의 과정을 보여주는 조형’이 ‘영기문’임을 깨달았던 것이다.(그림①-1, 그림① -2, 그림①-3)

그런 구체적인 영기문의 표현방법을 보여주었으므로 사신총의 영기문을 통하여 중국이나 더 나아가 서양의 영기문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실로 동양과 서양의 미술사학 연구에 전환기를 맞이하는 카타스르로피 즉 ‘비장한 역전(逆轉)’이다.

조형언어 읽는 지름길 ‘채색 분석’

일향 한국미술사연구원에서는 서양의 미술사도 그 기원부터 즉 아시리아와 이집트, 그리고 그리스의 미술부터 강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고구려의 영기문을 풀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고구려 사신총의 영기문은 중요하다. 채색분석한 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으니 이 글에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그 다음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한 왕비의 관의 장식(526년 경 제작)을 살펴보자. 순 금판이므로 금색 한 색이어서 무늬의 구성을 알 수 없다.(그림②-1) 채색분석법으로 파악하면 매우 명료하게 그 전개과정을 알 수 있다.(그림②-1, 그림②-3) 중앙의 연꽃모양 영기꽃에서 사방으로 제3영기싹 영기문이 발산하며, 거기에서 영기화생한 만병(滿甁)에서도 사방으로 제3영기싹 영기문이 유려한 다양한 형태를 띠며 역시 사방으로 발산한다. 고구려 사신총 벽화보다 더 이른 시기의 제3영기싹 영기문의 전개과정이 매우 역동적이다. 왕비의 머리에서 발산하는 영기를 이렇게 조형화한 것은 놀랍지 아니한가.

그 다음 무령왕의 관의 장식(523년경 만듦)을 보면 왕비 것 보다 더 역동적이다.(그림③-1) 역시 그 영기문의 구성원리는 채색분석을 해 보아야 파악할 수 있다.(그림③-2, 그림③-3) 크게 보면 제3영기싹의 조형을 복잡하게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채색분석한 것을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다. 글(문자언어)이란 한계가 있어서 조형의 모든 것을 문자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 왕의 것이 더욱 역동적인 조형을 띤 것은 왕이 남자이기 때문이고, 왕의 것에 비하면 왕비의 것은 정적(靜的)인 것은 주인공이 여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비로소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과 왕비의 관의 장식에 나타난 조형적 구성과 상징구조를 자세히 밝힐 수 있으니 그 자손으로서 영광이 아니겠는가!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그림 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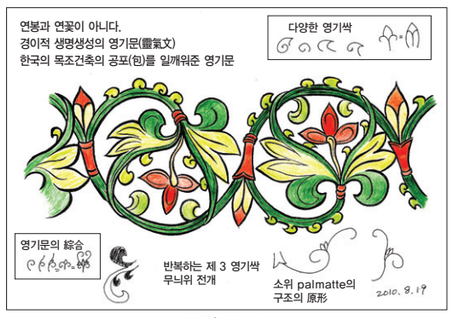


그림 ①-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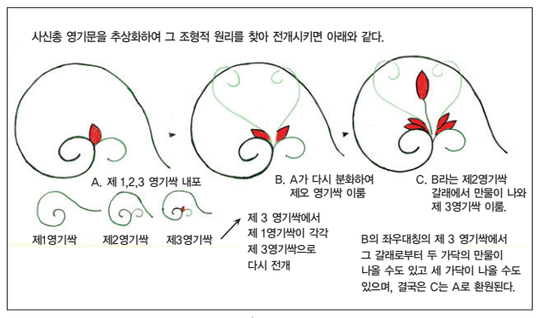


그림 ①-3



그림 ②-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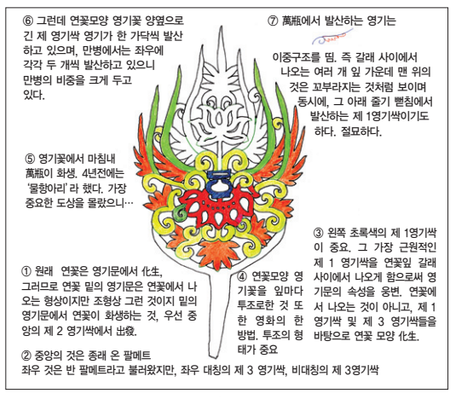


그림 ②-2



그림 ②-3



그림 ③-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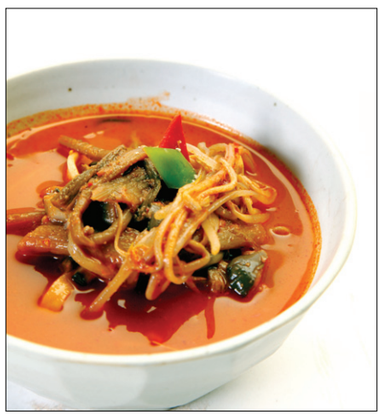
그림 ③-2



그림 ③-3

藥이 되는 사찰음식

이열치열 ‘익힌 열무’로 건강 챙기세요



채개장

△재료(4인 기준)

○ 토란대 100g, 느타리버섯 100g, 숙주 200g, 고사리 100g, 무 100g, 청고추 1개, 홍고추 1개

○ 맛국물 6컵(물 7컵, 다시마 1장, 표고버섯 2장, 구기자 1큰술, 대추 2개)

○ 고춧가루 1큰술, 고추장 2큰술, 된장 1큰술, 국간장 1큰술, 들기름 2큰술, 들깨가루 4큰술, 소금 약간

△만드는 법

① 삶은 토란대와 고사리는 4cm 정도의 길이로 썰고, 느타리버섯과 숙주나물은 끓는 물에 데친 후 찬물에 헹궈 준비한다. 청홍고추는 어슷썬다.

② 냄비에 맛국물 재료와 무를 넣어 국물을 만들고, 무는 익혀낸다.

③ 토란대, 고사리, 느타리버섯, 숙주에 고춧가루, 고추장, 된장, 국간장, 들기름을 넣어 조물조물 간을 한 후 맛국물과 함께 끓인 후 마지막에 청홍고추, 들깨가루를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익힌 열무 산초 김치

△재료(4인 기준)

○ 열무 1kg

○ 김치 양념 : 국간장 80cc, 고춧가루 7큰술, 홍고추 3개, 배즙 3큰술, 다진 생강 10g, 소금 1작은술, 산초가루 1큰술, 찹쌀풀 1/2컵

○ 찹쌀풀 : 다시마국물 1컵, 찹쌀가루 1/2컵



△만드는 법

① 열무는 끓는 물에 약간의 소금을 넣어 3분 정도 살짝 삶은 후 찬물에 헹궈 물기를 뺀다.

② 다시마 국물에 찹쌀가루를 넣어 찹쌀풀을 쑨다.

③ 김치 양념을 골고루 잘 섞은 후 데친 열무를 넣고 버무려 낸다.

감칠맛 나는 열무로 입맛 살려보자

여름철에는 무더위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땀을 흘림으로써 우리 몸속의 기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이럴 경우 따뜻한 음식으로 기를 보충해주는 것이 좋다. 이번 주에는 맛국물에 여러 가지 채소를 넣어 뜨끈뜨끈하게 끓여낸 채개장과 톡쏘는 감칠맛이 일품인 열무 산초 김치로 입맛을 되살려 보고자 한다.

채개장은 데친 재료에 양념을 넣고 조물조물 충분히 무친 후 끓여야 깊은 맛이 잘 어우러진다.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인 리놀렌산 함량이 풍부하여 혈관을 튼튼하게 하며, 장기능 개선에 도움을 줘 변비에도 좋으며, 기미나 주근깨를 열어지게 해 피부미용에도 도움이 된다.

열무에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여 시력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열무에 포함된 사포닌 성분이 혈관 탄력 조절과 항암작용, 콜레스테롤 저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 사포닌 성분은 인삼의 주성분인데 몸에 열이 많아 인삼을 복용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인삼 대신 열무를 먹어주면 좋다. 열무를 데치는 것이 번거롭다면 소금에 절였다가 양념을 해도 좋다.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밀납양초를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 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하실 수 있습니다.



3×6식물성사군자

3×6사군자 (7.4∮×14.5㎝)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핑크/옐로우/살구/그린/개나리 (7.4∮×29㎝)



나비양초 – 화이트/핑크/옐로우/살구/그린/개나리(7.4∮×29㎝)



한봉밀납양초 – 4호/3호/2호/1호/밀대전사자/
돈타레전사자/원기둥전사자



수공예예술양초 – 밀납/약쑥야광연봉연꽃양초/
약쑥1호예술연꽃양초/야광 연꽃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 · 야 상담 합니다

“이세상 불경 중 단 하나만 남겨야 한다면…잡아함경”

한문대역 잡아함경 전5권 · 인류의 스승, 붓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김윤수 역주 | 한산암 펴냄 | 1십6만원 | 5만원



“세상에 있는 불교 경전 중 하나만을 남기고 모두 없애야 하는 사건이 혹 발생한다면? 그 하나는 〈잡아함경〉이어야 한다.” 역자의 말이다. 한문대역 〈잡아함경〉 5권과 그 5권에서 한역문과 각주의 설명을 제외한, 순 한글 번역문만을 한 권으로 모은 〈인류의 스승, 붓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크게 법(法)과 율(律)로 나뉘고, 그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을 장(藏)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있다. 경장(經藏)과 율장(律藏) 그리고 논장(論藏)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법을 체계적인 형태로 모아 놓은 것이 경장이고, 승가에서 지켜야 할 계율을 담고 있는 것이 율장이며, 경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고 체계화한 것이 논장이다. 이 가운데 경장을 남방의 팔리어 전승에서는 니까야, 즉 부(部)라고 하는데, 장부(長部), 중부(中部), 상응부(相應部), 증지부(增支部), 소부(小部)의 5개 부로 나누고 있다. 한편 북방 산스크리트 전승에서는 경장을 아가마(아함 · 阿含), 즉 ‘전승된 것’ 이라고 부

잡아함경 한문대역 5권+한글본 1권
부처님 가르침 원형에 가장 가까워

르며, 장아함(長阿含), 중아함(中阿含), 잡아함(雜阿含), 증일아함(增壹阿含)의 4대 아함이 있다.

아함은 예로부터 귀중하게 여겨져 왔는데, 인도의 부파불교 시대에 있어서 아함만이 절대적인 권위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중관 사상의 비조 용수보살의 경우도 그 사상의 철저한 기반은 아함이었다. 중국불교의 천태나 화엄철학 등에서는, 부처님께서 경을 설한 순서를 상정하고 그에 따라 일체의 경전을 분류하고 있는데, 기초적인 경으로 아함을 들고 있다. 이로 미루어 모든 경전 가운데서 아함이 지니는 비중 및 불교학에서의 중요성은 예로부터 인정되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아함은 대승의 기초경전으로서, 소승으로 불리는 부파불교 학자들의 절대적인 경전이 아함이었고 그래서 소승경전으로 취급하려고 하겠지만, 엄밀히 말해서 소승으로 지칭되는 것은 부파시대 학자들이 아함을 통해 이해한 교리체계이지 아함 그 자체는 아닌 것이다. 대승경전으로 불리는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등의 내용을 살필 때 아함의 기초 경전으로서의 위치는 확고해진다 하겠다. 즉 〈반야심경〉에 나오는 5온, 12처 18계 12연기 사제 등의 술어는 오로지 아함에서만 충분히 익혀지는 개념이다. 그리고 제법개공(諸法皆空)도 ‘오온은 무상, 고, 무아’ 라고 하는 아함교리의 전개에 불과함을 볼 수 있어 〈반야경〉의 기초가 〈아함경〉에 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역자 · 김윤수

기원 후 4세기 후반에 5세기 초반 사이에 산스크리트 전승의 4아함이 중국에서 한역되었고, 팔리어 전승의 5부는 남방 상좌부라는 단일 부파에서 전승해온 것이 온전히 보존되었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부파에서 전승되어온 경장은 대부분 산실되었다. 기원후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 사이에 중국에서 한역된 4아함은 단일한 부파에서 전해져 내려온 것이 아니다. 오늘날 전해지는 4아함은 법장부 소속의 〈장아함경〉 설일체유부 소속의 〈중아함경〉, 〈잡아함경〉, 대중부 계통의 어떤 부파에 소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증일아함경〉 등 몇몇 부파에서 전하는 아함이 따로따로 번역되어 하나의 경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비록 전승해온 부파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교리적인 바탕에 있어서는 놀라울 만큼 한결같은 일치를 보이고 있다.

4아함 중 어느 것이 먼저 성립되었는지에 대한 시간적인 선후 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승하는 초기의 방법은 암송에 의한 구전이었다. 암송해서 구전되는 것을 서사하여 전하면서 구성이나 내용에 있어서 조금씩 변화를 겪게 되었다.

학자들에 따르면, 4아함 가운데 짧은 게송의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는 〈잡아함경〉이 가장 오래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잡아함경〉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모은 것이면서, 그 원형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서, 불교의 근본이 되는 소중한 경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중요성에 어울리지 않게 구나발다라 한역의 현존 50권 본 〈잡아함경〉은 그 원래의 내용 아닌 것이 혼입되어 있고, 순서도 뒤바뀌어 있는 것은 물론 교정과 윤문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초벌 번역 후 판각되기 전 모종의 사건이 개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존 한역본은 이 혼란한 모습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가르침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약점을 안고 있는 경전이기도 하다. 이번에 출간된 두 종의 책은 순서와 편제를 바로 잡으며, 경문의 오류를 수정하는 등 혼란한 모습을 바로 잡음으로써 가르침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했다. 두 가지 번역본 중 〈한문대역 잡아함경〉(전5권)은 이 경전을 전통적인 기준에 따라 5부로 나누어 한역문과 대비하여 번역하고, 그 각주에서 이해에 필요한 소상한 설명을 덧붙여서, 이 경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구하는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인류 또 하나의 언어 ‘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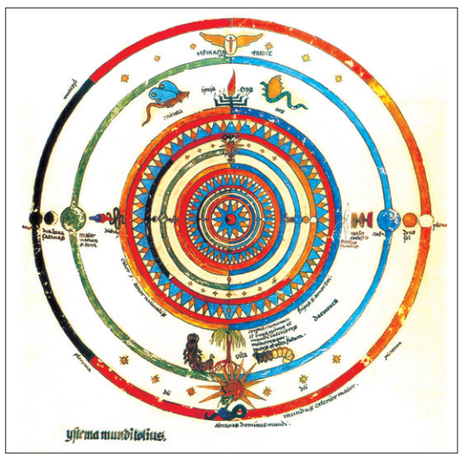


도형, 그림의 심리학
잉그리트 리델 지음
신지영 옮김
파피에 펴냄
1만7천원

‘성격이 둥글둥글하다’, ‘성격이 모났다’ 등 인류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의미를 도형으로 대신(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둥근 것은 원만하고 포용력이 있으며, 모난 것은 비타협적이고 제한적이며 딱딱함으로 설명하고 받아들인다. 책은 인류의 심리 한 쪽을 형성해온 삼각형, 사각형, 십자, 나선, 원, 그리고 만다라 6가지 도형에 대한 연구다.

융파 심리학자이자 임상심리사로 오랫동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책에서 자신의 치료 경험과 여성 특유의 섬세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오랫동안 인간과 함께 해온 6가지 기본 도형을 통해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탁월한 통찰력을 펼쳐 보인다.

책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에서 각 도형의 가장 대표적인 의미를 제목으로 삼아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사각형은 ‘경계 안에 있음’ 으로, 십자는 ‘펼쳐져 있음’ 삼각형은 ‘연관되어 있음’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각 도형의 형상이 갖고 있는 다양한 해석과 자연적인 형태로서의 도형과 인간의 의식 속에서의 상징적 형태로서의 도형, 각 도형의 실존적이고 심리학적인 의미 등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전개한다.



칼 융이 처음으로 그린 만다리 그림

“구스타프 클림트는 자신의 작품에 삶과 죽음이라는 대립을 수용했다. 1916년에 나온 〈죽음과 삶〉이라는 그림이 그러한데 이 그림은 1차 대전이 남긴 인상을 바탕으로 그려졌다. 여기서는 젊은 여자의 옷과 어머니의 붉은색 옷에만 나선이 나타난다. 여기서 인물로 등장하는 죽음은 원과 십자로 상징화되어있다.”

저자는 그림치료의 권위자답게 많은 유명 화가들의 그림과 자신이 직접 상담했던 환자들의 그림을 분석하면서 이야기를 끌어간다. 피에트 몬드리안의 ‘뉴욕1’, ‘빨강, 파랑, 그리고 노랑의 구성’, 구스타프 클림트의 ‘기대’, ‘성취’, ‘죽음과 삶’, ‘키스’ 등 근현대 화가들의 그림 속의 도형이 가지는 의미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무의식적인 행동 속에서 보이는 도형과 관련된 분석도 흥미롭다. 그리고 마지막장에서 소개되는 만다라는 앞서 말한 5가지 도형이 융합되고 함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저자는 세계적인 심리학자 칼 융의 만다라를 분석하며 칼 융의 계승자로서 만다라가 “대우주를 반영하는 동시에 인간의 심리라는 소우주도 반영한다.”며 신의 상인 동시에 우리 자신의 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만다라의 심오한 의미를 해석하는 동시에 심리적 힐링요법으로서 만다라의 가능성에 대해 확고한 신념과 밝은 기대감을 표한다.

도형이라는 재미있는 소재를 심리학과 흥미롭게 접목한 책은 심리학이라는 단어가 주는 차갑고 분석적인 느낌 대신 여성 특유의 따뜻함과 섬세함이 행간마다 깃들어 있어 온전한 힐링을 원하는 독자들이 자신이 무의식중에 그려내는 도형의 이미지를 통해 참된 자아를 만나고, 진정한 나와 마주보는 과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타인과의 관계짓기, 세상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숙고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책은 인간과 함께 해 온 도형의 오랜 역사와 심오한 상징, 그리고 섬세한 치유의 역할에 대한 흥미로운 교양서이자 힐링 안내서다.

박재완 기자

▲저자 잉그리트 리델(1935~)은

대학에서 기독교 신학과 문예학, 사회심리학을 전공했고 취리히의 융연구소에서 분석심리학을 공부했다. 1984년부터 독일 콘스탄츠에서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임상심리사이자 미술치료사이다. 융연구소 강사이자 심리분석가와 카셀대학교 심리학과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1992년부터 프랑크푸르트대학교 종교심리학과 객원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색채〉, 〈그림〉, 〈영혼이 깃든 장소〉 등이 있다.

삶의 ‘문제’ 들…오히려 ‘기회’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김기태 지음 | 침묵의 향기 펴냄 | 1만3천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기에 내 안에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 같은 것이 늘 있는 것일까? 이 괴로움은 언제쯤 끝이 날까?”

명상, 치유에세이다. 저자는 도덕경 강의서인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의 저자이기도 하다. 전작이 완전한 자유의 길을 보여주는 입문서였다면, 이 책은 살면서 부닥치는 온갖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실천편이라 할 수 있다.

책은 저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삶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 가운데 70개의 질의응답을 선별하여 엮은 것이다.

저자의 메시지에는 상식을 뒤엎는 혁명적인 것들이 많은데, 그 중 하나는 ‘반대의 길’ 을 얘기한다는 것이다. 잃어버린 낙원으로 돌아가려면, 번잡한 세상 속에서도 자유롭고 평화롭게 존재할 수 있으려면, 정반대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어제까지 해온 것과는 반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스리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는 결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다스리려 할 것이 아니라 인정해 보십시오. 진실한 인정은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을 근본에서부터 변화시키는 사랑의 에너지가 된답니다.”라고 답한다.

왜 반대의 길을 제시할까. 왜냐하면 진실을 오해하고 있으며, 반대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는 본능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며, 나빠보이는 것은 거부하고 좋아보이는 것은 추구한다. 내면의 일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응한다. 그래서 불안, 분노, 미움처럼 나빠 보이는 것은 거부하고 당당함, 자비, 사랑 같이 좋아 보이는 것은 추구하며 그쪽 길로 계속 가면 해방의 출구가 나올 것이라 믿는다. 책에는 통찰의 눈에서 나오는 지혜들이 가득하다. 또 하나 이 책의 미덕은 삶의 문제들에 대한 미봉책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근본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삶의 문제들은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자유와 평화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된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26 ~ 7/2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2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3	그건 내 부처가 아니다	서암	정토출판
4	이해하고 내려놓기	일묵	궁리
5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6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탁낫한 명상	틱낫한	불광출판사
7	명상에 답이 있다	장현갑	담앤북스
8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호	마음의숲
9	마음공부와 선 (관음수행법)	김성갑	운주사
10	이렇게 말씀하셨다 (완역 잡아함경)	김윤수	한산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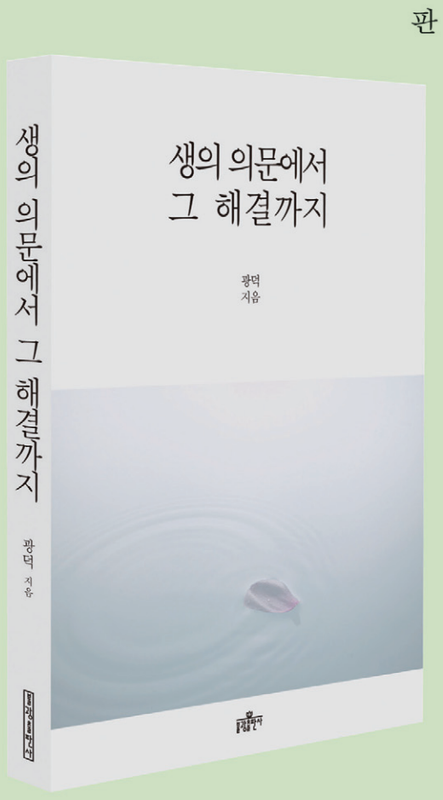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금하광덕 스님의 구도문답집
초심 불자들을 위한
〈불교입문〉의 결정판!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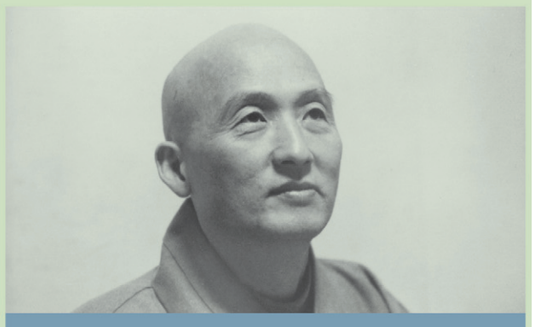
금하광덕 지음
352쪽 | 12,000원



개정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인가?
수행은 어떻게 하는가?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는가?
보시는 어떻게 하는가?

인간, 부처님, 보살, 교리, 수행, 보시·전법, 생활, 기도, 참선, 한국불교 등 불교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200여 종의 문답을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진리에 대한 믿음과 지혜, 용기를 불어넣어 삶의 등불이 되는
〈불교 입문의 결정판!〉



불광출판사에서 펴낸 금하광덕 스님의 책들

- 경전 강의서
  반야심경 강의 | 보현행원품 강의
- 경전 번역서
  금강반야바라밀경 | 천수관음경 | 부모은중경·관음경
  지장경 | 한영 보현행자의 서원
- 선어록 번역서
  육조단경 | 선관책진 | 무문관
- 법어집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 |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 구도 문답집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 삶의 빛을 찾아서
- 삶의 지혜를 여는 칼럼집
  행복의 법칙 | 빛의 목소리
- 광덕 스님 명상언어집
  봄·여름·가을·겨울(전 4권) | 생명은 밝은 데서 성장한다
- 불교 의식집
  우리말 법회요전 | 현화의식문 | 불자 수행일과요전 | 지장기도집
  지송 금강경 | 지송 보현행원품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사유 등 9개 테마로 속살 탐사한 한국불교



테마 한국불교1
동국대 불교문화원 HK연구단 엮음
동국대 출판부 펴냄
2만원

이 책은 아홉 개 테마로 한국불교를 써 내려간다. 1700년 장대한 한국불교를 몇 개 테마로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게 맹랑한 짓인 줄 알지만 적절한 절단면을 통해서 한국불교의 속내를 탐사하는 것도 한국불교를 이해하는 데 꽤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 탐사는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이 '글로컬리티의 한국성: 불교학의 문화확장담론'이라는 이름으로 10년 간 진행할 것이다. 이 기획으로 한국불교가 가진 지역성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룩한 세계성을 추출하고자 한다. 이로써 한국불교의 고유성과 그것의 보편성이 교차하는 지점을 포착하고 그것을 현재적 의미로 확산하고자 한다.

이 책은 이러한 조망 아래 이루어진 첫 연구 성과로서 크게 세 갈래로 구성됐다.

첫째 '사유와 가치'에서는 유식, 충의, 하늘, 둘째 '종교와 국가'에서는 제정일치, 원력, 사전(寺田), 그리고 셋째 '문화와 교류'에서는 자장, 변체한문, 연등회 · 팔관회를 주요 테마로 다루었다.

이 1차 성과는 한국불교의 고유성 탐색에 좀더 무게를 두고 진행된 연구결과이다. 그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행하지 않은 새로운 연구를 시도했고, 그 결과 새로운 지대에서 한국불교의 고유성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홉 개 테마가 집중하는 시기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이지만 개별 테마는 한국불교 전체를 관통하는 방식으로 기술됐다. 그래서 단순한 논문 모음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 한국불교의 안쪽 면을 보다 손쉽게 더듬을 수 있도록 개설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들의 주제에 대한 논리정연한 설명들은 이해하기 쉽게 강의식으로 펼쳐져 있다.

중국불교를 전공한 박인석 교수는 유식에 대해 말한다. "동아시아 유식학은 8세기를 전후해 당과 신라의 유식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꽃피웠다. 이들 가운데는 원측과 같이 중국 법상종의 양대 산맥 가운데 하나를 형성한 인물도 있고, 의적과 같이 규기의 견해를 적극 비판하면서 보다 융합적이고 일승적인 견해를 표방한 인물도 있다. 경흥과 같이 중국 법상종의 견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한 인물도 있다. 나아가 순경 · 원효 등이 제기한 현장의 유식 비량에 대한 비판은 보편적인 사유 법칙을 추구한 유식학의 학문적 태도가 당시 신라에 매우 성숙한 모습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 생각된다."고 주장한다. 역시 중국불교를 전공한 김영진 교수도 "고대 한국에 불교가 전래됐을 때, 불교는 업설이라는 새로운 운명관을 제시했다. 그것은 천신의 운명 지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결정론적인 운명론을 부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교 내부에 존속한 하늘 관념과 고대 한국에 재래한 하늘 관념은 당시 불교도의 사유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했다"고 하늘 편에서 설명한다.

초기불교교단사와 계율을 전공한 이자랑 교수는 "실제로 불교 수용 이후 삼국의 왕들은 전륜성왕의 이념을 빌려 왕권을 강화했다. 고구려의 광개토왕은 '호태성왕'이라 불렸고, 백제의 성왕은 생전에도 성왕으로 불렸는데, 이는 성왕 스스로 전륜성왕을 자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삼국 가운데 특히 전륜성왕설을 통해 적극적으로 왕권강화책을 강구한 나라는 신라였다. 신라에는 전륜성왕 이념이 진흥왕 시대에 도입되어 정복군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정당화하는 데 획기적인 역할을 했다. 진흥왕은 아들들의 이름을 전륜성왕을 나타내는 동륜과 사륜등으로 짓고, 황룡사 장육존상을 조성하며, 순수비를 건립하였는데, 이는 그가 전륜성왕설을 알고 실천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로 거론된다."고 제정일치편에서 밝히고 있다.

삼국~통일신라 시대 집중 연구
총 90개 테마로 10년간 프로젝트 진행
동국대 HK연구단 매년 간행 예정

또한 한국불교사를 전공한 박광연 교수도 사찰의 토지에 대한 연구를 이 책에 적어 놓았다. 박 교수는 "전장(田莊)이란 대토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원이 소유한 대토지를 가리키는 용어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일본에선 장원이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다. 특별히 사령장원(寺領莊園)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였다. 반면 한국은 장원이라는 용어가 사료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에 준하는 말로 전장, 장전, 전원, 농장, 별서 등이 나오고, 이를 대표하는 용어로 일찍부터 전장을 사용하였다."고 말한다.

이외에도 고전시가 전문가인 김기종 교수는 불교의 전래와 삼국시대 사용하던 변체한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밝혔다. 김 교수는 이 책에서 "한자 · 한문이 수용 · 확산되는 한편으로, 삼국시대의 몇몇 금석문에는 비한문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 곧 변체한문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변체한문은 한문의 미숙한 구사로도 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고립어인 중국어와 교착어인 한국어의 구조적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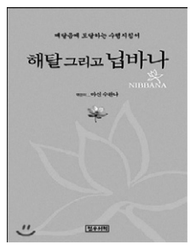
한편 동국대 HK연구단은 '인문한국총서' 시리즈로 매년 '테마 한국불교'를 간행할 예정이다. 연구단이 10년간 기획한 전체 90개 테마는 각각의 절단면으로 한국불교의 새 지대를 확인하고 탐사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부처님의 수행 정신과 가르침 문사수로 체계적 정리

해탈 그리고 닙바나

엮은이 아신 수완나 | 정우서적 펴냄 | 8천원



우선 편저자는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로 수행하면서 경험한 것을 여과 없이 기록하며, 착하고 건전하게 수행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 책은 담담히 수행의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수행법을 발견하게 된 동기부터 부처님의 수행과 지혜의 완성, 가르침의 핵심을 문사수(聞思修)로 정리한다. 그리고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아리야싸자 수행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아리야싸자 수행의 준비 단계: 수행자의 기본자세와 번뇌의 근원을 밝혀 제시한다.

△아리야싸자 수행 1단계: 믿음의 힘 기르기, 자신을 앎에 도전하기, 자애 갖추기

△아리야싸자 수행 2단계: 멈춤 들어가기, 올바로 봄 경험하기, 몸 느낌 마음에 대한 관찬

△아리야싸자 수행 3단계: 괴로움 앎, 일어남, 소멸, 이르는 길, 완전한 깨달음에 대한 지혜

△아리야싸자 실천단계: 언제나 깨어 있음의 실천, 편견 없음의 실천, 자비 베풂의 실천

前 해인사 주지이자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도성 영공 스님은 "아신 수완나 사야도의 집필은 살아 움직이는 부처님의 머리카락과도 같아서 수행자들에게는 진여의 강을 건너는 뗏목이 될 것이요, 범부 중생에게는 감로수가 될 것이다"고 평했다. 이어 전재성 박사도 "선불교 전통에서, 참선 수행하다가,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다시 접하고, 비로소 안심입명의 숨을 쉬게 된 스님의, 진솔한 사연을 접하는 것 같아 깊은 감동이 울려옵니다"라고 추천사를 통해 피력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특징은 엑기스만 모아놓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읽기와 이해하기가 편리하며 작은 책자로 만들어져 휴대하기도 좋다. 많은 경전을 염송해야만 수행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편안한 가운데 책을 읽고 제시하는 수행의 단계대로 스승의 지도를 받아 실천하면 된다. 불교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해 보지도 않고 말하는 외도의 사설에 불과하다.

중간 중간에 '착하고 건전하게'라는 꾸살람에 스님께서 터득한 진리를 격언처럼 말씀해 주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도 마음의 평정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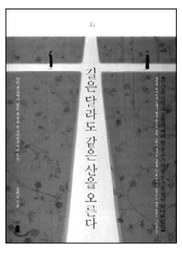
이 책에서 주장하는 아리야싸자 실참 수행법

1. 4주를 한 주기로 매일 수행시간은 자율로 수행합시다.
2. 첫째 주 7일 동안=가르침의 핵심은 어떻게 구성됐는지, 수행자의 기본자세는 어떤 건지 번뇌의 근원은 무엇인지를 고찰합시다.
3. 둘째 주 7일 동안=아리야싸자 수행 1단계의 과정 즉 믿음의 힘을 기르는 수행으로 신심을 키우고, 자신의 앎에 대한 수행으로 불건전한 습관들을 낱낱이 숙고해 건전한 습관으로 바뀌도록 합시다. 또한 자애를 갖추는 수행으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멈추는 등, 단계적으로 수행을 실천합니다.
4. 셋째 주 7일 동안=아리야싸자 수행 2단계의 과정 즉 멈춤에 들어가기 수행으로 번뇌망상의 파도를 가라앉히고, 올바로 봄의 수행으로 사념처에 대해 낱낱이 봄을 이루어 관찰의 힘을 키우는 데 주의를 기울입니다.
5. 넷째 주 7일 동안=아리야싸자 수행 3단계의 과정 즉 괴로움을 분명히 아는 수행과,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 통찰하는 수행과, 괴로움 소멸에 대한 통찰 수행과, 괴로움의 소멸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통찰하는 수행과, 무상 고 무아를 남김없이 통찰하고,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의 수행과위가 체험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합시다.
6. 완전한 경험을 얻기 위해선 수행을 시작함에서 끝냄에 이르기까지 가거나 멈추거나 안거나 서거나 단 한 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집중을 유지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7. 성숙된 수행자라면, 위의 과정을 1일 주기로 정진하기를 권장합니다.

老 종교학자가 본 종교의 본질적 역할

길은 달라도 같은 산을 오른다

길희성 지음 | 휴 펴냄 | 1만3천원



이 책은 동서양 종교와 철학, 신학을 넘나드는 폭넓은 시야와 깊은 연구로 지식인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원로 학자이자 서강대 명예교수가 〈한겨레신문〉 웹진 '휴심정'에 기고했던 글들을 조금씩 다듬고 보완해서 펴낸 것이다. 저자는 종교다원주의자 입장에서 종교의 본질적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현실 사회에서 종교가 가지는 한계를 인정하고, 제도적 · 도그마적 종교 이후 세상을 이끌 대안이 필요하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 본연의 순수한 영성을 회복하고 심화할 때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종교의 유무를 떠나 서로의 종교와 문화를 이해하고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개인의 행복을 넘어 전 세계가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 전반에서 노(老) 종교비교학자가 학문적 탐구의 삶에서 길어 올린 깊은 사유와 빛나는 혜안으로 얻은 종교의 가치와 역할, 그리고 종교를 넘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과 조언이 인상적이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지금까지 어느 종교도 인간의 고민과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고뇌 속에서 얻게 된 깨달음, 그리고 인류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제안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행복의 길. 깊은 영성 속에서 평생을 종교비교학자의 삶을 살았던 노(老)학자의 최종 목적지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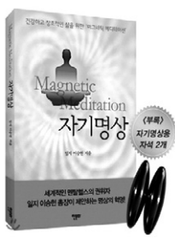
저자의 글은 종교 모두를 부정하는 세속주의나 한 종교의 언어를 절대화하는 근본주의가 아닌, 제3의 길을 걸으면서 종교 간의 벽을 넘고 성과 속의 경계를 넘나드는 초종교적 영성을 추하는 데 목적이 있어 종교 유무에 관계없이 편하게 읽을 수 있다.

많은 종교 중 이 책은 특히 불교와 기독교 사이의 소통과 화합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동서양 영성의 고전을 함께 읽으면서 삶의 지혜를 구하고 명상으로 내면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김주일 기자**

자석의 자기장 활용한 명상법 소개

자기명상

이승헌 지음 | 한문화멀티미디어 펴냄 | 9500원



일지 이승헌 총장은 현대단학, 뇌호흡, 장생보법, 뇌파진동, 생명전자 수련 등 지난 30년간 다양한 심신수련법과 명상법을 개발해 세계적인 멘탈헬스 권위자로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인의 멘탈헬스 증진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가 이번에는 자석을 이용한 쉽고, 빠르고, 강력한 명상법을 담은 책 〈자기명상〉을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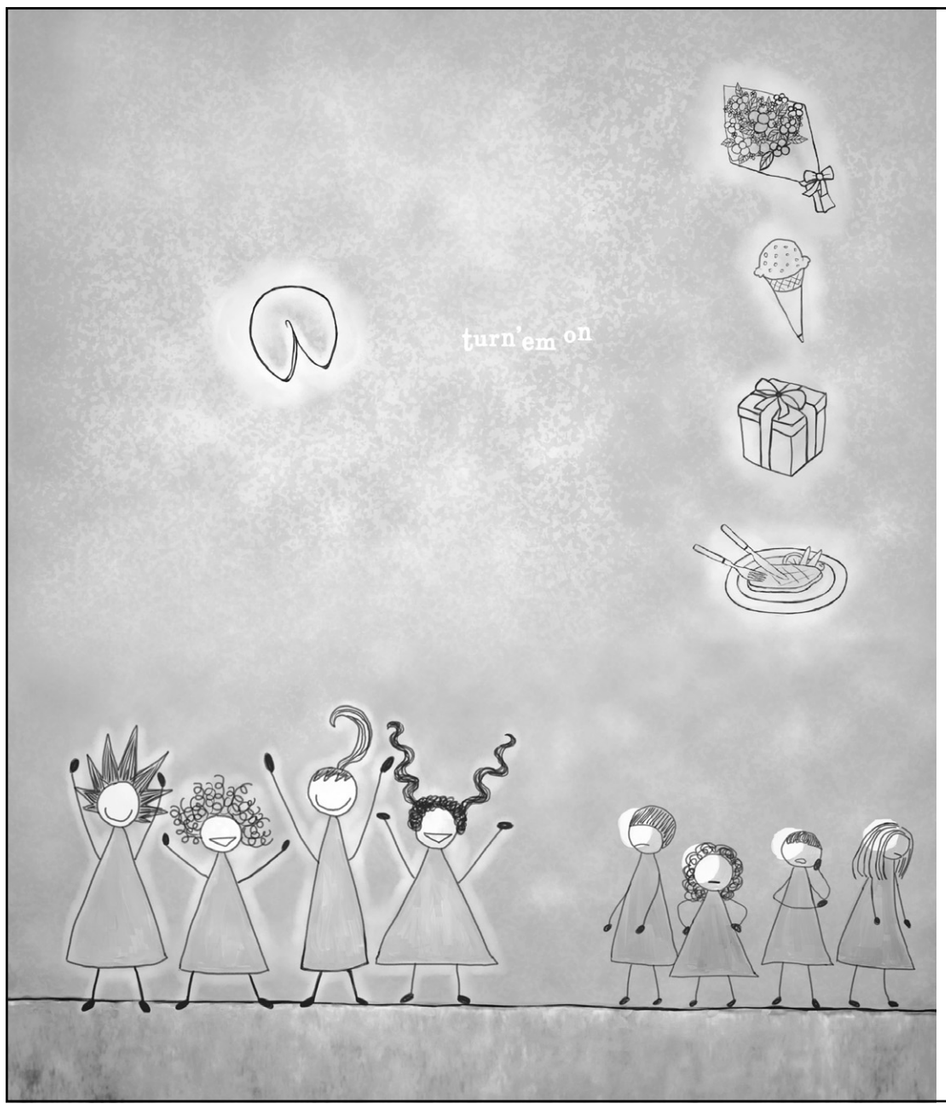
자기명상이란, 자석의 자기장을 활용해 에너지를 느끼고, 그 느낌을 증폭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에너지로 소통하면서 명상의 효과를 깊고 넓게 체험하는 획기적인 명상법이다.

그동안 국내외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수련을 지도해오면서 기(氣)를 느끼는 감각이 약해서 그 세계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수련자들을 보며 말할 수 없이 안타까웠다고 한다. 느끼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확연해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이 강력하고도 섬세한 에너지의 세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체험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고안한 것이 바로 자기명상법이다.

자석을 손으로 잡고 몸 가까이에 대고 이리저리 움직여보면, 몸에서 찌릿찌릿한 자력감이나 전류감이 느껴진다. 우리 몸속의 생체자기가 자석의 자기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 느낌은 기수련을 할 때 느끼는 에너지의 감각과 매우 비슷해서 자석을 이용하면 아무리 집중을 못 하는 사람도 빠르고 쉽고 강력하게 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다. 자기명상법에서 자석은 에너지의 세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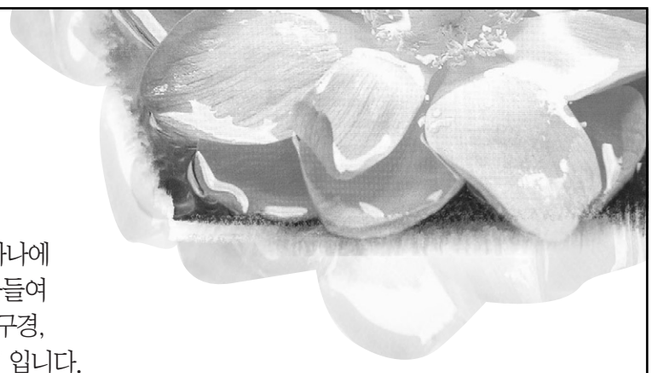
자기명상을 하면 몸의 감각을 깨워 기 에너지의 느낌을 쉽게 터득할 수 있고, 잡념을 떨치기 쉬워 빠르게 의식을 집중할 수 있으며, 잠깐만 집중해도 몸이 훨씬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김주일 기자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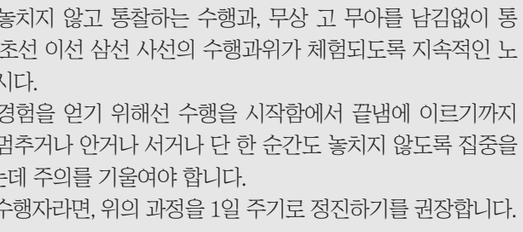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 (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민족불교 성지 선학원을 되짚다

⑬ 선학원과 만해 한용운

민족불교 확립·독립운동 평생 바친 혁명가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이며, 종교인이었던 만해 한용운 스님을 기리기 위한 행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사진 왼쪽은 남한산성 만해기념관의 흉상이며, 사진 오른쪽은 2010년 선학원 중앙선원에서 열린 만해 스님 추모 다례제에서 스님의 자제인 한영숙 여사가 헌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6월 29일 선학원의 중앙선원(中央禪院) 법당에서는 만해 한용운(1879~1944)스님 열반 69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하였다. 스님의 삶을 민족의 독립과 한국 불교의 정체성과 독자성 구현을 위한 몸부림으로 규정짓는다면 이날의 다례재는 스님의 행적을 기리는 가장 어울리는 자리와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한국근대사와 근대불교사에서 만해 한용운 스님의 가치는 확고하다. 불교계뿐만 아니라 민족의식이 희박해져가는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 존재자체가 더욱 남다르게 다가온다. 그래서일까. 스님의 행적을 두고 동시대를 살았던 지성(知性)들은 말을 아끼지 않는다.

독립운동가이자 국학연구자였던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 1893~ ?)는 "인도에는 간디가 있고, 조선에는 만해가 있으니, 조선 청년은 만해를 배우라"고 했다. 동화사 학인들과 만세운동을 부르기도 했던 고봉(古峰, 1890~1961)스님 역시 "한용운은 조선만이 아니라 세계의 한용운"이라고 극찬했다. 더욱이 벽초(碧初) 홍명희(洪命憙, 1888~1968)는 "7000 승려를 다 합해도 만해 1인을 당하지 못하니, 만해 1인을 아는 것은 1만 명을 아는 것 보다 낫다"고 평가하였다.

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때 더한 생동감과 진한 여운을 느낄 수 있다. 만고(萬古)에 전하는 이름 없는 비석 글이기 때문이다. 현재 후학들의 스님에 대한 추모는 문학과 종교인으로 자리매김을 하고는 있지만, 그 원천은 한국불교를 포함한 민족의 진정한 독립과 자생을 위한 고뇌의 행적에서 찾아야 할 듯싶다.

만해스님과 선학원의 관계는 선학원의 직접적인 창설배경이기도 한 임제종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0년 10월 6일 굴욕적인 한일불교협약인 조동종맹약(曹洞宗盟約)이 조선의 원종과 일본의 조동종 승려 사이에서 체결되고, 다음 달인 11월 6일 이 맹약에 반대하여 임제종운동이 전개된 것이다. 맹약의 핵심은 당시 한국 불교계의 대표기관인 원종(圓宗)이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기 위해 일본 조동종의 고문을 위촉하고, 조동종의 한국 포교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더 가관인 것은 "조동종무원이 필요하여 조선에 포교사를 파견할 때는 조동종무원이 지정하는 사찰을 숙소로 정하여 포교 및 교육에 종사케 할 것"이다. 합방된 직후고, 그 이전부터 일본의 야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시점에서 이 맹약은 동등한 것이 아니었다.

시인과 종교인으로서
민족 독립과 자생 고뇌
선학원 이사로 활동하며
한국 임제종 운동 이끌어

신간회 활동하며 고초도

"청년이여 만해를 배워라"
동시대 지성들 극찬의 평가

"조선불교의 부흥을 도모할 때 원종(圓宗)의 맹약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단을 별도로 세워야 원종을 자멸케 함이 첩경이라는 견지에서 조선 고유의 임제종을 창립하였다."

만해스님이 1931년 박한영·진진응 스님과 창종한 임제종에 대해 술회한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불교를 장악하기 위해 사찰령 반포를 앞두고 있었던 조선총독부의 탄압으로 1912년 4월까지만 해도 서울 대사동(大寺洞)에 개설되었던 '조선임제종 중앙포교당' 간판은 철거되었다. 당시 임제종의 관장대리였던 만해스님이 한국불교(임제종)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고 싶었던 포부는 물거품이 되었으며, 이 일로 스님은 경성 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압송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임제종운동을 통해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지키고자 했던 스님들의 노력은 선학원 설립으로 이어졌다. 예컨대 남전(1868~1936)·도봉(1873~1949)·석두(1882~1954)스님이 설립자금을 모았고, 임제종운동에 참여했던 만해·용성·만공스님 등은 설립이념을 민족불교의 확립과 한국불교의 정체성에 두었다.

만해 스님은 선학원 설립 이듬해 쇠락한 한국 선불교를 중흥시키고자 선우공제회(禪友共濟會)를 조직했을 때는 수도부(修道部) 이사소임을 맡았다. '이사(理事)' 소임은 선학원이 선우공제회를 통해 재단법인 인가를 받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였다.

만해 스님은 이후 백담사와 선학원에서 번갈아 가며 주석하였다. 1926년 시집 〈님의 침묵〉이 회동서관(匯東書館)에서 간행되었을 때는 선학원의 6대 이사장을 역임하셨던 석주 정일(昔珠正一, 1909~2004)스님이 인쇄부터 책 만드는 일까지 도와드렸다고 한다.

이 해에 스님은 6·10만세운동으로 선학원 근처에 잠복해 있던 일본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기도 하였다.

6·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純宗)의 인산일(因山日, 장례식)을 계기로 일어난 항일독립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일제의 억압과 탄압이 날로 심해지자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민족진영과 공산사회주의자들이 합세하여 일으킨 독립만세 시위운동이었다. 이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게 붙잡힌 학생 수는 서울에서 210여 명이었고, 전국적으로는 1,000여 명이나 되었다.

이 6·10만세운동에 자극받아 1927년 국내에 있는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공산주의자 간의 타협에 의해 반일민족유일당운동인 신간회(新幹會)가 조직되었다. 만해 스님은 신간회 창립 당시 중앙집행위원이 되었고, 7월 10일에는 경성지회장에 임명되었다. 석주 스님의 회고에 의하면 "경성지회장 시절 선학원에서 회의를 많이 했다"고 한다.

신간회는 일제강점기의 가장 큰 합법적인 사회정치단체였지만, 결사체(結社體)로서 항상 일제의 주목을 받았다. 1928년 말에는 국내외에 143개의 지회와 3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으니 당연히 일제의 감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이후부터는 신간회가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기도 하였다.

이상하게도 그이 방에는 책이 한 권도 없었지. 각 종교에서 여름에 한 번씩 공동 강연회를 개최했는데 한용운스님이 제일 인기를 끌었지. 마치면 예수교 사람들은 처음부터 질문하지 말라 하고 질문을 안 받았어. 그런데 한용운 스님은 질문을 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매달리고 난리가 났지. 그러니까 사회자가 나와서 미안하지만 개인적으로 질문하라고 떼놓고 그랬지. 아주 웅변가야

-석주스님의 만해스님 회고에서-

일찍이 스님이 술회한 대로 '넓은 세계에 대한 관심과 생활의 방편'으로 집을 떠나 1896년 설악산 오세암(五歲庵)에 입산한 이래 부처님의 말씀을 비롯한 불가(佛家)의 내전(內典)을 기반으로 불교혁신론의 기초가 된 외전(外典)의 탐독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그였다.

더욱이 1908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일본을 방문, 주로 토쿄(東京)와 교토(京都)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물을 익히고, 일본의 풍물을 몸소 체험하였고, 만주와 시베리아를 유랑하며 민족의 암울한 현실과 나라 잃은 백성의 서러움을 뼈저리게 느끼기까지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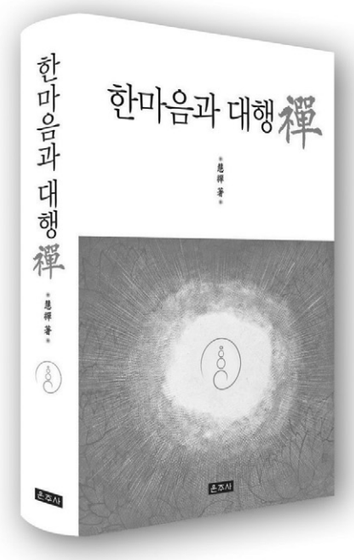
잔재주와 현란한 말재주에서 비롯된 연설이 아닌 몸으로 느끼고 골수에 사무친 정신으로 쏟아낸 한 덩어리 붉은 피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은 만해스님을 위한 추모사에서 위당 정인보의 애도사 한 구절을 인용하였다. "풍란화(風蘭花) 매운 향내. 당신에야 견줄 손가"



오경후(한국불교선리연구원 선임연구원)

대행 큰스님 원적 1주기 기념 출판!



한마음과 대행禪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마침내 온 우주와 함께하는 한마음인 것이다

대행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책!

각고의 고행, 치열한 수행정진, 동체대비심의 무애행과 자애로운 보살행을 보여준 이 시대의 참된 대승보살!
독창적인 선사상과 수행 체계를 세우고, 참선수행의 대중화, 보편화, 현대화를 이끈 시대의 큰 스승!

나라는 경계가 있다면 아직도 죽지 못한 것,
상대가 어떻게 행하여도 모두가 주인공 나툼일 뿐이다.
모두가 주인공!

慧禪 저/신국판양장/624쪽/2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지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말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체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잡일을 즐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 숫타니파타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2)588-4606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434-5990
010-8730-569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범음범패 학인모집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선암 (부산 진시장 앞)
010-6569-1010

불교의학 장생법회

(사대천왕 항마법)
1. 수행자는 공부의 장애를 다스리고
2. 신도에겐 질병의 고통을 다스린다.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강 주 : 유리광
장 소 : 서울 동대문구 하정로 50-1(201호)
연락처 : 010-7387-2833

각종 불사 상담 (단청,탱화,개금,신축)

저렴하게
해드립니다
문화재청 화공 기능 보유자
011-9387 -1518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모든 고민은 네이버에서
"샤먼노트"를 검색해 보세요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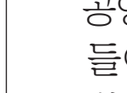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불사용(佛事用) 달마도 보급안내

불사하시는 스님들을 위하여
청암 친필 달마도를 정성껏
저렴하게 그려 드립니다
보급처 051)202-8770
010-2953-8770
* 달마도 전문 표구사 직영합니다.
부 산 청 암 달 마 원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기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불사에 필요한 그림 보시함

목단꽃,잉어,말,용,
소나무,달마도 등
어떤 크기 어떤
그림이라도 원하시는
작품을 직접 그려드립니다
010-8718-6262
국전수상경력 혜인 합장

최면

전생,빙의퇴마,
우울,각종심리
치료 (6회완성)
개인지도 직접상담
역학 명리학 속성완성
작명,궁합,사주
010-9342-9794
051-517-9793

지장기도를 통해 그 자리에서 영가천도 환자의 몸속에 숨어있는 빙의령 확인

빙의,우울증,신병,대인기피,암,원인불명,
질환,악성피부질환,아토피,인생상담
지장보살님의 빛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낀다
스님,보살님,법사,일반인치유 및 제자양성
인체전기파동의학원
010-9242-5259

불교의식(범음,범패)학인모집

실전위주 교육(재가불자가능)
불공의식,천도재,49재,점안식
천수바라,나비무
010-9263-8057
부산 은진사. 인호, 수법 합장

악성피부질환 해결

전통의약 자연치유비법으로
악성무좀,악성종기,악성골수염,
악성피부염,재발하는 축농증,
아주심한 아토피염, 버거씨병,
기타 등으로 병원에서 완치
어려운 분에게 해당됩니다
아픈스님께는 무료 보시합니다
010-3028-6579

불교 범음범패 학인모집

실 전 교 육
– 사물(태징, 목탁, 송주북,
정근북, 법고)
– 천수바라, 작법(나비무),
49재, 천도재, 점안등
경남 양산시 주남동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최 선 생 실전사주 수 업 공 개

–기초는 배울만큼 배웠지만
실전에서 헤매는 분들을
위한 고급 과정임
–매주 화,목요일 오후 5:30~7:20
–명리철학연구실
(종로6가 신신시장 건너편)
010-2382-3788
*신설 기초반은 7월초 개강예정

지장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 빙의 퇴마
천병,신병,우울증,대인기피증,
틱장애,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가정풍파, 엑스시스트에서도
치료 못하는 환자치료,
스님 법사 보살님도 상담환영
(천상을 여는 금강사)
010-2418-6222

향기도의 비법

• 어떠한 소원도 이루게 해주는 기도
이기도법을 원하는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032)664-0048 / 011-741-0867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010-5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
보시금 130만원,
숙식제공, 출퇴근 가능
010-6789-4952

사찰 관리하고 기도할 비구, 비구니 찾습니다

불자 부부 및
출가행자 환영
(강원도)
010-9421-0730

불심과 신심이 돈독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도심속 청정기도도량–
(부산, 60 ~ 65세)
010-6582-3137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관악구 약수사)
02)877-7514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게 • 운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총무스님 010-5511-7000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삼천사 인덕원에서는 여조리원 (숙식제공) 및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모집합니다

주5일(주,야간교대) 4대보험,퇴직연금,
급여상담후결정, 불자환영합니다
02-3156-7509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40~50세)
부산
010-6575-1719

신심있는 법당보살, 공양주, 처사님 함께하실 비구스님 모십니다

011-774-4099

공양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숙식제공 가능한 곳)
지역 상관없음)
010-3787-0108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으로 장례전문인력의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자성주(자성사리) 수익사업

친환경 납골문화의 21C 선두기업
고인의 유골을 섭씨 23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아름답고 품위있게 自性珠(구슬사리)로 생성하는 기계.
대도시 및 종교시설. 문중사당. 가정에서 모심
전국지사 및 사업동반자 환영
1899-1042. 010-3679-1080
(주) 보은의 사랑

무료공개강좌 (영가찾는법 강좌)

생년월일시로 간단하게 찾는 법과 사주로 쉽게 찾는 법 등과 운에서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왕초보라도 가능함.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찾아 기도를 해주어야 모든 일이 풀린다.
무료공개강좌 –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
– 명리기초 및 영가특강반 :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통신강의 ☞ 지방거주나 시간이 없는 분 – 통신강의는 DVD 보내드림
백암역리원 ☎ 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옆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청주)
010-3691-5865

60대 비구승입니다 열반처를 찾습니다 깊은 산속이면 더 좋습니다

010-3066-1080

빙의(신병) 퇴마

퇴마 및 최면요법 과정
1. 개강 : 2013. 8. 3 (토요일) 오후 2시 개강
2013. 8. 5 (월요일) 오전 10시 개강
2. 참가비 : 200만원 (8회, 과정별 교재제공)
3. 선착순 5명 그룹지도 (상담 후 수강결정)

퇴마특별과정 : 배웠으나 퇴마 못하는 분
1. 개강 : 2013. 8. 4 (일요일) 오후 2시 개강
2. 참가비 : 100만원 (4회, 문답식 교육, 문제해결)
3. 선착순 5명 그룹지도 (상담 후 수강결정)

개 인 지 도
1. 기문둔갑, 성명학, 빙의 퇴마와 최면요법
2. 시간, 장소 (서울과 의정부) 상담 후 결정
3. 지방출장 지도 2명이상

상담 : 예약상담
* 사주상담 * 심리상담, 우울증, 공포증 * 빙의퇴마
* 무 속 인 : 말문이 안터지는 분, 허주, 법당정리
* 빙의 (신병) : 출장상담 및 출장 퇴마

• 신간 :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 주문 :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 비룡정사
• 저자 : 제행 스님 직접상담 및 지도
• 전화 : 011-772-4606. 02)588-4606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개강기념 8월 수강료 20%할인 혜택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육임CD프로그램 효 사 비 결

정확합니다
당면사 / 일생사 / 성부단정이
확실 합니다.
정가 600만원
고복자 효사
02)738-8680

"기적을 일으켜 주고있는"

생전예수재기도

이 기도가 자신의 운명과 운세를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7일 마다 한번씩 20분정도 집에서 쉽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준비 되어있는 기도문 내용을 방편 앞에서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현재 다음과 같은 일들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생전예수재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 기도로서 자신의 삶이 바뀝니다.

(1)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현재 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특히 불치병 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3)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자주 막히고 진행이 잘안된다.
(4) 결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5) 결혼후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
(6)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하다.
(7) 취업이 잘 안되고, 되어도 좋은 직장이 안된다.
(8) 무슨 시험이든 운이 약하게 작용하여 합격이 어렵다.
(9)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잘 안된다.
(10) 직장에서의 승진이 어렵다.
(11) 앞으로 남은 생의 삶은 정말 새롭게 잘 살아 보고싶다.
(12) 특히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다면 이 기도를 필히하십시오.

이상의 내용에서 몇 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본 회에서 무료로 보내드리는 「**생전예수재의 필요성**」책자를 신청하여 읽어 보신 후 마음이 닿으시어 기도 신청을 하시면 바로 집에서 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스님들께서는 이 책자를 받으셔서 읽어 보시고 신도들에게 펼치시고자 하시면 별도로 전화 주십시오.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 지 관 음 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 게재일 : 접수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진정한 수행자는 새벽녘에는 정진하고, 낮에는 부지런히 일하고
밤에는 경을 읽어 스스로 통달해야 하느니라. 잠은 될 수 있는 한 적게
자고, 항상 무상의 불길이 모든 세상을 태우고 있음을 관찰하여 묵묵히
해탈의 길을 걸어가라

- 불교유경 -

삼 보 사 찰 안 내

삼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은평,의정
- 법당 : 20
- 요사 : 20
- 포교원 1000/70
- 시설비 약간

- 위치 : 서울
- 대지 : 20
- 법당 : 50*2동
- 대지 : 1000
- 가액 : 6억

- 위치 : 포항
- 대지 : 350평
- 법당 : 26평
- 요사 : 3채방5개
- 가액 1억8천

※서울 경기 경남 부근 매도사찰 급히 구합니다.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전화 환영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찰 및 토굴안내

낙동강변 예쁜 토굴

- 총 대지 : 약 200평 (반월리)
- 요사채 40평, 아자형 황토방 10평
- 마금산온천, 부곡온천 10분거리내
- 주남저수지와 낙동강변의 전망 최고
- 사찰형담장, 앞마당 잔디, 소나무 다수 식재
- 왕대밭과 솔향이 어울러진 토굴
- 양도가 2억 7천만원

토 굴 안 내 (경주)

- 총부지 : 800평
- 법당 요사채 60평
- 야생화가 어울러진 아름다운 토굴
- 주변경관 수려함, 텃밭 200평
- 양도가 : 3억 5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강원도 토굴 다량확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소재
- 부지 : 2,000평(종교용지)
- 법당 30평(목조, 단청), 요사채 2동 60평
- 기타 : 석탑, 연못 등
- 가액 : 7억 2천만원
- 특징 : 고속도로IC에서 5분거리이며 주위경관과 조경이 어우러진 도심인근의 포교도량임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소재(호미곶)
- 부지 : 150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청기와, 단청 3청)
- 요사채 : 40평(2층)
- 종무소 : 40평 (1층)
- 가액: 2억 9천만원
- 특징: 바닷가 명소에 위치한 해수관음도량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5848-0455/ 서울 010-5828-0455

좋은사찰(급) 안내

- 위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 평수 : 640평(대지 363평 기타 277평)
- 건물 : 법당 약 30평 요사채 2동 (각 28평)
- 미륵불 , 조경/시설완비 ,주차장
- 양도 : 49,000만원

010 - 6422 - 121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강원도 속초시내(중앙동)
- 4층 건물에 3층. 80평
- 시설완벽, 몸만 오시면 됨
- 아미타, 대세지, 지장, 관음
- 2013년 3월 점안
- 전세 2500만원
- 시설비 4500만원 절충불가함

010-3750-5424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나주시
- 대지 약 90평, 건평 57평
- 법당 2층 27평, 스님 접견실
- 요사채 : 1층 접견실, 거실방
- 비구니 스님 적격임
- 가액: 2억 6천만원
- 현재 운영중

011-9625-1400

사 찰 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시 신녕면
- 갓바위 뒷편(답)
- 절터 3000평 건물 60평 1동
- 화장실 2칸 1동, 창고 1동
- 대형차 진입가능
- 대지 조성완료
- 스님이 말한 소꾸리터
- 가액: 6억

010-6253-310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 군포시 재궁동
- 평수 : 100평, 상가건물
- 법당, 공양실, 접견실, 방2개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 160만원
- 불교대학운영, 다도반, 참선수행
- 전철역세권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3777-9496

사찰 및 전원주택

- 경북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부근
- 의성 IC에서 10분거리
- 서남향
- 대지 건물포함 1,200평
- 가액: 3억 (조정가능)
- 화강암돌 원두막 1채
- 80년 된 소나무 100그루 이상

010-4811-0301
010-9828-5973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김천시 종합운동장부근
- 시설 잘되어 있는 전통형사찰
- 대웅전(90㎡), 지장전, 삼성각, 전통목조
- 토지(대+전) 5,000㎡
- 양도가액: 8억 8천만원(융자있음)

010-7347-1010
이박사공인중개사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 남구 대로변
- 2층 75평 3층 75평
- 전세 500만원 / 월 60만원
- 공양간, 찜질방
- 전세가능
- 전세 1,000만원 / 월 60만원
- 법당, 산신, 관음전
- 몸만 들어오시면 됨, 시설비 절충

010-4071-3718

포교원사찰 및 불교대학

- 위치 :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 3층건물 3층, 100평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 차고, 심야전기, 인테리어 최고시설
- 법당 60평, 큰방2, 작은방1, 큰주방
- 욕실, 화장실 3층 내 스님 요사채
- 거실, 욕실, 주방, 방큰방 2개
- 전세 5000만원, 집기시설보시고 결정
- 옥상사용, 방수공사, 창고 방2개
- 꼭 하실분만 연락하세요

010-4912-5007

신축 사찰(급)안내

- 남양주시 청학동,별내신도시 인근 (서울상계동에서 차로15분거리)
- 종교용지,전,도로 합500평
- 건평:147평(대웅전,지장전,사무동)
- 2013.5월/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됨
- 2011년 신축 (주차장 있음)
- 양도가격 : 18억(융자 6억포함)

010-4299-5388

암 자 안 내

- 위치: 부산 진구 부암동 최요지
- 법당: (미타, 약사, 관음, 지장) 호신불 150 공양실 1, 스님방 1, 텃밭, 소대
- 시설완벽 주변좋음, 몸만 오시면 됨
- 버스정류장 3분거리
- 100平정도(개인) 보증금 1천8백만원, 월 33만원
- 비품 시설비 절충

051)803-1580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공주시 유구읍 (시내 10분거리)
- 평수 : 72평
- 법당, 방3, 화장실2, 거실, 주방
- 가액: 9천만원(절충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041)841-5772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서구 대평리 시장 부근
- 3층건물 중 2층 40평
- 시설 최상급
- 삼존불, 산신,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 방 2칸, 상담실, 살림가능 (108불 인연불)
- 총 2천 5백만원 (보 300만원, 월35만) 포함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010-8339-5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가흥2동 472번지 금 명 사
- 법당, 산신각, 방 2개, 욕실, 주방
- 월세 : 1년에 200만원 (가격조절가능)

011-9370-7513

아담한가옥(암자터)

- 위치: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 경관 좋은 명당 길지
- 동산 내 6부 능선, 가옥 20평
- 앞에는 바다가 보이고 상가 마을이 한눈에 다 보임
- 가액: 2천 3백만원

010-2878-338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대문구청 앞
- 평수 : 50평
- 삼존불 108불, 산신, 칠성
- 방2, 상담실
- 보증금 1천 7백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4500만원

02)394-74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2층 건물
- 1층 요사채 35평, 2층 대법당 30평, 산신각 5평
- 법당, 산신각, 인등, 산신불, 관음불, 지장불, 영단 후불탱화(입체금탱화)
- 황토방2, 주방 15평
- 조경시설, 과실수, 텃밭, 우물, 용궁
- 즉시법회가능, 집기일절
- 가액: 4억 5천만원

010-4561-2149

안 면 도

- 전원주택 및 사찰,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 명상센터, 체험학습장 등
- 건물 2동(48평, 30평)
- 대지, 전, 잡종지 : 5246㎡
- 국유지 : 990㎡
- 가액: 6억 5천만원
- 건물 1동 (48평)
- 대지 전 4555㎡ (가액 5억)

010-9253-2527

사찰(급)안내

- 도심속에 산사의 맛을 풍기는 사찰
- 위치 : 부산 사하구 관내
- 대지 215평
- 가액 : 6억 9천만원
- 은행융자 3억원 (절충가능)

010-6237-596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 남구 영대병원 지하철 부근 2층
- 평수 63평, 방3
- 삼존불, 인등, 연등 외 시설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900만원(상담후 절충)

070-8784-2010
010-5011-409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수행도량, 조용, 530고지)
- 등기평수 4423평 중 종교부지 375평
- 임법당 조립식판넬 19평 기타 9평
- 대지 180평 조립식판넬 요사채 3동
- 창고 1동 외부화장실 과수원 2700평 8년생,3년생
- 가액 : 5억5천만원
- 답사후 절충가능

010-4726-6496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 법당 : 20평, 요사 2동
- 대지 149평
- 가액: 5억 3천만원
- 기와 단청 17평, 10평
- 도심 속 포교에 최적지

011-811-546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 총평수 827평, 건물 법당 요사채 합쳐서 약 50평
- 산신각 약 5평, 용왕당 약2평
- 가액 : 3억 3천만원

010-8034-8309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 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황토방
- 주차 40대가능
- 가액 : 상담 후 조정 (현지 답사 수 조절가능)

010-9889-3188

포교원안내

- 양산시 북부동 동양산 농협 옆
- 평수 : 90평, 방 5개, 법당 35평
- 삼존불, 산신용궁, 영가단, 후불탱화, 소불 206불
- 전세 4천 5백만원 / 월 50만원
- 시설비 : 상담 후 절충

010-8384-775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진주에서 15분거리)
- 부지 : 1000평
- 법당 : 20평(목조) 요사채 25평 산신각 3평
- 조용하고 전망좋고 옆 작은개울 흐름
- 가액: 3억 (보시고 절충가능함)

011-586-8696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 대지 120여평 임법당 20평
- 요사 15평 창고 7평
- 차량 마당 진입 가능
- 집기 일체 양도
- 가액: 9천만원(절충가능)

010-6308-7320

포교원안내

- 위치: 김해시 진영 구역전 앞
- 도로변 9평
- 포교하기 좋은곳
- 보증금 500만원, 월10만원
- 시설비 25만원

011-829-7738

포교원안내

-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시장입구
- 4층, 승강기 이용, 총 83평 법당외 방 3개, 주방, 욕실
- 아미, 대세지, 관음, 칠성, 산신, 용왕, 나반존자 포대
- 화상, 소불 108불, 인등 칠보 500불, 에어컨3대
- 시설A급, 보증금 1500/월 50
- 시설비 3500만원

010-9798-1091
010-3870-3673

임법당(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길곡면
- 창녕 부곡 관광특구 5분거리
- 건물1층 60평, 2층 30평
- 중증 30평, 마당 텃밭 502평
- 불교대학 가능(강당 아주 큼)
- 조경수, 유실수 (약 20종, 400그루 이상)
- 수학 가능함 스님 입원관계로 급 양도
- 가액: 4억 7천만원

010-3898-3499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경동시장 내 제일학원 뒤
- 천응당 한의원 안집
- 철학관하기 좋은 곳
- 한옥1채, 방3개
- 보증금 4천만원, 월40만원(전세가능)

02-961-8835
010-8650-7835

사 찰 안 내

- 위치: 광주 나주 중간 도심근교
- 토지 400평
- 법당, 요사채
- 가액: 1억 3천만원
- 꼭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011-9602-2293

불교용품 전문점

- 위치: 서울 급 양도함
- 점포 30평
- 창고 20평
- 가격은 상담 후 결정 현재 성업중
-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4055-1214

별장식 토굴

- 마산에서 20분, KTX역 5분
- 대지 : 132평, 채소밭, 과일밭, 죽림, 산
- 건물: 임법당1, 방4, 주방2, 욕실2, 세탁소2, 창고1
- 특징: 산수, 공기, 물 등산로 교통 최고 우수한곳
- 적격자: 불심 깊은 부모나 은사님 모시고 사실 비구니 스님
- 환경: 최고의 환경 , 가재도구 일체 제공
- 가액: 9천만원

011-578-1413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사찰
- 면적 : 130평
- 법당 : 50평
- 요사 : 50평
- 가액 : 18억

- 위치 : 경기
- 부지 : 220평
- 법당 : 35평
- 요사 : 40평
- 양도 : 6억5천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지리산 청학동 사찰 양도

- 위치 : 청암면 묵계리(계곡접)
- 면적: 1815평, 법당 목조 30평, 산신각 목조 7평
- 요사채 25평, 창고 1동, 해우소 1동
- 난방,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사용
- 수도(자가 및 마을공동겸용)
- 양도가: 13억원, 최상의 명당터 동향임
- 부지조성완료

010-3403-3355

선 ~ 정토 터 안내

- 위치 : 경북 영주 시내에서 15분 거리
- 산에 위치하나 지목이 밭(과수원)임
- 산 정상까지 묘, 송전철탑 등이 전혀 없음
- 구포란형(龜抱卵形)으로 백두대간이 보이며 전망 경치가 좋음
- 도로(주차장포함), 전기, 부지 정리 완료
- 12년생 금강송 9백그루(3억 상당) 무상 양도
- 총 5,266평(평당 6만 3천원)(금/토/일 중 방문예약)

016 - 573 - 2032

사 찰 부 지

- 가평군 상면 율길리
- 금계포란형 2만평, 평당 16만원
- 이메일 주시면 토지주가 직접 번지를 공개하겠습니다
- 원로(큰스님) 모시고 좋은 일
- 하실분 현장답사 후 연락 주세요

soonlee2010@hanmail.net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포항시 해수욕장 앞
- 대지 약 700평, 건평 목조건물
- 1층 약 60평, 2층 약 60평
- 오존불
- 가액: 보증금 3000만원 / 월50만원 시설비 보시고 가격 절충

010-3516-6700

도심속의 작은암자

- 위치 : 부산시내(북구) 주차용이
- 1층 와가 방2칸 약 26~30평정도
- 법당 : 삼존불, 신중, 영가단. 산신용왕별도
- 국유지 : 사용료 내고 있슴
- 6천 8백만원(조절가)

011-575-9707

종 교 관 련 시 설 터

- 요양시설, 수련원, 선방, 포교원 등
- 서울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 자락)
- 평수 400평(대로에서 200m)
- 건물 : 약 40평 있음
- 특징 : 산 밑에 위치한 산세수려한 조용한곳
- 토지거래 해제 및 개발완화로 문화관련 시설 및 신축도 가능합니다
- 가액: 20억

011-372-7744

토 굴 안 내

- 위치: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소재지
- 가액: 1억 2천만원(절충가능)
- 대지 100평, 법당 20평
- 공양간 7평, 스님방1칸 (종무소겸)
- 비구니스님에게 적합
-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9183-06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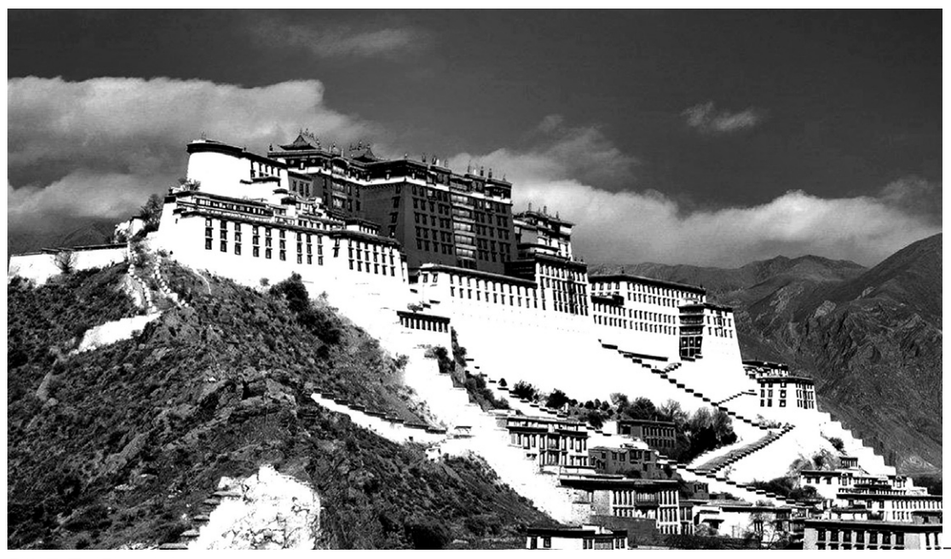
자비심 일깨우기

초걈 트룽파 (승려 · 티베트)

〈1〉 수행을 위한 기초 다지기

‘관대함 바라밀’ 계발… ‘소원성취 보석’ 상징

티베트에서는 마음 훈련을 로종(lojong)이라 부른다. 로(lo)는 ‘지성’, ‘마음’, ‘대상을 인식하는 것’ 등을 의미하고 종(jong)은 ‘훈련’이나 ‘가공 처리’ 등을 의미한다. 로종의 가르침은 여러 단계, 또는 요점들로 이루어진 대승의 수행법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마음 훈련, 즉 로종의 기본 수행은 마음을 정화시키거나 가공 처리하는 일곱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자비심 일깨우기〉(참글세상 刊)는 카담파의 기본 경전인 〈일곱 가지 마음 훈련에 관한 근본 경전〉과 이 경에 대한 잠곤 콩툴의 주석서를 기반으로 티베트 불교 승려 초걈 트룽파가 펴낸 책이다. 책에서는 수행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고 깨우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살피며, 나를 찾았을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임을 간결하면서도 쉽게 알려준다. 본지는 이 책의 내용을 격주로 7회에 걸쳐 발췌 · 요약해 싣는다. 〈편집자 주〉



티베트 포탈라궁 전경.

초걈 트룽파(Chogyam Trungpa, 1939~1987)



티베트 카규파의 11대 활불(活佛)로 서구에서 유명한 티베트 불교 승려다. 1959년 티베트를 떠나 인도에 머물던 초걈 트룽파는 1968년 영국에서 삼예링 불교센터를, 1970년 미국 콜로라도주에 서양 최초로 인가받은 불교대학인 나로파(Naropa Institute) 불교대학과 샴발라 명상센터를 처음 세우고 서양에 티베트 불교를 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천재적 언어 감각을 지녔던 그는 서구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던 어려운 불교 용어와 교리들을 쉬운 용어로 가르쳤다. 또한 그는 상대를 보면 어떤 경계에 있고, 그에 맞는 수행법은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차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스승 역할을 했다.

네 가지 기억 지니기

주제를 대상으로 수행하거나 일상을 영위할 때 당신은 ① 인간 삶의 소중함과 불교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난 행운을 기억해야 하고, ② 죽음이 경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당신은 ③ 카르마의 속박에 관한 진실, 다시 말해 선행이든 악행이든 모든 행위는 자신을 인과의 사슬에 더 얽매이게 할 뿐이라는 진실을 항상 자각해야 하고, ④ 당신 자신과 지각 있는 모든 존재들이 겪게 되는 고통의 강도와 그 필연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티베트에서는 이것을 ‘네 가지 기억 지니기’라고 부른다.

이런 태도를 기반으로 해서 당신은 헌신적인 마음으로 스승을 방문하고, 그 스승이 일으키는 온전성의 분위기 속으로 당신 자신을 초대하며, 더 이상 무지와 고통이 일지 않도록 그 뿌리를 자르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한다. 이것은 마이트리(maitri), 즉 사랑이 깃든 친절함(loving kindness)이란 개념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다. 종교적 여정에 관한 전통적 가르침에서는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당신에게 길을 보여주는 그 사람뿐이라고 한다. 부모나 친지 등과도 애정에 찬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관계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당신의 신경증적 성향이 관계 속으로 얽혀들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순수한 사랑은 스승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 이상적인 교감의 대상은 하나의 시작점으로, 신경증 너머에서 맺어지는 관계를 익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특히 대승불교에서 스승은 침체됐을 때는 힘을 북돋아주고 너무 들떴을 때는 아래로 끌어내려 주는 일종의 조절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스승은 이런 점에서 중요한 존재로 여겨진다. 이 주제는 삼사라(고통, 구속, 광기의 전형)와 스승(개방성, 자유, 온전성의 구현체)을 대조시킴으로써 모든 수행의 근본적 기반을 드러내 보인다. 그것은 금강승 전통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가르침이다.

절대적 보리심과 관대함 [布施] 바라밀

궁극적 보리심, 또는 절대적 보리심은 소원을 이뤄 주는 보석으로 상징되는 관대함 바라밀의 계발을 기반으로 삼는다. 관대함이라는 뜻의 티베트어 단어인 진파(jinpa)는 ‘베풀다’, ‘열다’, 또는 ‘나눠 주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관대함이라는 개념은 움켜쥐지 않고 끊임없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관대함을 스스로 존재하는 개방성, 완전한 개방성이다. 당신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계획이나 야심을 충족시키는 데 얽매이지 않게 된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열어 젖히는 최선의 방법은 자기 자신 및 다른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것이다.

관대함의 반대는 인색함, 또는 움켜쥐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빈곤한 정신성을 갖는 것을 뜻한다. 절대적 보리심 관련 주제들에 내재된 근본 원리는 제8식, 즉 알라야(alaya) 안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산만한 생각들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알라야는 근원적인 의식 상태로서, 의식이 ‘나’와 ‘타인’으로, 또는 다양한 정서들로 분할되기 이전의 지점을 나타낸다. 그것은 모든 것이 처리되고 모든 것이 존재하는 기본 바탕이다. 알라야의 본성에 머물며 휴식을 취하려면, 당신은 빈곤한 정신 상태를 넘어서서 자신의 알라야도 다른 누구의 알라야 못지않게 좋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당신은 넉넉한 느낌과 자기충족감을 느낄 것이다.

절대적 보리심은 절대적인 공(shunyata)의 원리와 비슷하다. 절대적 공의 원리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절대 자비에 대한 근본적 이해도 함께 동반돼야 한다. 공은 말 그대로 ‘열려 있음’, 또는 ‘비어 있음’이란 의미를 지닌다. 이 비존재성을 깨닫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자애로워질 수 있고 더 많이 베풀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문제는 보통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역을 움켜쥐고 그 특정한 기반을 고수하려 한다는 점이다. 일단 그 기반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베풀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지게 된다. 공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게 없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공격적이지 않으며, 열려 있는 존재란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비는 우리 내면에 ‘유연한 지점’이 있다는 느낌에 기반을 둔다. 그것은 마치 몸에 아주 쓰라린 돌기를, 너무 쓰라려 문지르거나 긁고 싶지도 않은 돌기를 지니는 것과도 같다.

왜 그럴까? 엄청난 공격성과 둔감성, 또는 게으름의 한가운데에서조차 우리는 항상 유연한 지점을 지닌 채 그것을 계발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상처 입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이런 쓰라린 지점을 기본적으로 지니며, 이는 동물도 마찬가지이다. 열린 상처, 이 말이 더 생생한 비유일 듯하다. 열린 상처는 항상 거기에 있다. 이 열린 상처는 대개 아주 불편한 골칫거리다. 우리는 그것을 싫어한다. 우리는 강인함을 원한다. 우리는 자신의 어떤 측면도 방어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 싸우고 싶어 하고 강인한 면모를 드러내고 싶어한다. 우리의 기본 기질, 마음의 기본 구성요소는 이처럼 동시에 열망과 자비에 기반을 둔다. 이 쓰라린 지점은 보통 배아상태의 자비, 잠재적 자비라 불린다. 이처럼 우리는 적어도 일종의 틈, 어떤 어긋남을 존재 상태 내에 지니고 있고, 이로부터 근본적 온전성의 빛이 새어나올 수 있다.

절대적 보리심… 끊임없이 주는 관대함
꼬원리 비슷, 자비실천 통해 이해가능

상대적 보리심… 어머니의 자애 본보기
범위확대, 자기보다 타인 더 소중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여래성(tathagatagarbha), 또는 불성이라 불리는 내면의 상처도 있다. 여래성은 마치 절단한 뒤 지혜와 자비로 상처를 익힌 심장과도 같다. 이 외부의 상처와 내면의 상처가 만나서 소통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의 쓰라린 지점으로 온전히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티사트바의 열병’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 취약성이 바로 자비다. 우리는 정말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가 없다. 거대한 우주적 상처가 전역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내면의 상처와 외면의 상처는 동시에 찬 공기와 더운 공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대기의 사소한 교란에도 민감하다.

절대적 보리심은 오직 자비의 실천을 통해서만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순전히 논리적이거나, 지적이거나, 과학적인 결론만으로는 그 이해에 가닿을 수 없다.

자비심을 계발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온전히 ‘있는’ 법부터 이해해야 한다. 할머니를 사랑하는 법, 벼룩이나 모기를 사랑하는 법 등은 나중에 다룰 문제이다. 그리고 자비의 상대적 측면은 훨씬 더 뒤에 다뤄야 한다. 우리가 절대적 보리심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타인을 자애롭고 친절하게 대하기 위한 실제적 기반을 결여하는 셈이 된다. 무작정 적십자에 가입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봐야 폐만 끼치면서 더 많은 골칫거리만 만들어 내게 될 것이다.

절대적 보리심, 또는 궁극적 보리심을 일깨우려면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한데 통합시켜야 한다. 사마타의 기본적 정밀성과 위빠사나의 총체적 자각을 익혔다면 그 둘을 한 데 모아 그것이 우리의 전존재(행동양식과 일생생활)를 뒤덮게 해야 한다.

그러면 명상과 명상 후 수행 모두에서 알아차림과 자각이 항상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잠을 자든, 깨어 있든, 밥을 먹든, 어슬렁거리든 상관없이 명료한 각성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된다.

상대적 보리심과 규율[持戒] 바라밀

상대적 보리심을 일깨우는 훈련은 규율 바라밀과 연관돼 있다. 티베트에서 규율 없이 수행하는 것은 다리 없이 걷는 것과도 같다는 말이 있다. 규율이 없이는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상대적 보리심은 어떤 상황에서든 부드러운 마음을 지닐 수 있다는 단순하고도 기본적인 깨달음의 경험을 통해 일어난다. 상대적 보리심은 서로를 사랑하는 법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어디서부터 배워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연관돼 있다.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순수하게 주기만 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것은 배우기가 아주 힘들다.

현상의 본성이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그 자체로 비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사랑이란 개념을 무한대로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방해물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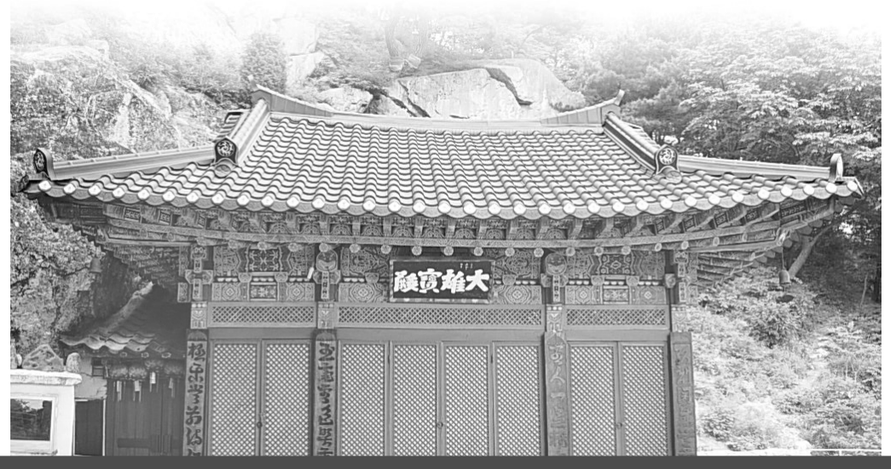
어머니와 아이와의 관계는 상대적 보리심에 대해 다룰 때 자주 동원되는 비유이다. 중세 인도와 티베트 전통에 의하면 어머니를 자애의 본보기로 삼는 것이 상대적 보리심을 계발하는 고전적 방식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상대적 보리심, 상대적 애정을 계발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어머니를 하나의 전형, 또는 흔히 말하는 등대로써 활용한다. 어머니가 당신에게 베푼 친절은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훈련을 위한 완벽한 모범이다.

우리는 적대심 · 좌절감 · 반항심 · 분노 등을 넘어선 태도를 어머니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까지 확대시키기 시작한다. 이 과정은 열망으로부터 벗어나 자의식을 굴복시키는 것을 중시하는 규율 바라밀과 연관된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어머니를 본보기로 삼는 것으로 시작해 가까운 친구들로 범위를 넓히고, 나아가 주변 사람들 전체로 범위를 확대시켜 나아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적들과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보다 나은 감정을 지니려고 노력한다. 상대적 보리심 수행은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자신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 어떤 타인이라도 자기보다 더 중요하다는 태도를 취하다 보면 우리는 마치 어깨에 지고 있던 엄청난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하게 된다. 그러다 마침내 우리는 사랑과 애정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나’라고 부르는 이곳 말고 다른 곳에도 생겨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나는 이거야, 나는 저거야, 나는 배고파, 나는 피곤해,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으로 항상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 줄 수 있게 된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 보리심이란 것은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한 무엇이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참글세상’에서 펴낸 〈자비심 일깨우기〉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죄와 복은 그림자와 메아리와 같은 것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28)

빈로공의 업

사위국에 2백 살이 넘은 가난한 늙은이가 살고 있었다. 눈썹에는 삐죽하게 긴 털이 나있었고, 귀는 머리보다 솟았으며, 이는 마치 가지런한 조개 같았다. 손은 무릎을 지날 정도로 길었다. 그는 몹시 가난했다. 옷이 없어 거의 알몸으로 다녔고, 또 언제나 먹지 못해 배는 곯아 있어, 걷는 것도 힘겨웠다.

어느 날, 늙은이는 사는 것이 너무도 힘들어 부처님을 뵙고자 했는데, 제석과 법왕이 문지기에게 명하여 그를 들여보내지 않았다. 그러자 늙은이는 큰 소리로 말했다.

"나 비록 가난한 백성이기는 하나, 천 년 만에나 만날 행운으로 부처님 때를 만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죄와 공덕을 여쭈어 이 갖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세존께서는 대자대비 하시어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들었습니다. 왜 이 늙은이만을 이리 대하십니까? 이는 성인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멀리서 알아들으시고 그를 불러서 들어오게 했다. 그는 배를 땅에 대고 엉금엉금 기어 나와 부처님께 예배하고,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착잡한 마음으로 자신의 괴로운 처지를 말했다.

"한 번 받들어 뵙기를 원하다가 이제 겨우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기력이 이미 다하여 이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다만 목숨이 끊어진 다음에 성인의 문을 더럽혀 거듭 죄를 더할까 두려울 뿐입니다. 세존께서 저를 가엾이 여기시어 이런 소원을 저버리지 않으신다면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원하건대 속히 죽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목숨을 받아 태어나는 것은 대부분 인연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너를 위해 말해주겠다. 너는 전세에 어떤 크고 강한 나라의 왕족의 집안에서 태어났었다. 그때 그대는 태자가 되어 위로는 부모에게 총애를 받았고, 아래로는 신하와 백성들의 받듦을 받았다. 그런데 그대는 태자의 지위와 신분만을 믿고 방자하게 굴면서 모든 사람들을 가벼이 여겼다. 언제나 모든 사람을 아래로 대하면서 거만하게 굴었다. 또한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 백성들의 살림을 늘 힘들게만 했다. 너는 오로지 거둬들이고 쌓아둘 줄만 알았지 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때 정지라고 하는 가난하고 검소한 사문이 먼 나라로부터 와서 일부러 그대를 만나러 갔던 일이 있었다. 사문이 많은 것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법의(法衣) 하나만을 원했을 뿐인데도 그대는 끝내 사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것도 모자라 부당하게 그를 대접하여 아주 심하게 대했다. 옷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밥조차도 주지 않았으며, 7일 동안 물 한 모금 주지 않은 채 꼼짝 못하게 했다. 그러자 사문이 탈진하여 기진맥진하게 됐다. 그때 그대는 아주 기뻐하면서 대중을 모아 놓고 그를 구경하게 하며 대단한 오락거리로 만들어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러자 모시고 있던 신하가 보다 못해 이렇게 간청했다.

'저 사문은 겉으로 보기에도 인자하고 공손하지만 속마음도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얼게 하여도 추워하지 않고 배를 주리게 해도 배고파하지 않습니다. 사문이 태자님께 구걸하는 까닭은 태자께서 복을 짓게 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법의를 주지 않음도 그렇거니와 어째서 그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입니까? 그만 그를 놓아 주시고 더 이상 죄를 쌓지 마십시오. 그러자 태자는 말했다.

'여기 이 사람이 자기가 도덕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사기를 치기에 내가 시험 삼아 조금 괴롭혀 본 것뿐이다. 그저 죽지 않을 만큼만 놀리고 이제 막 놓아주려던 참이었으니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



삽화 · 강병호

태자는 이내 사문을 떠나보내어 나라 밖으로 내쫓았다. 사문이 나라의 경계를 벗어나 10여 리쯤 갔을 때에 굶주린 도둑을 만났다. 도둑이 그를 잡아먹으려 하자 사문이 말했다.

'나는 춥고 배고픈 사문일 뿐입니다. 너무 말라서 뼈만 남았으니 냄새만 나고 먹을 것도 없을 겁니다. 공연히 죽여서 죄만 쌓는 것입니다.'

굶주린 도둑이 말했다.

'우리가 벌써 여러 날을 굶어서 조금 전엔 흙까지 먹었소. 당신이 비록 조금 마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흙보단 훨씬 나을 것이오. 절대 놓아줄 수 없소.'

이렇게 도둑과 사문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투고 있었는데, 태자가 이 소식을 듣고는 이내 달려와서 말했다.

'내가 옷과 밥도 주지 못했거늘, 어찌 도둑한테 죽임을 당하도록 놔두겠는가?'

도둑들이 태자를 보고는 모두 머리 숙여 사죄하면서 사문을 놓아 보냈다. 그때의 사문이 바로 지금의 미륵이다. 이런 인연 때문에 너는 오늘날 이런 생을 받게 된 것이다. 가난의 죄를 받는 것은 탐욕 때문이요, 오래 살게 된 것은 사문의 목숨을 구함으로 인한 것이다. 죄와 복이 저마다 마땅한 보답이 있으니 마치 그림자와 메아리와 같은 것이다."

늙은이가 말했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으나 그 업보를 이생에서 끝나게 해주십시오. 다 죽어가는 이 목숨, 이제라도 사문이 될 것을 허락하시어 후세에는 세상마다 부처님을 모시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알겠다."

부처님께서 늙은이의 뜻을 받아들이자 바로 늙은이의 수염과 머리카락이 저절로 땅에 떨어지고 법의가 몸에 입혀졌다. 몸의 기력은 다시 되살아나 강건해지고 귀와 눈은 밝아졌으며, 그 자리에서 삼매에 들었다. 그리고 게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불러갔다.

"나는 옛날 사랑받는 태자가 되어서 / 인(仁)과 의(義)를 알지 못했으니 / 귀함을 뽐내며 제멋대로 굴었으며 / 그때 큰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 스스로 죄도 복도 없다 하면서 / 이것이 언제까지 보장되는 줄 알고 / 헛되이 생과 사의 대립을 깨달았기에 / 이제야 그 재앙을 받습니다. // 죄로부터 다시 복을 받게 되었음은 / 하늘 중의 하늘을 뵙게 된 덕분이며 / 지난 죄를 해탈하고서 / 다 죽어가는 때에야 법의 문에 듭니다. // 영원히 간탐하는 마음을 여의고 / 길이길이 부처님을 멀리 하지 않으면서 / 만겁 동안 보전 유지하오리다. (〈빈궁로공경〉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㉘



함부로 살 수 없어

글을 쓴다는 것

오늘 관음재일이라 절에 다녀오는 길에 전화가 걸려왔다. 아주 오래 전, 아마도 20년도 더 전에 알았던 스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해도 스님이다. 현대불교 보시다가 나의 글을 보시고 반가워 전화를 하셨다고 했다. 스님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며 안부를 물으셨다. 우리 가족들, 아이들 이름까지 우리가 살았던 동네도 모두 잊지 않고 다 외우고 계셨다. 나도 늘 어디에 계시는지 궁금했었는데 스님 목소리를 들으니 너무 반가웠다. 더구나 신문의 내 글을 보시고 연락 주셨다니 신기하기도 했다.

오래전 어느 스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김해의 어느 비구 스님이 야구를 너무도 좋아해서 야구 경기를 야구장에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응원도 하고 싶어 미리 표를 구해 두었는데 그만 그날에 49제가 걸려 갈수도 안 갈수도 없어서 다른 스님께 대신 기도를 맡기고 비행기를 타고 서울 운동장 야구장엘 가셨단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너무 신나게 응원을 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과 달리 스님이어서 카메라에 잡혀 화면에 나오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 시간에 49제를 끝낸 가족들이 공양을 하기 위해 큰 방 요사채에

글을 쓴다는 것… '나'를 쓰는 것
인사는 나와 주변을 유지시키는 것

들어서는 순간 TV에 나온 스님을 모두 보게 되었다고 한다.

인연이라는 게 흔한 말로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져 더욱 언제 어디서 만날 지 장담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며칠 전엔 충청도 청양이란 곳에서 역시나 신문을 통해 연락이 온 보살이 있었다. 이분은 평소에 알았던 사이가 아님에도 현대불교신문 나의 '바라밀 일기'를 보고 나를 한 번 만나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했다고 했다. 보잘 것 없는 내 글을 읽어준 것만도 고마운 일인 데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니 너무 고마워서 두 내외분께 작은 선물로 여름 부채에 글 몇 자 적고 그림 그려서 부쳐 드렸다.

요즘 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나의 글을 보고 격려의 말씀을 전해오는 분들이 종종 있다. 그럴 때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함부로 쓸 일이 아니란 생각이 글 앞에 앉을 때마다 나를 경책한다. 단 한마디의 글이라도 의미 있는 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할 때 마다 글은 평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 결국 평소의 내가 그대로 글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알았다. 대중을 향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인사

부부동반 모임이 있어 남편과 함께 길을 나섰다. 마침 길 건널목을 지나는데 저만치서부터 젊은 여인이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곳은 전철역 입구여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길을 건너다보니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나와 함께 가고 있어 나는 나를 웃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물론 내가 잘 모르는 얼굴이어서 그랬다. 그런데 가까이 와서 내 손을 잡으면서 반가운 얼굴로 내게 인사를 했다. 그녀는 내가 다니는 절 신도라고 했다.

그때서야 나는 그녀에게 인사를 했다. "아! 예 안녕하세요?"라며 길 중간이어서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광경을 본 남편은 왜 인사를 그렇게 하느냐며 나를 나무랐다. 상대방의 인사에 너무 성의 없이 답례를 했다는 것이다. 그토록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얼마나 무안했겠느냐는 것이다. 그래 이렇게 해서 오해가 생기겠구나. 회장 일을 하다 보니 남 앞에 서서 이런저런 말을 해야 할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그는 나를 알았지만 내가 그를 자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처 몰라본 것일 뿐이다. 그러나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인사란 작은 일이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인연은 인연으로 이어져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와 상관이 있든 없든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 작은 행동 하나에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친구로 주변을 아름답게도 하고 욕되게도 할 수가 있으니 어찌 함부로 살 수가 있으랴.

식물도 젖 먹이 때가 있다

집 베란다에 많은 화분이 있다. 우리 집은 22층이어서 흙과 멀다. 작은 마당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꽃들을 키우게 되었다. 많은 화분에서 철따라 꽃이 피고 또 진다. 이제는 한 식구처럼 생각된다. 잘 살아주어 고맙고 감사하다. 나는 식물 중에도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이 살아있는 것을 특히 좋아한다.

내게 화분을 자주 보내주시는 분이 있다. 전 불교방송 사장님이시고 신도회장님이셨던 류진수 회장님이다. 지금까지 많은 종류의 화분을 보내주셨다. 아침에 눈을 뜨면 베란다로 나가 그 화분들과 아침 인사를 한다. 그 화분들이 집안을 향기로 가득 채워주기 때문이다. 지난 봄 처음으로 선인장과의 식물을 키우게 되었는데 작은 아기 싹이 몇 개나 달려 있어 떼어 키우다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다른 화분에다 나누어 심었다. 시간이 갈수록 아기 모종이 자꾸만 시들더니 그만 죽어버렸다. 나는 뒤 늦게 깨달았다. 아직은 엄마의 탯줄에서 자라고 있어야 할 때인데 너무 성급하게 나누는 바람에 아까운 새순들을 죽게 했다는 것을.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 후회스러웠다. 모든 것에 함부로 할 수 없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생명을 다루는 일은 더욱 그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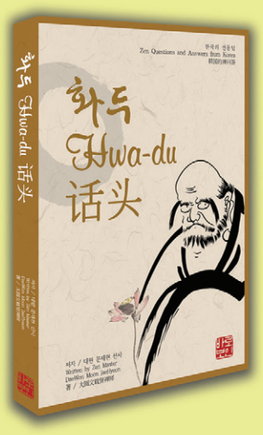
부산 연꽃모임회장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1번째 저서 출간!

* 화두 〈 한영중 3개국어판 〉

'화두'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중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 바로보인 선문염송 22권

전30권 중 제22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모든 공안을 평하고 송하여서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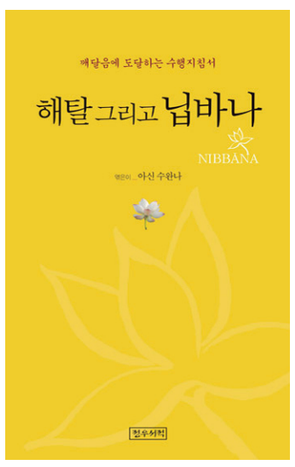
현재 31종 61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 010-9043-1016 바로보인

깨달음에 도달하는 수행지침서

해탈 그리고 닙바나 화제의 신간!

붓다가 전하는 수행의 비밀! 이 시대 최고의 수행지침서!
누구나 쉽게 열반에 이르는 알기 쉬운 불교수행법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붓다의 머리카락과도 같아서 수행자들에게는 진여의 강을 건너는 뗏목이 될 것이요. 범부중생에게는 감로수가 될 것입니다
– 전 해인사 주지. 현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태종사 조실 도성영공. 추천사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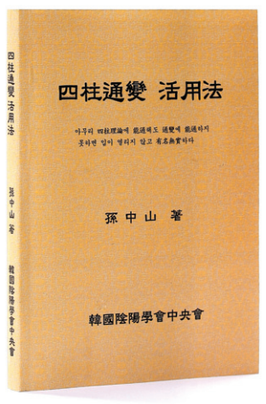
한국의 선불교 전통에서 오랜 세월 수행하다가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다시 접하고 비로소 안심입명의 숨을 쉬게 된 스님의 진솔한 사연을 접하는 것 같아 깊은 감동이 울려옵니다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 퇴현 전재성박사 추천사 중에서–

아신 수완나 편저 / 신서판 / 254쪽 / 8000원

[출판사 서평]
역사와 마음 닦는 책을 거울, 보감이라고 하였는데, 이 책이야말로 현대판 불교 명심보감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편견 없이 바라보고 가르침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한 구 한 구, 한 쪽 한 쪽 독서하며 수행해 나가면 반드시 해탈과 닙바나에 이를 수 있다.

구입문의 : 정우서적 (02)765-2920

화제의 신간!
新刊 四柱通變 活用法
(四柱는 理論보다 通變이 중요하다)



아무리 사주이론에 능통하다해도, 사주를 놓고 통변에 능통하지 못하면 입이 열리지 않고, 유명무실하다. 옛날부터 통변에 관한 해설이 다양하게 전해져 왔지만, 이를 바르고 쉽게 설명한 책은 드물다. 논어를 읽고도 논어를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명리학을 공부하고도 통변을 몰라 입이 열리지 않는 것이다.

본서는 사주통변의 핵심을 수록한 것으로 십신통변의 활용법과 통변의 작용에 따라 변화하는 운명과 성격, 육친관계, 직업 및 건강에 미치는 인사전반의 작용을 질서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므로 정독 이해하게 되면, 역학을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특히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사주감정에 실수가 없을 것이라 자부하는 바이다.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會長 孫中山 著 (316쪽 / 값 30,000원)

책자 신청 053)324-2468 / 010-9391-5699

아래계좌로 입금하시면 우편물 속달로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 : 농협 352-0585-5250-53 (예금주 손상용)



대행 스님

한 순간에 뛰어넘을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이 있어야

마음공부를 꼭 해야 하는 것인지요

문) 부처님 가르침은 너무나 방대해서 쉽게 공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마음공부를 꼭 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지요.

답) 부처님께서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해서 가르치신 뜻은 너무나 크고 묘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적인 문제보다도, 근본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자체에 세계적으로 퍼지고 퍼져서, 또 줄어들고 줄어들면서 또 퍼지고 하는 이 이치, 생했다 멸했다 생했다 멸했다 하는 반복되는 이 진리지만 이 속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런, 여러분이 겪어 보지 않고 실감해 보지 않은 뜻이 있으며, 너무나 많은 법과 더불어 무서운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알면은 너무나 좋고 자비하고 묘하고 광대무변하고 홀로이 우뚝 선 이 뜻이지마는 모른다 하면은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참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이치 속에서 여러분은 아픔을 받아야 하고 피를 삼켜야 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헤매고 도는 것입니다.

임제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공부를 해서 주장자가 있다면 내가 너에게 주장자를 줄 것이로되, 네가 주장자가 없다면 바로 네 주장자를 내가 뺏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이나 모든 분들에게 '주장자가 없다면' 하는 건 '이 도리를 모르면' 하는 소리, 자기 각을 이루지 못한 뜻에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없다면 빈집이나 한가지가 돼서 누구를 막론해 놓고 들락날락해도 그건 빈집이 되고 주인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몸으로 비유한다면, 세포를 뚫고 어느 고장엘 문이 없이 들락날락, 천만 가지의 문이 눈으로도 귀로도 이 세포로도 그 문이 그렇게 많은 대로 갖가지 형상을 하고, 갖가지 모습을 가지고, 갖가지의 그 행을 악조건으로 들락날락하면서 내 집을 마음대로 해도 어쩔 수 없이, 그게 어디서 오는지, 뺏기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항상 끄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보이지 않는 무체의 신은 선신이라고 하고 악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주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구 안에도 역시 사람 살던 그 악령이라든가 선령,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도리를 몰라서 주장자가 없고 바깥으로만 기복으로 찾는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요것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깡패는 애들을 데려가면 깡패짓을 가르치지만 선한 사람들은, 올바르고 정직하고 선한 사람들은 만약에 사람을 만났으면은 올바르게 이끌어 주고 선량하게 인도를 합니다. 그런 거와 같이 이 악령은 악령대로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형상 없는 그 악한 마음, 즉 악령은 시시각각으로 바꾸어 가면서 여러분 앞에 그 모습을, 여러분이 아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해서 '아, 이건 조상이 이러나 보다.' 이럭하게 만들고 '아, 이건 부처님이 이런가 보다. 그럼 정성을 들여야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해 주고 헝겊 하나만 들여도 그 집안이 난리가 나게 만들고, 그 집안에 떡을 좀 해 먹어도 난리가 나게 만들고…. 일일이 건건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서슴지 않고 사람의 혼백을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는 그러한 악조건을 가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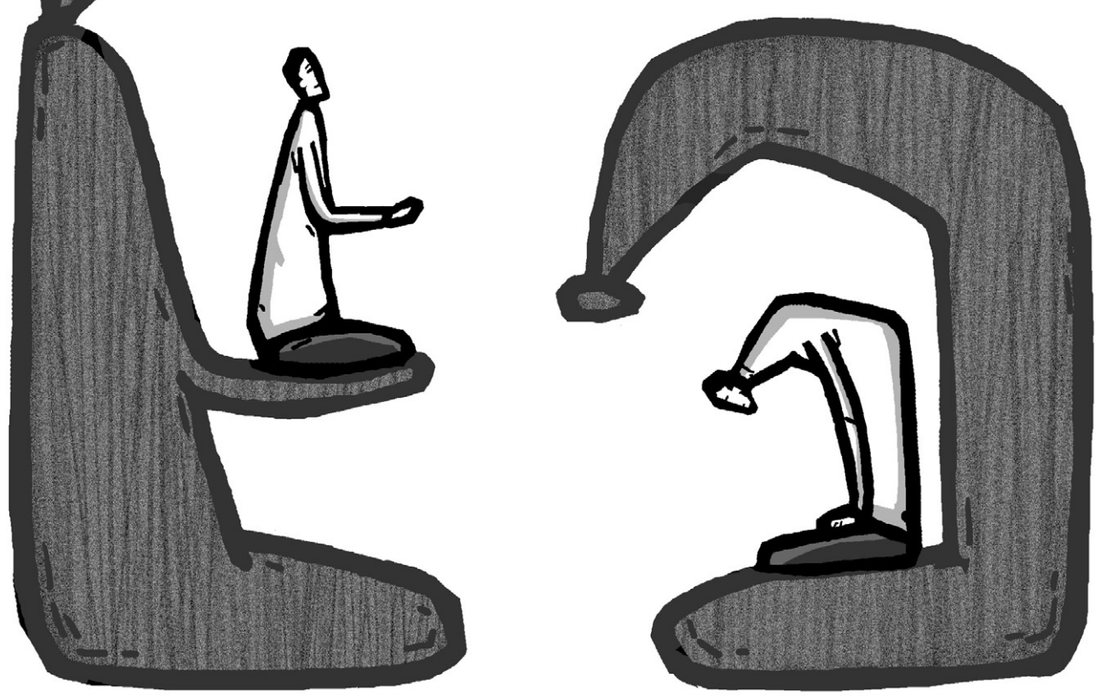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기가 악령으로서 억겁을 돈다 하더라도 그 억겁을 악조건으로써 악령들은, 자기가 그렇게 잘 못하기 때문에 선령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몸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악행만 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강도가 번연히 사람을 죽이면은 붙잡혀 들어가고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하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앞에 고난과 피해를 가지각색으로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도리를 알아서 선하게 선신으로서의 이끌어 주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면, 그 악한 사람도 마음을 녹여서 선하게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도리를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 드렸지마는, 이것이 우주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는 이 지금 사회, 이 한 가정 이런 데로 보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각각 보풀려야 되는가.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일가친척으로 돌아가고, 또는 내가 사회에 있으니 사회로 돌아가고 국가가 있으니 국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생각을 잘못하면은 잘못하는 대로 그러한 여건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도 역시 이익지 못한 일들이,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를 나쁘게 하려면 열 개를 나쁘게 해야 하나가 나빠지듯이, 별일이 다 많이 생기죠. 그렇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그런 악조건의 문제에 의해서 그건 세계, 우주적으로 오는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광대무변한 법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들이고 내고 하는, 이 숨쉬고 내쉬고 하는 이 우주의 근본이, 한 우주가 숨을 들이쉬면 쑥 들어갔다가 한번 내쉬면은 쑥 나왔다가 이렇게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데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런 형상 없는 영계의 그 모습 없는 행들을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생활 속에 근본적으로 우주의 그 광대무변한 악조건과 선조건이 포함해서 교차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은 상세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자기가 자기의 집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기가 자기의 가족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기가 자기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면…. 자기가 자기 세계의 여건을, 모든 거를 역력하게 눈 밝게 보고 귀 밝게 듣고 한 순간에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자기의 능력의 여건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악조건에 우리는 얽히고설킨 그 뜻을 풀어 나갈 수 있으며, 밀치고 뛰어넘을 수 있으며, 우리가 유유히 여여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유유히 걸어갈 수 있으며, 아주 당당하게 도도하게 바로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여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안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모든 조건에 의해서 이 도리를 모른다면은 우리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는 세계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우리가 앞으로 세세생생에 우리가 돌고 돌면서 그 역경을 당해야만 하는 문제가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삼심이 일심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문) '삼심이 일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요.

답) 삼심이 같이 돌아가는데 그 삼심이 일심으로 인해서 돌아간다 이겁니다. 과거에 살던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과거의 습을 짊어지지 마시고 오늘에 놓아버리세요

☞ 29면에서 계속

일들은 우리가 잠재해 있는 이 의식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차원이 자기한테 주어져서 바로 탤런트처럼 자기 배역을 맡아 가지고 여기 나오듯 생산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생산이 됐으면 생산이 된 대로, 그 차원대로 내가 배역을 맡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이 뱅뱅 돌고 있는 거죠. 그 배역을 맡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전자에, 과거심에서 내가 행하고 그 습을 익혔던 그것이 오늘날에 한데 부합이 됐기 때문에, 미래에는 앞으로 지금 살아나가는 습이 미래에 갈 것인데, 미래에 가서 오늘로 다시 올 것인데, 지금 공부하는 분들은 미래에 우리가 그 습을 짊어지고 가기 이전에 습을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에 갈 것은 오늘에 녹이고, 과거에 지은 것은 바로 오늘에 녹인다 이겁니다. 과거에 지은 그 습을 오늘에 놓는다면 미래에는 바로 습이 붙을 것이 없죠. 현재에 붙을 것이 없는데 어찌 미래에 붙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프로펠러가 돌듯이 인간 자체가 과거심으로부터 그 습을 짊어지고 나온 현실에, 바로 오늘에 놓지 못하면 미래에 다시 오늘에 또 짊어지고 나오니 세세생생에 우리는 그 업보에 끄달리면서, 윤회에 끄달리면서, 유전에 끄달리면서 항상 살아야 하는 그러한 그 참, 고된 아픔, 고독함, 외로움, 그 가난함 이러한 시절을 다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겪고 고만두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유전되어 항상 업보로서 얽히고설켜 돌아가니까 끝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 왕지사 이 몸을 받아 가지고, 오늘 배역을 맡아 가지고 나왔으면 오늘날에 아예 그냥 녹여 버리는 것이, 끄달리지 않고 녹여 버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관세음보살 기도로 가피를 받았다는데

문) 저는 부처님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심자입니다. 그런데 저의 어머니는 관세음보살 기도를 통하여 가피를 받았다 하시는데요,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는 것과 주인공에 관하는 것이 많이 다른 것인지요.

답)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은 맨 끄트머리로 가서는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공생이 됩니다. 공생인 거를 알게 되지요. 그리고 공심인 거를 알게 되고, 사람뿐이 아니라 말입니다. 또한 공체라는 거를 전부 알게 돼요. 그리고 또 공용이라는 거를 전부 알게 되지요. 내가 움죽거림으로써 네가 움죽거리고 네가 움죽거려서 주는 게 있으면 내가 너를 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서로에 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전부 공용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공식으로서 사는데 '일체 만법을 내가 어찌 들이고 내는 거를 알았으리까.' 하는 이치나 같습니다. 그래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도 조금도 걸림 없이 들이고 낼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야, 관세음보살을 찾았는데 그럼 관세음보살 다르고 주인공 다르냐 이거죠? 그런데 지장하고도 둘이 아니고 관세음하고도 둘이 아니고, 이건 용신하고도 둘이 아니고 허공신하고도 둘이 아니고 지신하고도 둘이 아니고, 모두 석신하고도 둘이 아니고, 모두가 생명이 있다 하면은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가 공체고 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알면은 공부도 잘되고 이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다가 자불을 불렀다. 자성불을 불렀다. 자성불이 있으니깐 관세음이라는 이름도 알았지 내가 없다면 관세음보살이라는 그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벌어진 거를 다 알게 된 거고, 또 이런 공부가 이렇게 이름이 많다 하더라도 일불이로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이름은 수없이 많으나 그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부분이, 부분이 따로따로 이게 돼 있다. 부엌일 따로 있고 마루 훔치는 거 따로 있고 방 훔치는 거 따로 있듯이 말입니다. 따로 있기는 하나 치우는 거는 한 사람이 다 치우죠. 그렇듯이 그냥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그게 부처님의 이차적인 이름입니다, 방편엔. 그래서 부처님 대리로서의 응신으로서 응해 주시는 것이 보살의 응신이에요. 그러니 그게 자기의 자성불하고도 둘이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은 정말 도인 아닌 도인이 되죠. 그럼으로써 편안하고 웃고 살 수 있고 한번 쳐다보고 농을 한번 할 수도 있고 한번 내려다보고 빙긋이 웃고 즐거워할 수도 있고. 아, 얼마나 좋습니까. 옆으로 보니 굴러가고 아, 모로 보니 모로 가도 굴러가고 뭐 굴러가지 않는 게 하나도 없고 찰나찰나 떼어 놓지 않는 게 하나도 없으니 자기 자체도 그냥 모 져서 있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냥 따지고 보면은 이걸 못 봐서 그렇지 퍼뜩퍼뜩 찰나찰나 뛰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되세요. 그 부자라는 게 무슨 돈이 많아서만이 부자가 아니에요. 이걸 공식으로서 다 알 수 있다면 그게 부자지요. 진짜 부자.

장기이식 받으면 업식도 같이 받을까요?

문) 요즘 장기 이식이나 유전자 조작이나 등을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게 발달이 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주는 사람의 업식이 같이 전이가 될 수 있지 않을는지요.

답) 업식보다도요, 업식이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몸체를 볼 때에 그, 육등 반으로 나누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육등 반으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그게 다 다르단 말입니다, 세포가. 다르니까 팀들이 다르단 얘기예요. 팀들이 다르니까 생김생김도 다른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겠다 하면은 세포를 가지고서, 유전자를 가지고서 사람 병치료를 한다 이래도 그 유전자의 의식은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딴 데 있던 그 유전자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도 변함없이 그 짓을 할 수 있다 이런 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여 치료를 했는데, 왜 그렇게 뭘 줄도 모르는 사람이 아주 뭠박질을 참 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수술을 할 때 그 유전자를 넣고 다리 부러진 그 틈을 했단 말입니다.

그 유전자는 차원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조금 생긴다는 얘기죠. 결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 좋지 않은 거는 모르지만 좋은 거는 지금 말해서 장땡이죠, 뭐. 좋지 않은 거는 또 좋지 않은 대로의 세세생생에 나갈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좋은 거 반이라면 언짢은 거 반이 거기 속한다 이런 뜻이죠.

또 장기 이식을 했다면, 죽은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발전이 돼서 거기로 옮겨졌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마음공부를 해서 자동 컴퓨터에서 지워진다면 별 문제지만 지워지지 못한다면 그건 대대로 내려가죠. 문제가 대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가는 거를 우리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를 제거할 수 있다. 좋든지 나쁘든지 좋은 거는 좋은 것대로 승화시키고 나쁜 거는 없애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두뇌에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돼 있다. 입력이 돼 있다. 입력이 돼 있어서 현실에 나오는 거를 반드시 거기다가 되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면서 새로이 입력이 들어가는 대로 나온다 이런 소립니다. 지금 바깥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공식으로서 공용으로 이걸 싸잡아서 해결을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나쁜 일도 안 했는데 왜 병이 왔는지…

문) 저의 오빠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참 자상하고 남들한테도 잘하는데 몇 개월 전서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엘 가도 병명이 안 나와요. 절에 좀 갔다 오면 좀 나아지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절에 가자 그러면 막 화를 내기만 해요. 오빠가 남한테 뭐, 나쁜 일도 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잘 살았는데 왜 그런 병이 오게 됐는지, 제가 어떻게 마음을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답) 그것이 지금 온 게 아니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기 전에 부모의 정자와 난자를 만났고 자기 영혼과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과 그게 첨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속에 그 생명, 모습, 의식이 모두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거든. 그래서 태어나는 건데, 그게 과거에 그것이 입력이 돼서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깐 그 속의 의식들이 "넌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고통이 되니까.

즉 말하자면 인과지요. 인과로써 남을 해롭게 했다거나 이런 점이 있다면 그러한 인과로 자기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인연들, 과거에 인연들이 된 그 마음이 오빠를 놔 주질 않거든요. 그 고통에서 저거 해야 원수를 갚을 텐데 아, 원수 갚을 수가 없거든. 거길 나가면 자꾸 그게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막는 건데, 오빠더러 관하는 법 고것을, 어떠한 게 거기서 시키더라도 거기다 맡기고, '거기서만이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안 나오게 하는 것도 거기다.' 하고 그렇게 하라고 일러 주면은 그게 대번 나을 수가 있어요.

이 정신계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제자리에서 만이 제자리를 고치지, 아무리 약을 쓰고 그래도 이 정신병이라는 게 딴 데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업식에서 오는 거예요, 의식에서. 내가 아무개다, 내가 아무개다, 너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라, 남을 때려라, 뭐 어딜 가거라 이러고 그냥 자꾸자꾸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노이로제가 돼서 그냥 거기에 말려서, 그게 정신병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깐 그 사람은 그저 자주 절에 나와서 신행담도 보고 책도 보면서, 법문도 듣고 이러고, 안 하더라도 거기다가 '거기서 나오는 거다. 거기서 시키는 거다. 거기서 들리는 거다. 거기서 말해 주는 거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화내는 것도 오빠가 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빠 아닌 그 오빠가 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거기다가 포함해서 돌려놓을 줄 알아야, 거기서만이 화해서 나에게 이렇게 접근한다는 걸 알고 그 자리에다 되놔야만이 그게 물방울과 물방울이 둘이 아니게 되듯 그렇게 하나가 되면서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즉 말하자면은 '오빠도 나오게 해서 이 공부를 하게끔 하는 것도 너 아니야? 마음이 안정되게 하는 것도 그렇고. 네가 오빠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나 보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하게 할 수도 있잖아?' 하고 자꾸 해 보세요.

사십구재를 지내야 한다는데

문) 불교에서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대부분 사십구재를 지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본래는 사십구재까지도 가지 않아요, 이 도리를 알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어머니 마음에다가 "아버지가 당신 마음에 있다." 고 하면은 물방울이 한 방울 있는데 한 방울마저 한 방울과 같이 한 거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가 그냥 하나가 돼서 사는 거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십구재라는 것도 사람들이 49일을 이렇게 해 놨으니까 사십구재지, 한 찰나예요. 이게 몸뚱이가 벌써 가기 전에, 사흘 전에 벌써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천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전에도 49일이 될 수 있죠. 꼭 49일만 49일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급하게, 예를 들어서 빨리 외국에를 식구가 가야 할 텐데 이 부모 상을 입어서 사십구재를 지내고 가야겠다, 이렇게 한다면 사흘을 사십구재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십구재가. 그거는 부모의 그 묵은 은혜를 갚게 하기 위해서 49일 이렇게, 칠칠재 이렇게 해 놓은 거죠.

> 오늘날에 이왕지사 이 몸을 받아가지고
> 오늘 배역을 맡아가지고 나왔으면
> 오늘날에 그냥 아예 녹여버리는 것이
> 끄달리지 말고 녹여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비첸지오 판매 비취)
  - ▶ B비취 : 원석에 착색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100% 순수 자연그대로 백련사 국내산 산삼

장長 뇌腦 삼蔘

건강이 최고!

평생 최고의 선물을 불자님들께 공급해 드립니다.
'경기도 안성 백련사'에서 직접 재배한 국내산
장뇌산삼을 최저가격으로 현불샵에서 공급해 드립니다.
한뿌리 한뿌리에 사찰의 정기가 서려 있습니다.
부모님, 스승님, 각종 업무에 지친 현대인들의 건강에 최고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백련사에 직접 방문 하시어 산삼을 채취 할 수도 있습니다.

7~8년근 3뿌리 15만원 → 특가 12만원 / 7~8년근 5뿌리 25만원 → 특가 19만원

장뇌삼의 효능

◇항암효과
장뇌삼은 암세포를 죽이고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로회복
장뇌삼에 함유된 말톨 성분은 간기능이나 심기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면역력 증강
만성피로나 체력저하 등의 허약체질을 개선해 주고 면역력 증강의 효능이 있습니다.
◇노화방지
항상화 작용이 뛰어나 노화를 방지하는데 효능이 있으며, 피부노화 뿐만아니라 몸 속의 세포의 노화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예방
장뇌삼에는 인슐린과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해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장뇌삼 먹는방법

◇생으로 장뇌삼을 먹는방법
장뇌삼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뇌두를 제거한 후 아침 공복이나 취침하기 전에 30분이상 오래씹어서 복용하세요.
장뇌삼을 먹기 전후에는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을 지어 먹는방법
장뇌삼과 함께 밥을 지어서 먹으면 기력이 없는 분들의 기력을 회복시켜주고 소화흡수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뚝배기를 이용해서 밥을 짓는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한약으로 먹는방법
장뇌삼 1주당 1리터의 물을 붓고서 쎈불로 달이다가 끓기시작하면 중불로 반으로 졸인다음 아침저녁으로 공복에 마시면 좋습니다.
◇술로 먹는방법
유리병에 장뇌삼과 술을 부어 밀봉시킨 다음 숙성시켜서 소주잔에 한잔씩 마시면 됩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 세상보기

부자가 한국에서 존경받으려면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돈독은 무섭다. 돈의 독성이 매우 강하다는 말이다. 그 돈의 독성을 풀고 중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땀이라고 한다. 땀만이 독의 독성을 없앨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이 땀이라는 중화제, 해독제가 없는, 독성으로 작용하는 돈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우리 한국의 부자들 가운데 열에 여덟은 자수성가형이 아니라 유산상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그 사실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가 아닐까 싶다. 물론 상속형의 부자라 하여 다 독의 독성에 마비되었다고 말할 이유는 없다.

대대로 부자로 지내면서 부자로서 지켜야 될 금도를 배워나간 그런 이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대를 이어 온 경주 최부자의 예도 있다. 그 가문은 부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철저히 계승하면서, 그리 오랜 동안 부자의 위치를 지키면서도 세인들로부터 증오와 질시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은연중 존경을 받아 왔던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우선 유산 상속의 시발점이 되는 부자들이 존경을 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 오지 못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남들이 모두 인정할만한 정당함과 노력으로 부를 이루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부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거의 없는 우리의 현실은 그들의 치부과정 자체가 그리 떳떳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정경유착이라든가 문어발식 기업운영, 하청업체와 노동자에 대한 착취구조 속에서 치부가 이루어진 측면이 많은 것이다.

그렇게 생성된 부를 계승한 이들이 정말 부자로서의 떳떳한 도리를 제대로 배웠다고 믿을 수 있을까? 또 배운 상속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물어 들어간다면 상속으로 부자가 된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이 정말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한국 몇 위라는 데 랭크가 될 정도의 부자가 아닌 경우에는 더더욱 그 문제가 쉽게 드러난다. 땅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그 지역이 개발이 되어 부자가 된 사람들, 투기를 통해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자의 금도를 제대로 알 것인가? 아니면 그 상속자가 제대로 알 것인가? 그런 부자들은 대부분 돈 독의 해독제를 전혀 지니지 못한, 돈 독에 중독된 사람들일 수밖에 없고, 그 돈 독이 그들을 병들게 할 뿐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그런 부자들의 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높다는 데 있다. 그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이요, 우리 사회가 강고한 신분의 벽으로 가로막힌 사회가 되어가는 증거이기에 무섭다는 말이다.

자신의 노력에 의해 신분상승의 기회가 막힌 경직된 사회가 되어간다는 것이다. 단지 최상층의 부자만이 그렇다고 말하면서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최상층의 벽은 대대로 이어지면서 견고하게 굳어져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계층에까지 연동된다. 최상층을 둘러싼 차상위 계층으로, 그 다음 계층으로.... 결국은 경제적인 신분이 엄하게 고착되고, 양극화로의 진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일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먹구름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걷어내기 위한 노력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게 결정되고 말 것이다.

우선은 부자들이 정말로 부자답게 살아가도록, 그럴 수밖에 없도록 국가적인 힘이 개입해야 한다. 국민의 여론을 배경으로 부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물론 부자들을 무조건 나쁘게 보려는 시각은 매우 위험하다. 정당하게 얻어진 부에 대한 존경심, 정말로 바르게 쓰이는 부에 대한 찬탄을 일으켜야 한다. 그 반면 잘못되게 축적된 부, 잘못 쓰이는 부에 대한 엄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즘 그릇된 방식으로 쌓이고, 잘못되게 사용되는 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마녀사냥과 같은 흥분으로 달아오르지 않도록 경계한다면, 부자가 존경받는 건강한 우리 한국의 미래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

社說

이주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지난해 말 경남 양산의 이주여성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다문화축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일이 있었다. 다문화사회를 위한 지역 축제들이 오히려 이질감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소외시키기까지 한다며 아예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까지 괄시받고 차별당해 오다 참다 못해 터져나온 그들의 분노는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아직 폐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다. 외국인 주민들은 이제 어엿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기에 다문화 사회를 포용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물론이고 지역 발전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현실에서 지난 6월 30일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가 서울 조계사서 개최한 '이주민 불자들과 함께하는 시민초청 무차대회'는 불교가 이주민 정책에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

이날 무차대회에는 미얀마,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베트남 등 8개국 불자 이주민 350명이 초청돼 공감토스콘서트, 장기자랑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직접 행사에 참여해 세계인들이 서로가 의지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꿈꾸신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승 스님은 사부대중은 이날 무차대회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 곳곳의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살아가는데 발벗고 나서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사실 이주민들은 동정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국민이자 시민으로 당당하게 대접받고 싶어 한다.

그동안 이주민들은 차별과 혐오, 차가운 시선만이 그들을 괴롭혀 왔다. 심지어 자녀들은 학교에서도 집단따돌림에 시달리는 등 이중삼중으로 고통 받고 있다.

우리 불교계부터라도 일회성 행사에만 연연해 하지말고 그들이 진정 바라는 소통과 화합, 존중과 배려, 그리고 꾸준한 관심 등을 실천하는데 앞장서자.

철야정진 인기 이유 있다

한국의 행복지수는 OECD 36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이며,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수는 2010년 기준 231만 명이다. 이는 2004년에 비해 1.5배 증가한 수치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행복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 역설'을 그대로 보여준다. 현대인 더 이상 '채움'으로는 행복감과 성취감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도심 사찰이나 시민선원 등에서 진행하는 정기적 철야정진이나 여름 특별 정진은 무더위를 피하고 자신을 비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실제로도 이들 철야정진 프로그램은 바쁜 일과로 자주 수행하기 힘든 불자들과 일반인 사이에서는 큰 인기를 모으고 있고 한다.

바쁜 현대인들이 참선과 문화행사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상에 매몰된 현실에서 참 나(我)를 돌아보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는 수행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기 때문이다. 실제 프로그램의 종류도 철야 참선이나 1000배, 다라니 독송 등 다양하며 이를 통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수행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름철 철야 정진은 프로그램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서울 길상사와 능인선원 등은 한 달에 한 번 철야정진을 실시하며, 보림선원 서울·부산선방, 조계사 선림원 등은 특별히 기간을 정하고 철야정진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화계사는 매주 주말 철야참선으로 유명하며, 부산 해운정사도 유사한 정진을 진행하고 있다.

행복의 주체는 '나 자신'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전국 사찰에서 진행되는 철야정진은 나의 본래면목을 찾을 수 있는 보물창고이다. 올 여름 사찰 철야 정진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발언대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 논란

조계종 중앙종회 제194차 임시회가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의 퇴장해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 비구 스님이 비구니 스님을 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와 관련해 불교재가여성단체,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은 당연한 시대 변화



일진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운문사 주지

제194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중앙종회 비구니 의원 스님들이 퇴장해 회기에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간의 정황은 이미 불교계 언론을 통해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먼저, 이번 종회에서 퇴장한 것은 스스로 자성하고 참회한다. 비구니 승가를 대표하는 종회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은 우리의 미숙함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이 관철하려 했던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언급하려 한다.

2012년 종단 자료에 의하면 현재는 비구니가 6,658명으로 비구 6,458명보다 조금 더 많다. 그러다 보니 종단의 종헌종법을 어긴 자를 심판하는 호계원과 종헌종법 심판기구인 법규위원회의 비구니들의 진입을 비구니들은 요구해왔다. 비구니와 관련된 사안은 비구니가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이는 비구니 승가가 종단 운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종단 발전에 일조할 수 있다는 애종심의 발로이기도 했다.

사실 사찰 문화와 풍토를 거부하고 배척할 생각은 없다. 다만 종헌 종법 안에서 이뤄진 제도를 시대에 맞게 조금씩 변화해 나가자는 취지였다. 사실 비구니 스님들이 호계위원으로 진입한다고 해도 비구 스님이나 사미를 갈마하고 심사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대등한 위치에서의 호계위원이 아니라 비구니를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비구니 호계위원을 원하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비구니 스님들을 담당하는 호계원의 구성도 필요하다. 비구니는 비구니 계를 통해 탄생하는 만큼 갈마와 심사 역시 비구니 스님이 담당하는 것이 맞다.

일부 비구 종회의원 스님들이 주장하듯이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이 율장 정신에 위반이라고 한다면 '중앙종회가 율장이 있는가'라고 되묻고 싶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은 여성의 출가를 허용하는 파격을 보이셨다. 많은 율(律)을 설하신 것도 승단의 화합과 철저한 수행을 강조하기 위해서 였다. 그 자구에 매달려 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정신을 유지·존중하면서 종단을 발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위로 오르려함이 아니다. 비구니 승가는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았을 때 사부대중의 인정을 받고 위상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비구니 종회의원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해 6000여 명의 비구니 스님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올바른 종책 개발과 의정활동으로 사부대중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 문제의 발언은 무엇이었나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제194차 임시회에서 다뤄진 종헌 개정안 축조심의 중 호계위원 자격에서 '비구'를 '승려'로 개정하는 것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고, 이 와중에서 모 비구 스님에게서 반대 발언이 나왔다.

"호계위원에 비구니 스님을 포함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원로회의의 통과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율정정신에도 어긋난다. 그간 비구 호계위원으로 인해 비구니 스님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비구니 스님이 비구니 스님 사건을 다루면 해당 스님은 소문이 나서 조계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비구 스님은 비구니 스님을 보호해주지만 비구니 스님은 비구니 스님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특허 제 10-1179171호 산삼줄기세포 간질환 예방 및 치료 용도 특허
특허 제 10-126315호 산삼줄기세포 노화방지 및 용도 특허
특허 제 10-1128953호 산삼줄기세포 암의 예방 및 치료용도 특허 외 다수

당신은 지금까지 '진짜 산삼'을 드셨습니까?

강원도 50년근 산삼 24뿌리분이 진하게! '셀원' 출시!
7일이면 몸이 달라지고 한달이면 다시 태어납니다!

◆ **전설 속의 명약 '산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초가 뭐냐고 묻는다면 누구나 첫손에 꼽는 것이 있다. 바로 산삼이다. 산삼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보거나 먹어본 사람은 극히 드물다.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 산삼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다는 이야기나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산삼을 먹고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산삼은 전설속에 존재하는 약초인양 멀게만 느껴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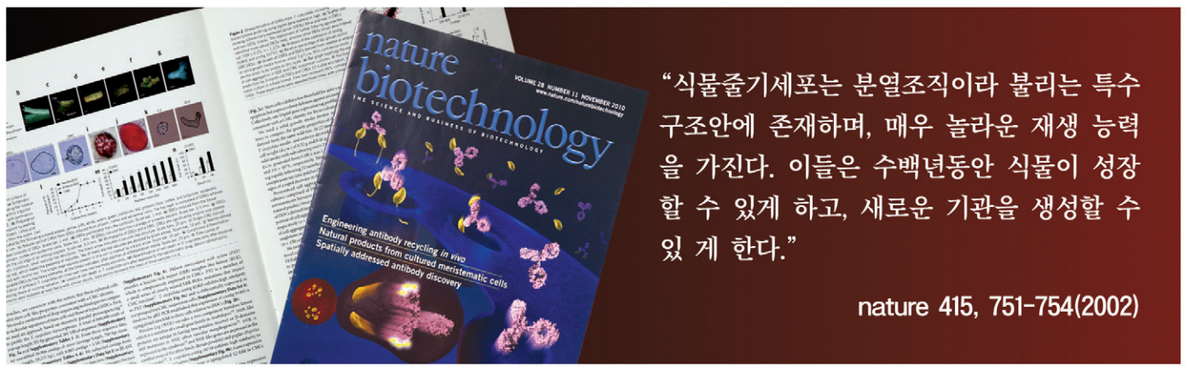
동양의학 최고의 신약(神藥)으로 칭송받는 산삼은 몸을 보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막힌 곳을 트여 줄 뿐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하고 모든 고통을 이겨내게 만들어 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우리는 시중에서 산삼을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수십년 묵은 산삼을 찾았다 하면 뉴스에 나올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산삼은 그야말로 존재는 하지만 볼 수 없는 전설 곳의 명약인 샘이다.

◆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심마니 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조차 산삼을 발견하면 '심봤다!'라고 외칠 만큼 산삼은 발견하기 힘들다. 산세가 좋고 풍수가 뛰어난 심산유곡에서 일조량, 토양, 고도, 지형 등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야만 생명의 씨앗을 틔우는 고귀한 존재인 산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식물이며 그 효과 또한 무궁무진하다.

허준의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 등에 따르면 산삼은 원기를 북돋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장, 폐, 간, 신장 등 오장육부의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한다. 그리고 항암작용, 노화예방, 정력증진, 동맥경화, 갱년기에도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한다. 진세노사이드,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포닌 또한 인삼의 10배, 홍삼의 4~5배이상 함유되어 있다.



▲ 국내에서 개발한 식물줄기세포 분리, 배양기술은 2010년 11월 (네이처)지 표지논문으로 살렸습니다. 네이처지는 전 세계 최고 권위의 생명공학 분야 학술지입니다.

산삼배양근, 장뇌삼 등은 산삼 흉내일 뿐
산삼과 100% 동일한 효능은 '산삼줄기세포'!
산삼 줄기세포 - 산삼의 효과 100%일치

◆ **50년근 산삼의 신비!**

산삼이 몸에 좋은 것은 알지만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 또한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모색해 왔다. 가장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삼' 과 '장뇌삼' 이다. 하지만 이는 유전적인 차이로 인해 산삼에 가까운 효과를 낼 수 없다. 그리고 최근 많이 볼 수 있는 '산삼배양근' 이 있다. 하지만 유전적, 후생 유전적변이 발생으로 인해 최종 산물변이 발생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산삼의 잔뿌리만 배양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한 신기술이 나왔다. 산삼의 '줄기세포' 만을 순수하게 분리·배양하는 기술(특허 제 10-1064518호)저장근을 가지는 초본식물의 형성층 유래식물 줄기세포주 및 이의 분리방법)이 개발된 것이다. 이 신기술을 통하여 '한국산삼감정협회' 에서 인증한 강원도산 50년근 산삼의 줄기세포를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이는 강원도에서 채취한 50년근 산삼의 효능·효과를 유전적 변이없이 100% 완벽하게 복제한 것으로 실제 산삼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좋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산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게 되었다.

◆ **50년근 산삼 24뿌리 '셀원'**

강원도산 50년근 산삼 24뿌리가 담겨 있는 '셀원' 은 그동안 극소수만이 누려왔던 산삼의 효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셀원'은 특허 받은 기술을 통해 50년근 산삼의 줄기세포 24뿌리분을 추출하여 한병 한병에 진하게 담아냈다. 섭취와 흡수에 좋은 액상형태인 '셀원' 은 하루 1병씩 손쉽게 섭취가 가능하니 진정 '하루에 산삼을 한뿌리씩' 먹는 꿈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는 옛날 임금님조차 이루지 못했던 불로장생의 꿈을 현대에 와서 이룬 쾌거라 할 수 있다. 이제 '셀원' 을 통해 하루 산삼 한뿌리를 먹는 호사를 누려보자. 출시를 기념하여 선착순 300분에 한정하여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상담문의 : 080-810-8100

세계가 놀란 '산삼 줄기세포'

산삼 줄기세포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 속속 들어나...

산삼은 피로회복, 면역력증진, 정력 증진, 위·간 보호 등에 뛰어나며 사포닌이 인삼의 10배, 홍삼의 4~5배 이상 포함되어 있다. 과거부터 신비의 명약으로 불리며 신성시된 약초로 시중에서도 찾아보기 매우 힘들 뿐더러 일반인이 접하기에는 더욱 어렵다. 최근 식물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분리 배양한 특허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

세계적으 로권위있는 '네이처바이오테크놀로지'의 표지 논문으로도 게재된 바 있는 이 기술을 동양의 신비로 불리는 강원도산 50년근 산삼에 접목한 것이다. 그결과 산삼의 줄기세포인 '산삼 배양세포' 에서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획기적인 신규물질이 다량 발견된 것이다.

국·내외 유수의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이 산삼배양 세포의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면역증강, 항노화, 간보호 등의 유효활성기능이 확인되었으며 특허로 등록되었다.



▲ 산삼배양세포의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면역증강, 항노화, 간보호 등의 유효 활성기능이 확인되었으며 특허로 등록되었다

국내·외 언론의 집중적 관심 받아...



SBS KBS MBC YTN Discov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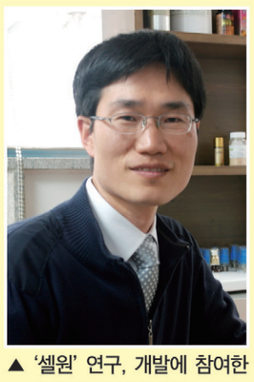
SBS 8시 뉴스 | "세계 최초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한국이 해냈다."
KBS 9시 뉴스 |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세계 첫 성공"
MBC 9시 뉴스 | "나무도 복제·식물줄기세포로 항암제 생산"
YTN뉴스 |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첫 성공"
디스커버리채널 | 2011년 다큐멘터리 3편 제작, 세계 300여개국에 방영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 표지 논문 게재 (2010년 11월호 표지논문)

노화방지 기력회복 면역력강화 위·간보호 등에 탁월!

다 좋지만 '산삼' 만 하겠습니까?

장뇌삼, 산삼배양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과! 대한민국 사람 중 산삼 좋은 것 모르는 사람 있나?



▲ '셀원' 연구, 개발에 참여한 정호준 수석연구원

"노화방지, 면역력강화, 정력증진, 위, 간 보호등에 탁월한 효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셀원'을 연구, 개발에 참여한 정호준 수석연구원은 식물 줄기세포 분리, 배양기술에 강한 확신을 보였다.

"산삼배양세포는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섭취할수 있는 훌륭한 개발품이다. 산삼배양세포를 먹으면 진세노사이드를 비롯한 많은 유효 성분들이 피를 말끔하게 풀어주고, 상처난 곳의 회복을 도우며 각종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몸을 지켜준다" 며 '셀원' 의 산삼배양세포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산삼배양세포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 이라며 "많은 분들이 산삼배양세포를 먹어 산삼의 영양을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특히, 출시를 기념하여 300분 한정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특별한 기회에 산삼줄기세포를 느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항상 지치고 피곤하신 분
- ☑ 기력이 떨어지고 힘에 부치는 분
- ☑ 병이나 수술 후 기력회복이 필요하신 분
- ☑ 손발이 차고 머리가 자주 아프신 분
- ☑ 평소 술과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
- ☑ 잔병치레가 많으신 분



2011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지식경제부 장관상 2011년 12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기술인정 2011년 2월

보건복지부 보건신기술 (NET 인증) 2011년 12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 2008년 8월

(ISO 9001 품질인증) 2007년 9월



한국산삼감정협회 50년근 삼삼인증서

300분 한정 특별할인행사

50년근 산삼의 신비 「셀원」 의 출시를 기념하여 특별행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만나보기 어려웠던 50년근 산삼의 신비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생산의 어려움으로 인해 300분에 한정하오니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산삼줄기세포 셀원으로 만나는 확실한 변화!

면역력 강화, 기력향상, 「셀원」 한박스에는 50년근 산삼 24뿌리의 산삼배양세포가 들어있어 떨어진 기력을 보충해주고 면역력을 강화하여 지칠줄 모르는 강한 체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 제품명 : 셀원 · 주요원료 : 산삼배양세포 추출물, 가피타히보추출물, 영지추출물, 참당귀추출물, 솔 잎 추출물, 복합황금추출물 외 · 제품구성 : 1박스 20ml×30병 · 제조원 : (주)에이지아이생명과학

상담문의 **080-810-8100**